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방안 연구

장 훈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19-04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방안 연구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손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서 문

문화기반시설 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공공의 영역에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문화기반시설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노력해왔고, 결과적으로 문화가 우리 삶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문화서비스와의 거리가 먼,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화기반시설을 사람들의 생활권에 위치하는 것이 문화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지리적 근접성 확대 방법만으로는 문화서비스를 삶의 구석구석 전달하는 것에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그간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해오고 있는 반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문화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제공하는 주체, 소비하는 주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책의 체감은 접근성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성 개념을 확장하여 시간 접근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서비스의 전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간구조가 변화되고, 삶의 질이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가 문화기반시설이 보다 국민들과 가까워지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대 관

정책연구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방안 연구

연구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 개요

가. 연구의 배경

- (문화서비스 포용성) 공공서비스로서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포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배제 발생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 기회가 지리적 접근성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 접근성 측면에서도 평등하지 않은 현상이 지속
 - 전일제 직장인을 중심으로 의무활동의 시간과 문화기반시설 운영 시간이 겹쳐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빈번
- (삶의 양식 변화)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 등으로 저녁 시간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 일상의 시간 구조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기반시설 서비스도 일정부분 늘어난 수요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 증가
- (공급의 효율성) 전통적인 방식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으로는 현재의 수요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어 대안적으로 현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현재 문화서비스 수요시간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과 시설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수요-공급 매칭 필요

나. 연구의 목적

- 주요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서비스의 공급 시간과 문화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분석하여 문화서비스 수요-공급의 시간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이론적 검토

가. 접근성 개념의 확장

- (지리적 접근성) 그간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접근성 논의는 지리적 접근성 위주로 논의되어 왔고, 지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설 수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음
 -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접근성 향상 방법은 최근 도시환경의 변화, 개인행동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한계에 직면
- (시간적 접근성) 최근 개인의 조건(취향, 일정 등)이 접근성에 큰 영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 중심의 시간접근성 개념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음
 - 시간적 접근성은 시계열에 따른 개인의 고정 활동과 유연 활동의 배열, 이동수단, 공급시설의 운영 시간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나. 문화기반시설의 개념

- (사전적 의미) 문화의 기능이나 문화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그러한 시설로 이루어진 영역을 의미하며,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등을 의미
- (정책적 의미) 법률로 보장된 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의미
- (본 연구에서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방시간 연장과 관련된 정책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대국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만을 대상으로 함

다. 문화기반시설 현황

- (공공 도서관) ‘18년 기준 1,042개관으로 문화기반시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립 박물관·미술관) ‘18년 기준 국공립 박물관은 398개관, 국공립 미술관은 68개관

라. 문화기반시설별 서비스 특성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공통 특성
 - 대상이 특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시설의 특정 시공간을 일방적으로 점유할 수 없는 개방형 보편 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차이
 - 도서관은 설립 목적이 이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자료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러한 설립 목적의 다름으로 인해 도서관이 박물관 미술관에 비해 서비스의 공공성, 향유의 일상성 측면에서 수요자와 보다 밀착되어 있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서비스의 차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서비스 내용	도서자료	박물관자료	미술자료
서비스 업무	시민 밀착 업무	콘텐츠 밀착 업무	콘텐츠 밀착 업무
서비스 가치	개인 실현 문화국가 실현	문화국가 실현 개인 실현	문화국가 실현 개인 실현
서비스 향유	일상적 향유	간헐적 향유	간헐적 향유

3. 문화기반시설 공급시간

가. 도서관

■ 개방시간 총량

- 도서관은 연간 평균 개관일수는 299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68.37시간으로 나타남
- 주당 평균 개방시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준으로 17개 시도 간 차이는 약 16시간으로 나타남

■ 야간 개방 비율

- 평일 자료실 기준으로 18시 이후 폐관인 도서관은 66.3%, 22시까지 개방하는 곳은 48.2%로 나타났고, 주말은 야간 개방 비율이 낮게 나타남
- 평일 열람실 기준으로 18시 이후 폐관인 도서관은 96.9%, 24시까지 개방하는 곳은 10.2%, 주말의 야간 개방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자료실에 비해 야간운영 비율이 높았음

야간 폐관시간 현황_공공도서관

(단위: %)

구분	자료실(N=1027)		열람실(N=746)	
	평일	주말	평일	주말
18시~19시	66.3	15.3	96.9	91.5
19시~20시	57.8	13.1	96.4	91.2
20시~21시	50.9	11.5	95.8	89.4
21시~22시	48.2	9.7	90.8	85.2
22시~23시	1.2	0.6	38.5	32.6
23시~24시	0.0	0.0	10.6	10.2

- 자료실 평일은 대도시의 야간 개방비율이 높았고, 자료실 주말, 열람실 평일/주말의 야간개방 비율은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났음

■ 야간 이용객

- ‘18년 현재 야간 개방을 하는 49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야간 이용자 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이용객 대비 18.5%가 야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도서관 야간 이용자

	사례 수	전체 이용자	야간 이용자	야간 이용 비율
총계	493	182,520,179	33,786,440	18.5%
지자체	429	140,382,571	27,711,281	19.7%
교육청	64	42,137,608	6,075,159	14.4%

나. 박물관 및 미술관

■ 개방시간 총량

- (박물관) ‘17년 기준 국립 박물관의 연평균 개관일수는 317.2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50.39시간, 공립 박물관의 연평균 개관일수는 315.9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51.33시간으로 나타남. 주당 평균 개방시간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최대/최소 기준으로 약 17시간으로 나타남
- (미술관) ‘17년 기준 국립 미술관의 연평균 개관일수는 312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48시간, 공립 미술관의 연평균 개관일수는 299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47.56시간으로 나타남. 주당 평균 개방시간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최대/최소 기준으로 9시간으로 나타남

■ 야간 개방 및 무휴관

- (야간개방) 일반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야간 개방을 하고 있지 않

으며, 일부 국립 시설을 중심으로 수요일과 토요일 21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폐관시간 현황

(단위: %)

구분	박물관	미술관
18시~19시	0.5	0.0
19시~20시	0.5	0.0
20시~21시	0.5	0.0
21시~22시	0.3	0.0
22시~23시	0.3	0.0
23시~24시	0.0	0.0

- (무휴관) '17년부터 8개의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무휴관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야간 및 무휴관 이용객

- (야간 이용객) '18년 현재 박물관의 야간 이용자는 전체 이용객의 1.6%, 미술관의 야간 이용자는 전체 이용객의 2.6%로 나타남

국립시설 야간 이용자

(단위: 명, %)

	사례 수	2017년		2018년	
		이용자 수	야간이용자 수	이용자 수	야간이용자 수
박물관	17	12,578,285	254,730(2.0%)	12,993,870	211,763(1.6%)
미술관	3	2,839,931	44,479(1.6%)	2,445,969	63,850(2.6%)

- (무휴관 이용객) '18년 현재 무휴관 이용자는 전체 이용객의 8.8% 수준으로 나타남

박물관·미술관 무휴관 이용자

(단위: 명, %)

	사례 수	2017년		2018년	
		이용자 수	기존휴관 이용자 수	이용자 수	기존휴관 이용자 수
박물관 미술관	8개관	10,170,158	894,011(8.6%)	10,418,195	905,202(8.8%)

4. 문화기반시설 수요분석

가. 수요 특성

- (도서관) 도서관은 방문 경험, 빈도, 이동수단 등을 고려했을 때, 생활권에서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으로 나타남
- (박물관·미술관) 박물관과 미술관은 방문 경험률, 빈도, 이동수단, 방문 요일 등을 고려했을 때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으로 나타남

시설별 수요 특성

	방문경험	방문빈도	주요 이동수단	이동시간	주 방문요일
도서관	48.6%	월 1회 이상 방문(69.7%)	도보(37.7%)	20.1분	평일/주말
박물관	33.6%	분기 1회 미만 방문(84.7%)	자가용(54.5%)	61.1분	주말(토)
미술관	27.4%	분기 1회 미만 방문(83.4%)	대중교통(53.4%)	58.5분	주말(토)

나. 수요 최적 시간

- (최적 구간)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일은 19~22시, 주말은 14~17시로 나타났고, 주말의 17~22시 구간도 잠재적 수요가 많은 구간으로 나타남

문화시설 최적 수요 구간

구분		가용한 최적 구간	비고
여가활동 구간		19시~ 23시	
문화시설 이용가능 구간	평일	19시~ 22시	
	주말	14시~ 17시	17시~22시 구간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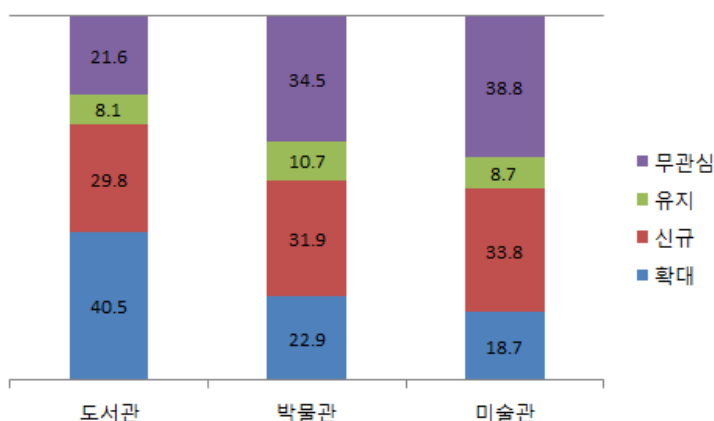
- (연장 선호 구간) 도서관은 평일/주말 저녁에 대한 개방연장 선호가 나타났고, 박물관·미술관은 토요일 저녁의 개방연장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이용 선호 시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례수	(495)	(439)	(428)
1순위	평일 저녁(28.1%)	토요일 저녁(30.8%)	토요일 저녁(28.7%)
2순위	상시(24.6%)	특정 평일(17.3%)	특정 평일(18.2%)
3순위	토요일 저녁(20.4%)	평일 저녁, 상시(17.3%)	평일 저녁(18%)

다. 개방 연장 효과 예측

- 현재 이용자, 개방연장 참여 의향자 분석을 통해 개방 연장으로 인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중소도시 30~50대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이용층과 확대 이용층을 합쳐 개방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예측해 보면 도서관은 70.2%, 박물관은 54.5%, 미술관은 52.5%의 이용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자 집단의 비율

5. 종합 진단 및 기본 방향

가. 수요-공급 진단

- (공급특성) 도서관은 50% 내외가 야간개방을 하는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부 국립시설을 제외하고 야간개방을 하고 있지 않음
- (수요특성) 도서관은 생활권 일상적 수요가 높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간헐적 이벤트성 수요가 높음
- (수요기회) 개방시간과 이용가능시간 매칭 결과, 야간 수요기회는 모든 시설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의 수요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

시설별-도시규모별 저녁시간 수요기회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평일 저녁	주말 저녁	평일 저녁	주말 저녁
대도시	중간수준 높음	비교적 낮음	희박, 전무	희박, 전무
중소도시	비교적 낮음	비교적 낮음	희박, 전무	희박, 전무
읍면지역	비교적 높음	비교적 높음	희박, 전무	희박, 전무

- (연장요구) 대도시, 중소도시의 연장요구가 높고, 도서관은 평일, 박물관과 미술관은 토요일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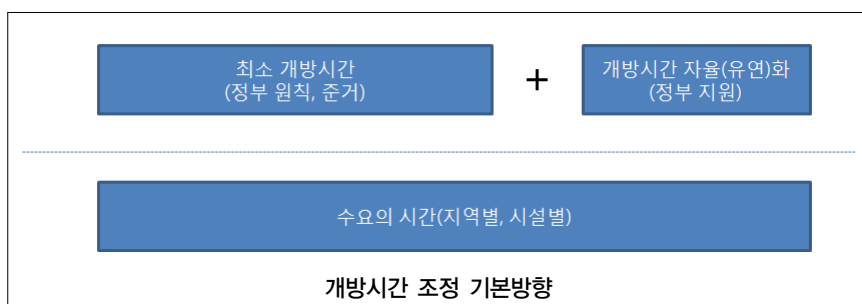
나. 정책 여건 진단

- (문화권) 여가시간 증가를 문화적이고 능동적인 내용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노동권)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관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효율성) 지역의 여건과 문화수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급 방식 혁신 필요

	주요 내용	정책 방향
공급특성	- (도서관) 연장사업 실시, 중소도시의 개방총량 높음, 중앙정부 지원정책 실시 - (박물관) 중소도시의 개방총량 높고, 지원정책 미미 - (미술관) 읍면지역의 개방총량 높고, 지원정책 미미	- (도서관) 기존정책 활용을 통한 개방시간 연장 - (박물관·미술관) 기존정책 활용과 신규 개방연장 지원정책 병행
수요 특성	- 도서관의 일상적 수요가 높음 - 박물관·미술관은 간헐적 수요가 높음	- (도서관) 전면적 지원확대 고려 - (박물관·미술관)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조정 고려
수요 기회 (수요-공급)	- 대도시, 중소도시의 야간 수요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	- (대도시, 중소도시) 우선적 조정 - (읍면지역) 단계적 조정
연장 수요	- 대도시, 중소도시의 야간 연장 요구가 높음 - 도서관은 평일과 박물관과 미술관은 토요일 연장 수요가 높음	- (도서관) 평일 저녁 중심 개방시간 조정 - (박물관·미술관) 토요일 저녁 중심 개방시간 조정
정책 여건	- (지역여건) 지역의 수요의 차이 발생 - (인력여건)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인력의 처우문제 해결 불가능	- (효율성)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지원, 기존 자원의 혁신적 활용 방안 검토 - (근로환경) 근로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방안에 대한 검토

다. 기본방향

- (설정근거) 공급특성, 수요특성, 수요기회, 연장에 대한 수요, 정책 여건 등 시설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획일적인 방식으로 연장방향을 정할 수 없음
- (기본방향) 지역여건과 시설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연장’
- (실행방향)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원칙 수립, 지방정부는 여건에 맞는 모델 수립 및 실행



6.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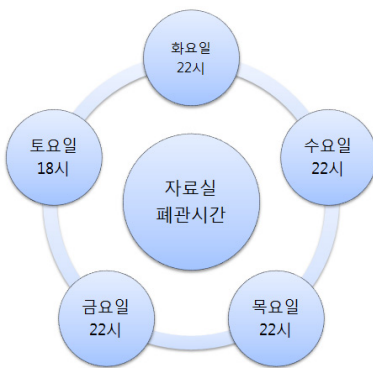
가. 문화권 확대를 위한 개방시간 유연화

1) 도서관 조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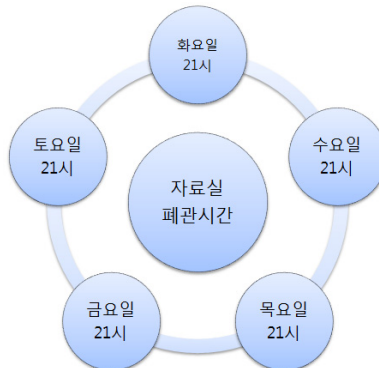
- (야간 개방시설 확대 모델) 도서관 야간 개방시설 확대를 통한 문화권 확대
 - 인력추가 배치, 외부기관 위탁 방식 등을 통해 야간개방시설의 확대를 통해 문화향유권 확대
 - 개방연장으로 인한 추가 인력과 관련해서 처우,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지역에 따라 확대 구간을 확정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야간 개방 확대

- (개방시간 총량 관리 모델) 지역 내 개방시간 총량 하에서 수요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조정 및 지역 내 시설 교차 야간개방 등을 활용하여 수요의 기회를 확대



현행 개방시간 연장



대안적 개방시간 연장

- (혁신) 현행 개방시간 지원정책을 평일 22시로 한정하지 말고, 주당 총량으로 기준 전환 필요
- (확산)모델의 확산을 위해 개방시간 총량에 대한 기준, 개방시간 총량 관리의 주체, 개방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지역 범위 등 설정 필요
- (인력관리) 총량 관리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 인력의 관리 방식을 사회서비스원 모델 도입 검토

사회서비스원 개요

구분	내용
설립 배경	- 민간 위탁은 계획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고용관계 불안 - 공공 직영은 고용불안은 해소되나 효율성 저하
설립 취지	- 공공의 투명성, 민간의 전문성 결합 -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서비스유형	- 보육, 요양 필수제공 -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인력 관리	- 재가서비스,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인력을 직접고용

2) 박물관 미술관 조정 모델

- (거점시설 개방연장 모델) 박물관 미술관 수요의 대표적인 특성이 간헐적 소비이므로 일괄적인 개방연장 사업보다는 지역의 거점 시설에 개방연장 모델 검토
 - 현재 국립시설 야간개방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상
 - 수요가 높은 요일(예를 들면, 토요일)부터 적용해본 후 확대, ‘문화가 있는 날’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방향 설정
 -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시범적으로 일부 시설은 야간개방에 따른 일부 유료화 검토
 -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 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
- (공간별 개방시간 다양화 모델) 공간별로 개방시간을 다양화하여 열린 박물관·미술관 이미지 구축
 - 핵심공간과 부대공간을 분리하여 개방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부대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운영
 - 무휴관 정책의 애로사항인 자료 관리의 문제도 공간별 개방시간을 다양화를 통해 해결 가능성 모색
 - (사례) 일본의 가나자와 미술관, 프랑스 퐁피두센터는 공간별 개방

시간을 다양화하여 ‘열린 공원 같은 공간’ 지향

3) 문화기반시설 복합 활용 모델

- (도서관 활용 모델) 인구 감소,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에 우위를 보이는 도서관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제공
 - 정부의 생활 SOC 계획에 맞춰 도서관 리모델링 시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간 확보

생활SOC 추진방식

생활SOC 추진 방식	내용
시설복합화	시설복합화를 통해 부지확보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절감
지자체유인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율 상향(현행 + 10%)
지속가능운영	자체운영비 확보방안 검토, 운영비 부담완화방안 검토

- (박물관·미술관 복합 모델) 서비스의 내용 측면에서 전문적인 영역 일 경우 박물관과 미술관을 복합화하여 개방시간 조정 검토
 - 기본적으로 거점 시설을 활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인건비 지원 정책, 기술 활용을 통한 무인서비스 정책, 일부 유료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개방시간 연장 서비스의 다각화

- 잠재적 수요, 신규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의 시간적 확대뿐 아니라, 확대된 시간 동안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

1) 도서관

- 교육 및 문화서비스 강화
 - 도서관은 평생학습시설이면서 지적 욕구에 기반을 둔 수요가 많으므로 도서관 야간 서비스를 자료서비스 외에 교육 및 문화서비스로 확대
 - 개방시간 연장 +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여 지원

2) 박물관·미술관

- 기획 전시의 확대
 - 전시공간의 개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상설 전시 외에 기획전시를 강화하여 재방문으로 유도할 필요
 - 개방시간 연장과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되, 생활예술/아마추어 예술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지원도 고려

다. 문화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반 구축

1) 문화기반시설 수요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요 빅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거나 수요데이터를 소유한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 문화기반시설 유동인구 데이터, 문화기반시설 이용 데이터 등에 대한 지속적 수집 및 정책적 활용
 - 수요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의 문제 등 규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규제 샌드박스 등 활용) 필요

2) 문화기반시설 공급 데이터 수집 강화

-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두 가지인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이 개별 관리되고 있어, 공급의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문화기반시설 총람, 도서관통계 등 기존의 통계 수집 시 수요에 민감한 정보들의 수집을 강화
-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 공공 부문에 있어 일자리 확대, 노동권 보호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바, 체계적인 문화기반시설 노동자 정보 수집 필요
 - 인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수요 데이터와 더불어 문화서비스 인력 수급 계획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3) 문화기반시설 시간접근성 개선 기반 구축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개방시간 총량 기준 설정
 - 지역의 인구, 해당 문화기반시설의 특성, 제공할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시간 기준 가이드라인 설정

도서관 서비스 수준별 최소 개방시간 기준 사례

주	서비스 수준	개방시간	비고
버지니아주	A등급	40	최소 연속 3일 야간 및 적절한 주말 시간을 포함
	AA등급	68	20시간은 야간과 주말 배정
	AAA등급	76	주 7일 및 야간 4일

- 문화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기존 시설확충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서비스 전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문화서비스 전담 지원체계 필요
 - 재정분권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역 문화시설에 건립 및 운영에

- 대한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역할의 재설정 필요
-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서비스 사업, 전달, 마케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활성화에 기여
- 수요와 공급 데이터 지속적 축적, 문화서비스 컨설팅 지원, 문화서비스(인력) 수급계획 수립 등의 업무 담당

7.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 강화

- 사회서비스 영역 중 문화서비스 영역이 수요를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던 탓에 수요자 중심주의가 유명무실했었으나, 역으로 어려운 영역일수록 이해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강화

- 문화서비스의 국민 체감 최전방에는 문화기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문화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강화하는 것이 문화향유 확대에 효율적

다. 결핍 패러다임에서 실현 패러다임으로 전환

- 문화서비스가 취향과 선택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기존의 결핍 패러다임의 양적 확대 공급정책에서 개인 행위 실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제공 필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방법	9

제2장 문화기반시설의 개념과 현황

제1절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관련 논의	13
1. 접근성 일반	13
2. 지리적 접근성	15
3. 시간접근성	16
제2절 문화기반시설의 개념	21
1. 문화기반시설의 개념	21
2. 본 연구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범위	24
제3절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특성	26
1. 문화기반시설 일반현황	26
2. 문화기반시설별 서비스 특성	29

제3장 문화기반시설 공급시간 분석

제1절 공급시간 분석 개요	35
1. 분석의 목적	35
2. 분석의 대상 및 자료	35
3. 주요 분석 항목	36
제2절 도서관 공급시간 분석	37
1. 도서관 운영시간 현황	37
2.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정책 현황	45

제3절 박물관·미술관 공급시간 분석	48
1. 박물관 운영시간 현황	48
2. 미술관 운영시간 현황	52
3. 박물관 및 미술관 개방시간 조정 정책 현황	5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62
1. 도서관	62
2. 박물관·미술관	63
3. 시사점	65

제4장 문화기반시설 수요시간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71
1. 조사 개요	71
제2절 조사 결과	75
1. 자료의 특성	75
2. 이용자 시간 관련 현황	77
3. 일상의 시간 구조	82
4. 문화기반시설 이용관련 현황	86
5.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 관련 의견	107
6. 문화기반시설 이용 가능 시간	122
7. 문화기반시설 일반	128
제3절 수요 심층 분석	133
1. 여가활동 확장 가능성 분석	133
2.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이용 확대 가능성 분석	13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42
1. 개인 시간 관련 일반 사항	142
2. 일상의 구조	142
3. 문화기반시설 이용 현황	143
4.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 관련	145
5. 문화기반시설 이용 가능 시간	147
6. 문화기반시설 일반	148

7. 수요 심층 분석	148
-------------------	-----

제5장 종합진단 및 정책 여건 분석

제1절 수요-공급 종합 진단	153
1. 문화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153
2. 문화서비스 수요-공급 시간 매칭	155
3. 문화서비스 개방시간 조정 수요	164
제2절 정책 여건 분석	166
1. 분석 목적	166
2. 정책여건	168

제6장 개선방향 및 과제

제1절 기본 방향	183
1. 종합 검토	183
2. 기본 방향	187
제2절 정책 과제	190
1. 문화권 확대를 위한 개방시간 유연화	190
2. 개방시간 연장 서비스의 다각화	203
3. 문화기반시설 접근성 향상 기반 구축	205
제3절 결론 및 제언	212
1. 결론	212
2. 정책적 제언	215

참고문헌	218
-------------------	-----

ABSTRACT	221
-----------------------	-----

부 록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	223
--	-----

표 목차

〈표 2-1〉 접근성의 개념	13
〈표 2-2〉 이상적인 접근성 측정 예시	14
〈표 2-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의 문화시설 분류	22
〈표 2-4〉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구분한 문화시설	23
〈표 2-5〉 본 연구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범위	25
〈표 2-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수	26
〈표 2-7〉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	27
〈표 2-8〉 국공립 박물관 수	28
〈표 2-9〉 국공립 미술관 수	29
〈표 2-10〉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의 설립 목적 및 정의	31
〈표 2-1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서비스의 차이	32
〈표 3-1〉 공급시간 분석 대상 및 자료	35
〈표 3-2〉 공급시간 주요 분석 항목	36
〈표 3-3〉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구분	36
〈표 3-4〉 2017년 공공도서관 가동현황	37
〈표 3-5〉 2017년 공립 작은 도서관 연도별 평균 운영시간	37
〈표 3-6〉 지역별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총량	38
〈표 3-7〉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현황(자료실)	39
〈표 3-8〉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현황(열람실)	40
〈표 3-9〉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 현황(자료실_평일)	41
〈표 3-10〉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현황(자료실_주말)	42
〈표 3-11〉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 현황(열람실_평일)	43
〈표 3-12〉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현황(열람실_주말)	44
〈표 3-1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현황	45
〈표 3-14〉 공공도서관 야간 개방 현황	46
〈표 3-15〉 공공도서관 야간 이용자 현황	46
〈표 3-16〉 공공도서관 야간 이용 비율	47
〈표 3-17〉 2017년 국공립 박물관 가동현황	48
〈표 3-18〉 지역별 국공립 박물관 개방시간 총량	49

〈표 3-19〉 시간대별 박물관 개방 현황	50
〈표 3-20〉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박물관 개방 현황	51
〈표 3-21〉 2017년 국공립 미술관 가동현황	52
〈표 3-22〉 지역별 국공립 미술관 개방시간 총량	53
〈표 3-23〉 시간대별 미술관 개방 현황	54
〈표 3-24〉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미술관 개방 현황	55
〈표 3-25〉 국립문화시설 야간 개방 현황	56
〈표 3-26〉 도시규모별 국립박물관·미술관 야간개방 시설 수	56
〈표 3-27〉 국립문화시설 야간개장 지원 현황	57
〈표 3-28〉 국립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야간 이용객 현황	57
〈표 3-29〉 국립시설 야간 개방 이용자 현황	58
〈표 3-30〉 국립 문화시설 무휴관 운영 현황	59
〈표 3-31〉 국립문화시설 무휴관 지원 현황	59
〈표 3-32〉 국립문화시설 무휴관 이용자 현황	60
〈표 3-33〉 국립문화시설 무휴관 이용 비율	60
〈표 3-34〉 공립 박물관·미술관 야간 개방 현황	61
〈표 3-3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개방시간 현황 종합	66
〈표 4-1〉 조사대상	72
〈표 4-2〉 설문문항	73
〈표 4-3〉 응답자 특성	75
〈표 4-4〉 〈평일 기준〉 시간별 주 활동	83
〈표 4-5〉 [주말 기준] 시간별 주 활동	85
〈표 4-6〉 도서관 방문 요일/시간대	94
〈표 4-7〉 도서관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	95
〈표 4-8〉 박물관 방문 요일/시간대	99
〈표 4-9〉 박물관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	100
〈표 4-10〉 미술관 방문 요일/시간대	104
〈표 4-11〉 미술관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	105
〈표 4-12〉 이용시간 불일치 경험	107
〈표 4-13〉 이용시간 일치의 중요도	109
〈표 4-14〉 문화기반시설별 개방시간 조정 필요 여부	111

〈표 4-15〉 도서관 개방시간 조정의 방향	112
〈표 4-16〉 박물관 개방시간 조정의 방향	113
〈표 4-17〉 미술관 개방시간 조정의 방향	114
〈표 4-18〉 개방시간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119
〈표 4-19〉 개방시간 연장 시 이용 의향	120
〈표 4-20〉 문화시설 이용 가능 시간	122
〈표 4-21〉 도서관 방문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중복 응답, n=914)	125
〈표 4-22〉 박물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중복 응답, n=713)	126
〈표 4-23〉 미술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중복 응답, n=683)	127
〈표 4-24〉 국립 문화시설 무휴관 정책의 지속 필요여부	130
〈표 4-25〉 여가활동 집단별 통계학적 특성 분석	135
〈표 4-26〉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집단 구분	136
〈표 4-27〉 도서관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집단 특성 분석	137
〈표 4-28〉 박물관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집단 특성 분석	139
〈표 4-29〉 미술관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집단 특성 분석	140
〈표 4-30〉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접근성 긍정 비율	144
〈표 4-31〉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개방시간 조정 필요성	145
〈표 4-32〉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개방시간 조정방향	145
〈표 4-33〉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개방시간 연장 비용부담 주체	146
〈표 4-34〉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지불비용 순위	146
〈표 4-35〉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이용 선호 시간	147
〈표 4-36〉 문화시설 이용 가능 시간	148
〈표 5-1〉 일상의 시간 구조 및 문화시설 이용 가능한 시간대	153
〈표 5-2〉 문화시설 최적 수요 구간	154
〈표 5-3〉 도서관 수요-공급 시간(자료실_평일기준)	155
〈표 5-4〉 도서관 수요-공급 시간(자료실_주말 기준)	156
〈표 5-5〉 박물관 수요-공급 시간(평일 기준)	157
〈표 5-6〉 미술관 수요-공급 시간(일요일 기준)	158
〈표 5-7〉 수요기회 지표 산출 방식	160
〈표 5-8〉 도서관 시간대별 수요의향자의 서비스 기회(자료실_평일기준)	160
〈표 5-9〉 도서관 시간대별 수요의향자의 서비스 기회(자료실_주말기준)	161

〈표 5-10〉 박물관 시간대별 수요의향자의 서비스 기회(평일기준)	162
〈표 5-11〉 미술관 시간대별 수요의향자의 서비스 기회(일요일 기준)	163
〈표 5-12〉 개방시간 조정 관련 주요 요소에 대한 의견 통합	165
〈표 5-13〉 개방시간 조정 관련 정책여건	166
〈표 5-14〉 주 52시간 근무제 전후 야간 카드지출	170
〈표 5-15〉 문화예술행사 관람시간	174
〈표 5-16〉 도시규모별 문화기반시설 미입지 현황	175
〈표 5-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_문화 분야	177
〈표 5-1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
〈표 5-19〉 문체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사업	178
〈표 6-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급시간 특성	183
〈표 6-2〉 시설별 수요 특성	184
〈표 6-3〉 시설별-도시규모별 저녁시간 수요기회	185
〈표 6-4〉 시설별-도시규모별 개방시간 조정 수요	186
〈표 6-5〉 개방시간 관련 정책여건	187
〈표 6-6〉 종합진단 및 정책방향	188
〈표 6-7〉 서비스 인력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	191
〈표 6-8〉 도시 규모별 도서관 수요기회 및 개방 연장 요구	192
〈표 6-9〉 사회서비스원 개요	195
〈표 6-10〉 야간개방 운영 국립박물관·미술관의 분포	197
〈표 6-11〉 가나자와 미술관 공간별 이용시간	199
〈표 6-12〉 퐁피두 센터 공간별 개방시간	200
〈표 6-13〉 생활SOC 추진방식	202
〈표 6-14〉 미국의 서비스 수준별 최소 개방시간 기준(3개주)	210
〈표 6-15〉 프랑스 문화부의 수요관리 부서의 역할	211

그림 목차

[그림 2-1] 기회기반 접근성 개념의 구성도	17
[그림 2-2] 지역별 국공립 박물관 현황	28
[그림 2-3] 지역별 국공립 미술관 현황	29
[그림 4-1] 개인 시간 부족 여부 정도	77
[그림 4-2]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간의 종류	78
[그림 4-3] 하루 일과가 끝난 후 피곤함 정도	79
[그림 4-4] 일과 후 여가시간을 내는 사람의 비율	79
[그림 4-5] 일과 후 여가시간 활용	80
[그림 4-6] 일과 후 여가활동 의향	81
[그림 4-7] <평일기준> 시간별 주 활동	82
[그림 4-8] <주말 기준> 시간별 주 활동	84
[그림 4-9] 최근 1년 이내, 문화시설 별 방문 경험	86
[그림 4-10] 문화시설별 가용성	87
[그림 4-11] 문화시설별 지리접근성	88
[그림 4-12] 문화시설별 시간접근성	89
[그림 4-13] 문화시설별 서비스접근성	90
[그림 4-14] 문화시설별 충분도	91
[그림 4-15] 도서관 이동수단	92
[그림 4-16] 도서관 이동시간	93
[그림 4-17] 도서관 방문빈도	93
[그림 4-18] 도서관 평균 체류 시간	96
[그림 4-19] 도서관 향후 방문의향	96
[그림 4-20] 박물관 이동수단	97
[그림 4-21] 박물관 이동 시간	98
[그림 4-22] 박물관 방문 빈도	98
[그림 4-23] 박물관 평균 체류시간	100
[그림 4-24] 박물관 향후 방문 의향	101
[그림 4-25] 미술관 이동수단	102
[그림 4-26] 미술관 이동 시간	103

[그림 4-27] 미술관 방문 빈도	103
[그림 4-28] 미술관 평균 체류시간	106
[그림 4-29] 미술관 향후 방문의향	106
[그림 4-30] 이용시간 불일치 경험	107
[그림 4-31] 이용시간 일치의 중요도	109
[그림 4-32] 문화기반시설별 개방시간 조정 필요 여부	110
[그림 4-33] 문화시설별 개방시간 조정 방향	111
[그림 4-34] 개방시간 연장 비용부담 주체	115
[그림 4-35] 개방시간 연장 지불의사 금액	116
[그림 4-36] 선호하는 개방시간 연장 구간	117
[그림 4-37] 개방시간 연장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18
[그림 4-38] 개방시간 연장 시 이용 의향	120
[그림 4-39] 개방시간 연장 비이용 이유	121
[그림 4-40] 문화기반시설 이용가능시간_평일	123
[그림 4-41] 문화기반시설 이용가능시간_토요일	123
[그림 4-42] 문화기반시설 이용 가능 시간 일요일	124
[그림 4-43] 현재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적절성	128
[그림 4-44]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우선순위	129
[그림 4-45] 문화기반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130
[그림 4-46] 무휴관 정책의 지속 필요 이유	131
[그림 4-47] 무휴관 정책 불필요 이유	132
[그림 4-48] 일과 후 여가활동 참여와 참여 의향 비교	133
[그림 4-49] 여가활동 참여와 의향여부에 따른 여가활동 집단 구분	134
[그림 4-50]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자 집단의 비율	137
[그림 5-1] 근로단축 후 여가시간 체감	169
[그림 5-2] 근로단축 후 문화여가 관심도	169
[그림 5-3]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문화시설로 향하는 택시 호출 변화	169
[그림 5-4] 전국 228개 시군구(上) 및 3,463개 읍면동(下)별 지방소멸위험현황	171
[그림 6-1] 개방시간 조정 기본방향	189
[그림 6-2] 획일적 휴관	193

Contents

[그림 6-3] 교차 휴관	193
[그림 6-4] 현행 개방시간 연장	194
[그림 6-5] 대안적 개방시간 연장	194
[그림 6-6] 강서 도서관 방문자 데이터 예시	207

정책연구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방안 연구

제1장

서론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수요환경

1) 시간 접근성과 배제구조

문화기반시설의 접근 기회의 평등은 문화서비스 전달과 사회적 포용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어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의 중심은 문화기반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중심으로 주로 지리적, 공간적,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였고, 이용자는 일정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화, 계층화되어 구분되어왔다. 최근 이용자 중심의 논의가 확산하고, 이용자 개인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이용자의 가용한 시간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용자의 가용시간을 늘려주는 문제,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서비스 공급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시간접근성과 관련하여 문화향유와 관련된 조사에 의하면 문화향수에 있어 평일 개방시간을 중심으로 향유 편중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1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행사의 관람자의 48.8%는 주말 낮 시간에 24.3%는 주말 저녁 시간에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중 낮 시간의 경우 여성의 관람 비율이 높았고, 주말 저녁시간대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관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70대 주중 낮 시간대에 관람하는 비율이, 20대는 주중 저녁 시간대에 관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문화예술행사 참여에서도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문화예술행사 참여는 공공서비스에 더욱 밀접한 항목이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문화예술행사 참여자의 37.4%는 주말 낮 시간에 32.1%가 주중 낮 시간, 16.2%가 주중 저녁 시간대, 14.2%가 주말 저녁 시간대에 참여하고 있었다. 주중 낮 시간의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비는 문화예술관람 이용자 구성비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주중 낮 시간에 여성이 41.9%의 참여로 남성 20.5%에 두 배가량 참여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주말 참여가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간명한 해석은 문화예술 공급시간과 직장인의 근로시간이 동일하여 해당시간에 직장인이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서비스의 특성인 공평한 접근 측면에서 보면, 이는 기회의 지속적 불균형을 의미하므로 공급시간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존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퇴근 후에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최소한의 저녁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어, 시간적 접근성의 약자인 노동자의 여건이 다소 개선된 만큼 공급측면에서보다 적극적인 접근 기회를 보장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수요 시간의 변화와 문화시간

최근 거시정책 환경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는 문화서비스 수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기존의 수요가능시간은 야근 등으로 인해 공급가능시간과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었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공급가능시간과 수요가능시간의 간격이 다소 좁혀진 상황으로 정책적 노력으로 공급과 수요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다.

'16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로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과 비교하면 연간 347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OECD, 2016). 이에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포함하여 과로사회 종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근로시간을 1주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시간 중 여가시간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야근 등으로 누리지 못하던 저녁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줄어든 근로시간(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나, 몇몇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늘어난 여가시간이 문화생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원에서 ‘1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여가시간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50.1%였고, 문화여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보인 사람은 40.9%로 나타났다. 실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에서도 같은 맥락의 현상이 목격되었다.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이후 한 달 간(‘18.7~8) 택시 목적지가 전년 동기(‘17.7~8)에 비해 영화관 118%, 박물관 101%, 미술관 234%, 전시관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수요시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세밀한 영역에서 준비 부족은 시민들의 늘어난 여가시간이 문화·체육·관광 등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여가로 이어지게 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나. 공급 환경

역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는 가용한 수요시간 뿐 아니라 공급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화향유, 여가활성화 측면만 강조하고, 공급환경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으면 문화서비스 공급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훼손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인력과 인력의 서비스시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급주체도 노동시간 상한제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이므로 현장의 공급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증가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시간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에서도 수요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기반시설(도서관을 중심으로)의 공급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의 형태로 국립시설은 직접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등은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야간개장(~22시)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체부 소속 국립문화시설 야간 개장 인력 및 운영비 지원, 주 7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다만, 현재 수요측면에서의 기회의 평등,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있는 시점, 문화기반시설이 다양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 등을 파악하여 보다 국민 친화적으로 문화서비스 공급을 재검토할 시점이기도 하다.

다. 수요와 공급의 최적화

최근 들어, 서비스 전달의 개방시간(공급시간)이 수요자의 접근성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장훈(2018)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서비스 이용의 불만족 요인으로 운영과 이용의 시간불일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시설(장소) 기반 접근성을 넘어 개인 기반 접근성으로 개념이 확대하면서 개인이 문화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측면도 같이 고려되기도 한다. 개인 기반 접근성에서는 개방시간 자체도 접근성의 개념에 포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에서 보면 문화의 수요시간과 문화의 공급시간의 일치여부는 공공서비스로서 문화서비스 정책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수요에 근간이 되는 물리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에서 물리적 접근성을 제외한 영역은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영역이었으나, 사회가 개인

화 되고, 다원화됨에 따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공급의 효율성(자원의 배치), 공급인력 관리 대한 문제 등 공급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수요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서비스의 공급시간과 문화서비스 수요자들의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화서비스 공급과 수요 시간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방식을 극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서비스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회를 갖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대상 및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중 개방시간 연장사업을 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내용적 범위

1) 시간접근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시간접근성에 대한 논의 및 환경적 요구 등을 검토하였다.

2) 문화기반시설 공급시간 분석

우선 현재 대상 문화기반시설의 공급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간 시행된 개방시간 연장사업을 하는 대상 시설의 성과와 한계를 같이 검토하였다.

3) 문화기반시설 수요 분석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잠재적 이용자들의 수요 가능시간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그간 문화기반시설 이용에서 배제되어왔던 직장인들의 문화기반시설 이용욕구, 수요가능 시간,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분석

이 이루어졌다.

4) 문화기반시설 공급-수요 미스매칭 분석

문화기반시설 공급과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시설 특성별(서비스 특성별) 문화기반시설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을 분석하여 맞춤형 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5) 문화기반시설 개방 조정 관련 정책 여건 분석

수요확대를 전제로 문화기반 시설의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관련 규정, 자원, 인력배치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6)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방안 제안

문화기반시설의 접근성의 문제, 공급가능시간과 수요 가능시간 분석을 통해 현재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모델을 지역, 서비스 특성별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및 관련자료 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접근성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현황자료를 토대로 현재 개방시간 연장사업의 지역별, 시설별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기반시설 수요 확대 가능성(수요예측), 수요 가능시간,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예상 설문 대상은 행자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현황을 활용하여 1,300명을 전국 조사로 실시하였다. 설문 구성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반시설 이용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현재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이 적절한지, 연장한다면 언제까지 연장하면 좋을지, 어떤 콘텐츠가 배치되면 좋을지, 조정된 운영시간에 운영의 주체가 누가되었으면 좋겠는지, 운영의 비용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 자문회의

개방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현장의 현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 고려사항 등을 현장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설문조사 문항의 적절성, 설문결과와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이 진행되었다.

라. FGI(심층인터뷰)

이미 개방시간 연장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개방시간 연장사업 이용자들의 이슈, 공급주체로서의 애로사항, 정책적 건의사항 등을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진단하였다.

마. 사례조사

국내외 문화기반시설을 포함,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개방시간, 서비스 시간 조정 및 확대와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여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제2장

문화기반시설의 개념과 현황

제1절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관련 논의

1. 접근성 일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문화시설 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측면은 접근성 향상 측면이다. 접근성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접근성은 지리적 접근성 동일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의미의 접근성은 가용성, 지리적 접근성, 비용적 접근성, 편의 접근성, 서비스 수용성 등을 의미한다.

〈표 2-1〉 접근성의 개념

차원	내용
가용성 (availability)	- 원하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가? - 가용한 시간이 이용할 수 있는가?
지리적 접근성 (accessibility)	- 문화서비스 서비스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은 어떠한가? - 이동 수단은 무엇인가? - 소요 시간과 비용은 어떠한가?
비용 접근성 (affordability)	- 문화서비스가 지불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되고 있는가?
편의 접근성 (accommodation)	- 문화서비스 공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가? - 문화서비스 공간이 이용자 중심적인가? - 문화서비스 공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서비스 수용성 (acceptability)	- 문화서비스를 문화,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가? - 수요자의 요구가 잘 반영되고 있는가?

자료: Penchansky & Thomas(1981) 내용을 재구성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관련된 개방시간은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보면 지리적 접근성 측면과 맞닿아 있는데, 기존의 지리적 접근성 영역이 이동과 관련된 시간 만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접근성의 개념은 더욱 구체화 된다. 접근성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을 측정할 때는 목적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동수단, 수요자 속성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목적지 기준으로 시설이 있는 지역의 안전, 시설이용의 편의, 시설의 심미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이동수단은 도보와 대중교통, 자가용이 많이 사용되고, 수요자 기준으로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사항들(인구통계학적 변수 포함)이 사용된다.

〈표 2-2〉 이상적인 접근성 측정 예시

구분	목적지 기준	이동수단	수요자 기준
안전	지역범죄율	도보 이륜차 대중교통 자가용	자가용 유무
	가로등		인종
편의	무장애 접근		가구 수입
	서비스다양성		성별
	개방시간		시간 가용성
	시설 규모		근로 지위
	주차시설(비용)		어린이
심미	시설 분위기		나이
	소비자 인식		장애
	실내 디자인		개인 선호
	서비스 품질		개인 욕구
	—		평균 소득
	—		가구 규모

자료: Bhat et al(2000)의 내용을 재구성

2. 지리적 접근성

1) 장소 중심의 접근성(location based accessibility)

그간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접근성 논의는 시설을 중심(장소 접근성)으로 시설의 지리적 분포, 지리적 가용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시설 수의 지역불균형, 지역격차를 줄이는 것이었다. 공간적 제약이 접근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공간적 제약을 걷어내고 문화시설이 생활권에 밀착하여 공급하면 접근 기회의 측면에서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면 수요는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장소 접근성의 주요 쟁점 사항은 특정장소(예를 들면, 거주지)가 다른 장소(예를 들면, 도서관)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은 한 사람에게서 시설까지의 거리를 최소화는 방식으로 시설을 분포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장소 접근성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정태적으로 보고, 개인의 거주지 위치와 주변의 시설 분포만으로 접근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Neutens et al., 2012a).

2) 장소 접근성의 한계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의 접근성 개념은 최근 도시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부적합함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최근 도시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 동일한 공간 안에서의 개인 행동의 차이가 발생하고, 개인의 행동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개인의 접근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 접근성은 개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의 도서관 방문율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장소접근성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Kwan, 1998; Kwan & Weber, 2003; Ren

et al., 2014).

결과적으로 장소 접근성은 개인의 취향, 개인의 가용한 시간의 양, 가용한 일정 등 개인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시설 공급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시간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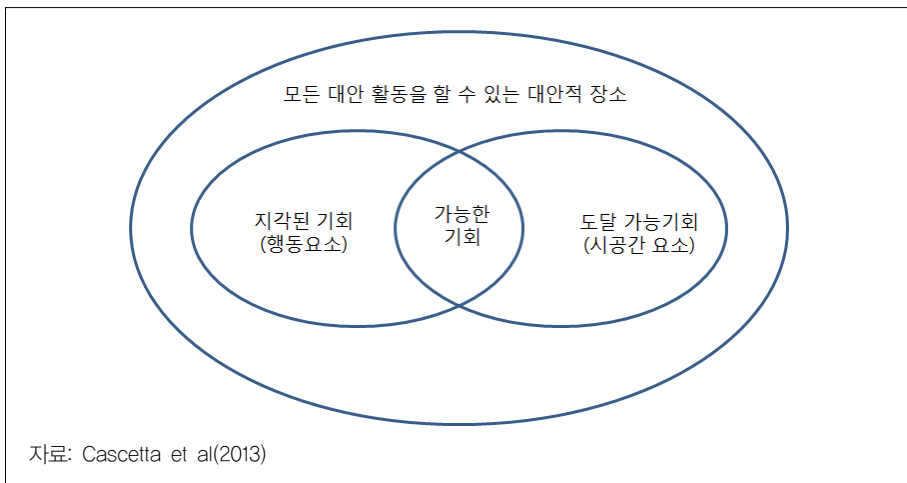
1) 사람중심의 접근성(person based accessibility)

최근 다른 개인이 처한 조건(취향, 일정)이 접근성에 큰 영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중심의 시간접근성이 개념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Kwan & Weber, 2003; Weber & Kwan, 2002) 과거에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등의 한계로 인해 봉인되었던 개념이 기술의 발전, 측정법의 발전으로 인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 중심의 접근성 개념은 개인의 지리적, 공간적 제약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제약 요소를 고려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행위에 제약을 가장 많이 가하는 시간제약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간의 제약 여부에 따라 개인이 하는 활동은 고정 활동과 유연 활동으로 구분된다. 고정 활동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해야 하는 활동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활동을 의미하고, 유연 활동은 고정 활동들 사이에서 보다 유연하게 일정, 지속시간, 장소 등을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보통 노동(직장) 등과 같은 의무 활동은 고정 활동으로 개인에게 시간적 제약을 주며, 여가활동은 유연 활동에 속한다. 결국 개인의 근본적으로 공간적 제약과 더불어 시간적 제약의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결정하게 되므로 이때 지리적 근접성뿐 아니라 개인이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 시간과 시설의 개방시간 일치여부도 접근성에 중요한 축이 된다.

시간을 중심으로 한 사람 접근성은 개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시설까지 갈 시간이 허용되는가?, 가용한 시간에 시설이 개방되어 있는가를 접근성의 중요한 질문으로 삼는다. 시공간적 이용 가능성뿐 아니라, 각 개인의 하루 일과, 의무적 활동(일, 가사, 육아 등)의 제약들도 복잡하게

관여하여 접근성을 결정한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경로로 인해 시설의 중요성이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시간 접근성은 개인을 보다 동태적으로 이해하고 복합적인 사람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2) 기회기반 접근성



[그림 2-1] 기회기반 접근성 개념의 구성도

최근 공간접근성과 시간접근성을 통합하여 시공간 접근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Cascetta et al., 2013). 특히,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는 기회의 형평성과 같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잠재적으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지각된 기회, 재미있는 모든 대안 활동), 개인이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도달 가능한 기회,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회(지각된 기회와 도달 가능한 기회의 교집합) 등에서 형평성 여부가 중요해진다. 형평적 기회 기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은 모든 개인의 접근기회를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3) 포용적 접근성

궁극적으로 사람중심의 접근성 개념은 사회구성원 중 문화시설 접근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문화시설의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접근성 문제에 있어 빈번히 제기되는 이슈가 공공서비스에서 배제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 및 개인은 누구인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이다. 최근 들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해결해야 하는 지역분권의 기조 속에서 열악한 재정구조인 지역은 접근성 문제가 악화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사람중심의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은 지역의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서비스의 정책목표가 모든 국민의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지향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할 기회, 나아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접근성 확보의 문제는 해당 문화서비스의 효과성 즉, 적절한 것을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결정짓는다. 또한 접근성의 확보와 결핍은 문화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도 직접 연결된다.

4) 관련 선행 연구

① 문화 분야

국내 기준으로 시간접근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확인한 기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일부 정책제언 정도로 다루어진 연구 외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의 경우 정형태 외(2009)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연구가 직접적으로 개방시간을 다룬 몇 안 되는 연구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는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와 실제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시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개관시간 운영과정에 내재하는 인력 및 시설운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개관시간 운영모델은 자료열람실과 일반열람실

의 운영시간을 분리하여, 비교적 운영부담이 적은 일반열람실의 개관시간을 현재주순으로 유지하면서, 자료 열람실의 개관시간을 지역사정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인력의 규모에 따라 소·중·대규모 공공 도서관별로 설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관시간 연장 모델은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변형근무형과 주중연장형, 주말집중형이었고, 중규모 공공도서관은 격일연장형과 평일연장형, 대규모 공공도서관은 상시 연장형으로 제안하였다.

박물관·미술관과 관련된 연구는 직접적으로 개방시간을 다루기보다는 서비스의 강화와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개방시간 연장이 일부 제시된 연구가 있었다(박신의, 2004). 해당 연구는 문화기반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를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떻게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고용창출이 가능한지 조사 및 연구하였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개방시간을 늘려 새로운 관객을 유인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원화된 단순 개방시간 연장이 아닌 주변의 수요여건과 프로그램 개발 병행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간접접적 맥락에서 장훈(2018)은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개방시간과 이용 가능시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장훈(2018)의 연구는 문화체육관광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과 일부 유관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경험은 공급과 수요의 일치가 접근성의 핵심 사안이라고 보고, 일치되어야 영역을 지리, 시간, 취향, 비용을 제안하였다. 그중에 시간 측면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계층인 여성과 노인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직장인을 포함한 조사대상자 전체에서 운영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 타 분야

문화시설에 비해 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시간과 관련된 연구 진행되

어 왔다. 보육과 육아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해당 정책 수요자가 근로로 인한 시간 미스매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윤경 외(2015)의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방안 연구에서는 해당 기관의 이용 시각이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대상기관의 범위 설정과 대상 기관의 근로여건의 악화 가능성 및 인건비, 서비스의 품질 유지, 수요에 따라 적절한 비율 유지, 참여유도와 관련된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개방시간이 연장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신나리, 안재진, 2012). 해당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맞벌이 가정의 엄마의 근로시간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시간접근성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접근성에서의 제약은 지리적/공간적 제약뿐 아니라 개인의 의무적 활동 시간에 따른 시간적 제약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김현미, 2008).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이 시간제 형태의 근로형태가 많아 시간 재량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자녀 유무는 여성에게는 또 다른 시간 제약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타 분야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문화시설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정책 수요자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시설 연구보다는 한 걸음을 수요자에게 다가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시설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긴급성, 필수성에서 보육과 육아와 관련된 시설이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들은 수요자의 요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양상을 살피고 문화시설과 관련된 연구의 지향점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제2절

문화기반시설의 개념

수요자 입장에서 문화시설 개방시간 검토를 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대상 시설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개념,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문화기반시설의 개념

가. 사전적 개념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정책영역에 있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개념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의 기능이나 문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그러한 시설로 이루어진 영역을 의미하며,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등을 의미한다’(다음 국어사전).

사전적 의미에서 문화기반시설은 두 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가 협의의 문예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적인 문화기반 시설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이라는 점이다. 사전적 정의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반시설의 의미에서 일부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굉장히 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상식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

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전문가들만 알고 국민의 대다수가 모르는 문화기반시설을 범위의 광범위성, 비 일상성 등의 이유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함이었다.

나. 정책적 범위

1) 법률적 범위

사전적 의미, 일반적 의미보다 정책적 의미의 문화기반시설은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화기반시설의 문화개념이 장르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르에 기반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2항에서는 문화시설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표 2-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의 문화시설 분류

대분류	중분류
공연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시설	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공원시설과 전시시설, 도서관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대분류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자료: 법제처(www.moleg.go.kr)

2) 정책적 범위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장정책의 기초가 되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을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

관, 문예회관(중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수요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공적영역의 문화시설을 문화부 소관법률에 따른 문화기반시설과 문화부 소관 외에도 타부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어진 시설로 문화예술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도 포함하고 있으며 타부처 시설로는 주민자치 센터, 시군구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문화예술 활동이 공급되고 소비되는 주요 공간으로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민간공연장, 영화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2-4〉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구분한 문화시설

구분	유형	설명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두고 볼 수 있도록 한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고고학자료, 미술품, 인문/자연/과학 등에 관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 보존, 진열하여 일반에 전시하는 시설
	문예회관	예술 작품의 전시/공연을 목적으로 지은 시설
	문화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향토문화 또는 특정 국가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시설
	문화의 집	지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체험의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
공공문화시설 (문화기반 시설 외)	주민자치센터	지역 주민을 위해 동읍면 단위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로 행정업무, 문화, 복지, 편익 시설을 제공
	시군구민 회관	지방 자치단체에서 회의, 공연, 집회의 목적으로 지은 시설
	복지회관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설치된 시설
	청소년회관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설
사설시설	사회문화교실	대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 등을 개설하는 시설
	사설문화센터	개인 또는 기업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 등을 개설한 시설
	민간공연장	민간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공연을 목적으로 지은시설
	영화관	민간에서 영화를 상영할 목적으로 지은 시설

최근 들어 문화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면서 복합문화공간, 기존 공간의 문화 공간화,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생활 SOC의 개념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범위

가. 개방시간 연장 시설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하에 관리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문화시설, 이미 사회적 필요로 인해 개방시간 연장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문화의 개념이 광범위한 만큼 문화기반시설의 범위를 정의하기 힘들기도 하고, 기존 모든 문화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획득에도 한계가 존재하므로 문화기반시설 중 대표성이 있고, 직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수용되는 문화기반시설, 이미 정책적 의사결정으로 개방시간 연장 사업이 진행 중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도서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은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국민의 생활시간 변화에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방시간확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도서관은 2004년 국정과제 회의시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를 시작하여 2006년 16개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19년 현재 510개의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설도서관을 제외하고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도 2004년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 활용 측면에서 검토하다가 국립시설만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을 시작으로 2007년부

터 야간개장을 실시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문화시설 야간개장 운영 대상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국립민속박물관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현장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공공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개방 시간 관련 자료도 수집 분석하였다.

〈표 2-5〉 본 연구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범위

문화서비스 콘텐츠	문화서비스 공급주체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문화서비스대상
		시설	인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공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사자	일반, 취약
		아웃리치 (outreach)	종사자	일반, 취약
	민간	민간문화시설	종사자	일반, 취약

자료: 장훈(2018).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연구

제3절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특성

1. 문화기반시설 일반현황

가. 공공 도서관

1) 공공도서관 현황

전국의 공공 도서관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042개관으로 문화기반시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6〉 설립주체별 공공도서관 수

(단위: 관,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간 증감률
전체	865	930	978	1,010	1,042	4.8
지자체	614	679	725	758	791	6.5
직영	456	505	539	567	586	6.5
위탁	158	174	186	191	205	6.7
교육청	232	232.0	232	231	231	-0.1
사립	19	19	21	21	20	1.3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설립주체별로는 '17년 현재 시·도 소관(사립 포함)이 811개관(77.8%), 시·도 교육청 소관이 231개(22.2%)이며 소관부처에 따라 정책과 도서관 운영, 재산권이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교육청

위탁, 문화재단 및 제 3섹터 위탁,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으로 운영 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지역별 공공도서관 현황

〈표 2-7〉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

(단위: 개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123	132	146	147	160
부산	31	32	36	40	40
대구	28	30	33	35	36
인천	39	42	46	47	48
광주	17	20	21	22	23
대전	23	23	24	24	24
울산	13	17	17	17	18
세종	1	3	4	5	5
경기	194	217	228	244	250
강원	47	50	53	54	56
충북	38	41	42	44	45
충남	55	57	58	59	59
전북	53	55	56	58	58
전남	60	63	64	64	67
경북	63	64	64	64	65
경남	59	63	65	65	67
제주	21	21	21	21	21
전국	865	930	978	1,010	1,042

출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지역별로는 ‘17년 현재 경기도가 250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5개로 가장 작은 수의 도서관이 분포하고 있다. 다만, 1관당 인구수¹⁾는 강원이 작으며,

1) 1관당 인구수는 지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도서관의 잠재적 수요자

부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7).

나. 박물관

'18년 현재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은 총 398개관으로 지난 5년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8〉 국공립 박물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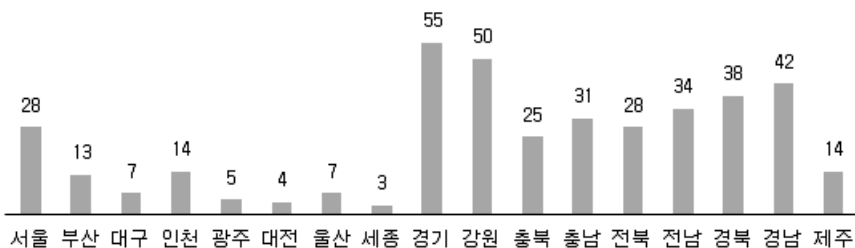
(단위: 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립	33	39	40	47	49
공립	328	332	339	341	349
계	361	371	379	388	398

출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3개로 가장 적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관)



[그림 2-2] 지역별 국공립 박물관 현황

다. 미술관

'18년 현재 국공립 미술관 수는 통계상으로 총 68개관이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으로 나누면 70개관으로 지난 5년간 증가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국공립 미술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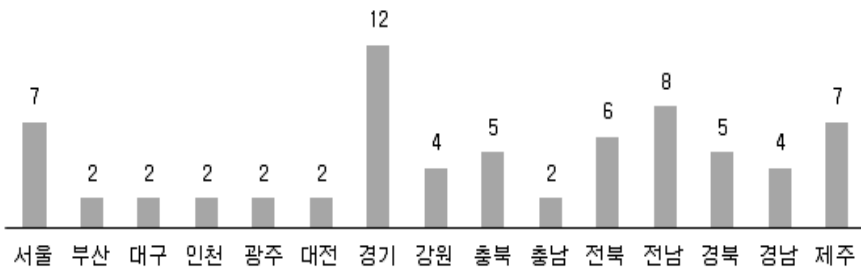
(단위: 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립	1	1	1	1	1(3)
공립	39	50	54	56	67
계	40	51	55	57	68(70)

출처: 문화기반시설 총람

국립현대미술관을 3개로 분리하여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의 국공립 미술관 수가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남이 각 2개로 적게 분포하고 있다.

(단위: 관)



[그림 2-3] 지역별 국공립 미술관 현황

2. 문화기반시설별 서비스 특성

가. 공통특성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보편 서비스라는 점이다. 개방형 보편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유사한 민간 서비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유사 민간 서비스와 다소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 중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기대 수준이 높아진 데다 다원화된 현실 수요를 따라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대상을 특정하면, 대부분 대상이 경제적 소외계층과 맞닿아 있어 복지 영역과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예산 당국에서도 소외계층은 문화의 영역보다는 복지의 영역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구체화하면 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적당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적당히 문화적 취향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러한 추론에 기반하면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개방형 보편 서비스라는 특징이 사라지고, 특정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개방형 보편 서비스 모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문화서비스의 미래가 더욱 낙관하지 않다. 비슷한 민간 서비스를 받아본 이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져 있고, 공급자 중심, 중앙 정부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는 다원화되는 현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간의 차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자마다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상이하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포괄적인 맥락에서는 동일한 서비스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밀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1) 서비스 내용

일차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설립 목적과 정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서관은 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중심이 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물질 문화 전시가 서비스의 중심이 된다.

〈표 2-10〉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의 설립 목적 및 정의

	설립 목적 및 정의	근거법
도서관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도서관법
박물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익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술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익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	

2) 서비스 업무 초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회 공동의 목표(국민 복지 증대 와 국가 경쟁력 향상 등)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서비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비스 콘텐츠의 보편성, 시설의 설립 목적, 서비스 이용자의 포괄성, 서비스 비용부담 등 소비과정에서 비배제성(non exclusion) 측면에서 도서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비해 공공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보편적 특성으로 업무의 초점이 도서관은 시민, 박물관과 미술관은 자료에 맞춰져 있고, 도서관은 시민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른 공공 문화시설에 많고, 이는 국민 향유의 일상성과 도서관의 생활권 확충과 직결된다.

3) 향유의 일상성

공공성과 보편성적 특징으로 인해 도서관 공급은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의 서비스는 일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 콘텐츠는 일상적 소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간헐적 소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4) 서비스 인력의 역할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인력의 역할도 도서관은 박물관 미술관과는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거의 필수적으로 개입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서비스 상품과의 밀접성은 도서관에 비해 박물관, 미술관이 일반적으로 높다.

〈표 2-1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서비스의 차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서비스 내용	도서자료	박물관자료	미술자료
서비스 업무	시민 밀착 업무	자료 밀착 업무	자료 밀착 업무
서비스 가치	개인 실현 문화국가 실현	문화국가 실현 개인 실현	문화국가 실현 개인 실현
서비스 향유	일상적 향유	간헐적 향유	간헐적 향유

제3장

문화기반시설 공급시간 분석

제1절

공급시간 분석 개요

1. 분석의 목적

개방시간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의 개방시간 현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공급시간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수요의 시간과의 비교자료, 조정이 필요한 지점을 찾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2. 분석의 대상 및 자료

분석 대상은 주요 문화기반시설 중 공공 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의 개방시간 관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3-1〉 공급시간 분석 대상 및 자료

	표본	유효 표본	분석자료
도서관	1,042개	1,027개 (98.6%)	- 2018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 문체부 내부 정책현황자료 - 각 도서관 누리집
박물관	398개	389개 (97.7%)	- 2017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운영 현황 및 실태 조사 원자료 - 2018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미술관	68개	59개 (86.7%)	- 문체부 내부 정책현황자료

각 대상별로 대상 표본은 국공립 도서관(1,042개), 국공립 박물관(398개), 국공립 미술관(68개)이었으며, 이중 본 연구 주요 분석 변수가 원자료에 있는 유효 표본은 각각 1,027개, 389개, 59개이었다.

3. 주요 분석 항목

1) 분석 항목

기본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관련 원자료에서 개방시간 현황과 관련된 부분과 문체부 내부 자료를 통해 개방시간 조정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자료가 불분명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42개의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 3-2〉 공급시간 주요 분석 항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분석
개방시간 현황	- 개관일수 - 주당 개관시간 - 시간대별 개방 현황	시설별, 지역별 특성 분석
개방시간 조정 정책 현황	- 개방시간 연장 지원 현황 - 개방시간 연장 이용자 현황	정책별 특성 분석

2) 도시 규모 기준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표 3-3〉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구분

구분	기준	인구수
대도시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됨	21,708,217명
중소도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 관할 하의 동지역	34,700,843명
읍면지역	시·군의 하부행정 구역, 군 관할 하에 읍면 구역	4,396,752명

제2절

도서관 공급시간 분석

1. 도서관 운영시간 현황

가. 도서관 개방시간 총량 현황

1)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총량

공공도서관의 연평균 개관일수는 299일이며, 주 평균 개관시간은 69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3-4〉 2017년 공공도서관 가동현황

도서관수	연간 도서관 평균 개관일수 (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 (시간)
1,042	299	68,37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누리집(www.libsta.go.kr) 참조

〈표 3-5〉 2017년 공립 작은 도서관 연도별 평균 운영시간

도서관수	연간 도서관 평균 개관일수 (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 (시간)
1,047	280,8	35,7

자료 : 2017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재구성

본 연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참고로 작은 도서관의 가동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작은 도서관의 연평균 개관일수는 280.8일이며, 주당 평균 개관시간은 35.7시간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 연평균 개관일수가 280.8일로 공립

과 같았으나, 주단 평균 개관시간은 32.7시간으로 공립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 지역별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총량

중소도시의 개방시간 총량이 주 70시간 이상으로 가장 길었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67시간 수준이었다. 그리고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제주의 주당 평균 개방시간이 70시간 이상, 광주는 59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3-6〉 지역별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총량

(단위: 일, 시간)

구분		표본수	연관 개관일수	주당 평균 개방시간
전체		1,042	229.10	68.37
지역	서울	160	290.36	68.54
	부산	40	310.40	71.34
	대구	36	302.97	61.48
	인천	48	289.29	67.15
	광주	23	306.57	59.25
	대전	24	286.25	67.00
	울산	18	287.78	60.23
	세종	5	295.60	71.12
	경기	250	308.18	74.16
	강원	56	281.02	67.12
	충북	45	300.38	68.49
	충남	59	299.31	72.18
	전북	58	301.64	61.08
	전남	67	302.97	68.38
	경북	65	299.62	62.40
	경남	67	302.12	62.58
	제주	21	283.00	76.54
도시규모	대도시	375	293.84	67.40
	중소도시	399	302.99	70.34
	읍/면지역	268	300.65	67.02

나.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 현황

1)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 현황

시간대별 개방 현황은 심야(24시~6시)를 제외하고 한 시간 단위로 최소시간 간격(minimum time interval)을 설정한 후 개방 비율을 분석하였다.

① 자료실

〈표 3-7〉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현황(자료실)

(단위: 개소, %)

구분	평일		주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027	100.0	1,014	100.0
6시~7시	9	0.9	9	0.9
7시~8시	23	2.2	21	2.1
8시~9시	985	95.9	953	94.0
9시~10시	1,025	99.8	1,013	99.9
10시~11시	1,026	99.9	1,014	100.0
11시~12시	1,026	99.9	1,014	100.0
12시~13시	1,026	99.9	1,014	100.0
13시~14시	1,026	99.9	1,014	100.0
14시~15시	1,026	99.9	1,014	100.0
15시~16시	1,027	100.0	1,012	99.8
16시~17시	1,027	100.0	1,012	99.8
17시~18시	1,027	100.0	859	84.7
18시~19시	681	66.3	155	15.3
19시~20시	594	57.8	133	13.1
20시~21시	523	50.9	117	11.5
21시~22시	495	48.2	98	9.7
22시~23시	12	1.2	6	0.6
23시~24시	0	0.0	0	0.0

자료실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평일기준 8~18시에 개방하고 있었으며, 18시 이후에도 개방하는 22시까지 개방하는 도서관도 48.2%이었다. 주말기준에는 8시~17시까지 개방하는 곳이 많았으며, 18시 이후에 개방하는 도서관이 10% 내외였다.

② 열람실

〈표 3-8〉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현황(열람실)

(단위: %)

구분	평일		주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746	100.0	742	100.0
6시~7시	306	41.0	305	41.1
7시~8시	542	72.7	542	73.0
8시~9시	742	99.5	739	99.6
9시~10시	746	100.0	742	100.0
10시~11시	746	100.0	742	100.0
11시~12시	746	100.0	742	100.0
12시~13시	746	100.0	742	100.0
13시~14시	746	100.0	742	100.0
14시~15시	746	100.0	742	100.0
15시~16시	746	100.0	742	100.0
16시~17시	746	100.0	742	100.0
17시~18시	746	100.0	728	98.1
18시~19시	723	96.9	679	91.5
19시~20시	719	96.4	677	91.2
20시~21시	715	95.8	663	89.4
21시~22시	677	90.8	632	85.2
22시~23시	287	38.5	242	32.6
23시~24시	79	10.6	76	10.2

열람실의 경우, 열람실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도서관, 열람실이 없는 경우(어린이 도서관은 보통 없는 것으로 파악됨)를 제외하면 평일 기준 전체 도서관이 18시까지의 개방하고 있었고, 24시까지 개방하는 도서관이 10.6%로 나타났다. 주말에도 거의 모든 도서관이 18시까지 개방하고 있었고, 22시 이후에 개방하고 있는 곳도 32.6%가 있었다.

2)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 현황

① 자료실

〈표 3-9〉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 현황(자료실_평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6시~7시	0.9	0.0	1.5	1.1
7시~8시	2.2	1.4	3.0	2.3
8시~9시	95.9	95.7	95.0	97.7
9시~10시	99.8	99.5	100.0	100.0
10시~11시	99.9	99.7	100.0	100.0
11시~12시	99.9	99.7	100.0	100.0
12시~13시	99.9	99.7	100.0	100.0
13시~14시	99.9	99.7	100.0	100.0
14시~15시	99.9	99.7	100.0	100.0
15시~16시	100.0	100.0	100.0	100.0
16시~17시	100.0	100.0	100.0	100.0
17시~18시	100.0	100.0	100.0	100.0
18시~19시	66.3	72.8	64.0	60.7
19시~20시	57.8	64.9	55.9	50.8
20시~21시	50.9	54.9	49.9	46.9
21시~22시	48.2	50.8	47.9	45.0
22시~23시	1.2	0.3	1.3	2.3
23시~24시	0.0	0.0	0.0	0.0

도시규모별로 자료실의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평일기준으로 도시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도서관은 8시~18시에 개방하고 있었다. 다만 18시 이후에 개방하는 대도시가 가장 길었고, 읍면지역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현황(자료실_주말)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6시~7시	0.9	0.0	1.5	1.2
7시~8시	2.1	1.4	2.8	1.9
8시~9시	94.0	93.4	92.6	96.9
9시~10시	99.9	99.7	100.0	100.0
10시~11시	100.0	100.0	100.0	100.0
11시~12시	100.0	100.0	100.0	100.0
12시~13시	100.0	100.0	100.0	100.0
13시~14시	100.0	100.0	100.0	100.0
14시~15시	100.0	100.0	100.0	100.0
15시~16시	99.8	100.0	99.7	99.6
16시~17시	99.8	84.9	87.5	80.2
17시~18시	84.7	85.5	81.1	89.1
18시~19시	15.3	12.6	16.3	8.9
19시~20시	13.1	12.6	16.3	8.9
20시~21시	11.5	10.1	15.1	8.2
21시~22시	9.7	9.0	12.2	6.6
22시~23시	0.6	0.5	0.8	0.4
23시~24시	0.0	0.0	0.0	0.0

자료실 주말을 기준으로는 대도시, 오후 시간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18시 이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개방 비율이 비슷하고,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② 열람실

평일 기준 일반적으로 학습 공간으로 쓰이는 열람실의 경우 오전 6시부터 개방하는 도서관 비율도 30% 내외였다. 해당 시간에 개관하는 도서관을 도시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도서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오전, 오후, 야간 시간대에 개방하는 도서관의 비율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 현황(열람실_평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6시~7시	41,0	69,0	46,4	7,9
7시~8시	72,7	81,7	81,9	52,0
8시~9시	99,5	98,6	100,0	99,6
9시~10시	100,0	100,0	100,0	100,0
10시~11시	100,0	100,0	100,0	100,0
11시~12시	100,0	100,0	100,0	100,0
12시~13시	100,0	100,0	100,0	100,0
13시~14시	100,0	100,0	100,0	100,0
14시~15시	100,0	100,0	100,0	100,0
15시~16시	100,0	100,0	100,0	100,0
16시~17시	100,0	100,0	100,0	100,0
17시~18시	100,0	100,0	100,0	100,0
18시~19시	96,9	94,8	98,0	97,4
19시~20시	96,4	93,9	97,7	96,9
20시~21시	95,8	92,5	97,4	96,9
21시~22시	90,8	90,6	94,1	86,5
22시~23시	38,5	30,5	56,9	21,4
23시~24시	10,6	5,2	15,5	9,2

주말 기준으로 열람실의 개방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도서관 개방현황(열람실_주말)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6시~7시	41.1	68.5	46.5	8.0
7시~8시	73.0	81.7	82.2	52.7
8시~9시	99.6	98.6	100.0	100.0
9시~10시	100.0	100.0	100.0	100.0
10시~11시	100.0	100.0	100.0	100.0
11시~12시	100.0	100.0	100.0	100.0
12시~13시	100.0	100.0	100.0	100.0
13시~14시	100.0	100.0	100.0	100.0
14시~15시	100.0	100.0	100.0	100.0
15시~16시	100.0	100.0	100.0	100.0
16시~17시	100.0	100.0	100.0	100.0
17시~18시	98.1	94.8	99.3	99.6
18시~19시	91.5	89.7	93.4	90.7
19시~20시	91.2	89.7	93.4	89.8
20시~21시	89.4	97.3	91.7	88.1
21시~22시	85.2	85.4	88.4	80.5
22시~23시	32.6	17.8	51.2	21.7
23시~24시	10.2	4.7	14.9	9.3

2.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정책 현황

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1) 도서관 야간개방 지원현황

도서관 야간개방사업은 정부의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2018년 현재 전국 510개의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행 대상 기관은 전국 공공도서관이며 재원은 지자체 보조 5:5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야간개방사업을 신청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야간개장(~22시)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3-1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현황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8
지원관수	80	253	300	364	427	512	510
지원인원	435	879	832	1,046	1,227	1,258	1,283
예산 (백만원)	5,675	6,795	6,441	9,050	10,549	12,343	12,578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2) 공공도서관 야간 개방 현황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지원사업과 자체적인 개방시간 연장으로 22시까지 자료실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493곳으로 전체 도서관의 48.2%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개방시간 연장 지원 기관 510개보다 적은 숫자였는데, 정보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야간개방을 22시까지 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14〉 공공도서관 야간 개방 현황

(단위: %)

구분	자료실(N=1027)		열람실(N=746)	
	평일	주말	평일	주말
18시~19시	66.3	15.3	96.9	91.5
19시~20시	57.8	13.1	96.4	91.2
20시~21시	50.9	11.5	95.8	89.4
21시~22시	48.2	9.7	90.8	85.2
22시~23시	1.2	0.6	38.5	32.6
23시~24시	0.0	0.0	10.6	10.2

3) 도서관 야간개방 이용자 현황

공공도서관 야간 이용자 수의 최근 6년 추이를 살펴보면,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8년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소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이용객 수는 증가 후 보합추세를 보인 반면,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은 '17년 이후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5〉 공공도서관 야간 이용자 현황

	야간 이용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29,276,662	32,119,516	33,093,224	36,442,752	36,374,532	33,786,440
지자체	21,406,956	23,032,057	24,024,944	27,234,586	27,882,430	27,711,281
교육청	7,869,706	9,087,459	9,068,280	9,208,166	8,492,102	6,075,159
도서관수	364	425	427	483	512	510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그리고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야간 이용자의 전체 이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야간 개방까지 하는 도서관을 대상(n=493)으로 연간 이용

자 대비 야간 이용자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야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비중은 전체 도서관 방문에 18.5%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본 분석에 사용된 야간 이용자 데이터가 자료실을 방문한 사람들인지 열람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자료실 야간 개방 정책의 성과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표 3-16〉 공공도서관 야간 이용 비율

	사례 수	전체 이용자	야간 이용자	야간 이용 비율
총계	493	182,520,179	33,786,440	18.5%
지자체	429	140,382,571	27,711,281	19.7%
교육청	64	42,137,608	6,075,159	14.4%

제3절

박물관·미술관 공급시간 분석

1. 박물관 운영시간 현황

가. 박물관 개방시간 총량 현황

1) 박물관 개방시간 총량

2017년 기준 국립 박물관의 연간 평균 개관일수는 317.2일로 주 6.1일을 개관하고,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50.39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립 박물관의 연간 평균 개관일수는 315.9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51.33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3-17〉 2017년 국공립 박물관 가동현황

구분	박물관수	연간 박물관 평균 개관일수 (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 (시간)
국립	47	317.3	50.39
공립	342	314.3	51.33

주: 총 393개관 중 정보가 없는 4개관을 제외한 389개관 대상

자료: 2017년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원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지역별 박물관 개방시간 총량

지역별 박물관 개방시간 총량을 살펴보면, 도시규모별로는 연간개관일수에서 중소도시가의 개관일 수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주 평균 개방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연간개관일수와 주 평균

개방시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간 개관일수가 가장 적은 곳은 대전과 세종이었고, 가장 긴 곳은 제주로 나타나는데 1년 기준 63일의 개관일수가 차이 나고 있었다. 일평균 개관시간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짧은 곳은 대전이었고, 가장 긴 곳은 대구로 나타났는데 주 평균 11시간 11분의 차이를 보였다.

〈표 3-18〉 지역별 국공립 박물관 개방시간 총량

(단위. 일, 시간)

구분		표본수	연간 개관일수	주 평균 개방시간
전체		389	314.66	51.26
설립유형	공립	342	314.29	51.33
	국립	47	317.34	50.39
지역	서울	28	315.07	51.11
	부산	9	303.78	49.49
	대구	7	308.71	54.54
	인천	13	322.38	56.02
	광주	4	322.25	52.21
	대전	4	282.00	43.45
	울산	7	308.14	53.19
	세종	3	282.00	46.05
	경기	57	310.21	50.13
	강원	49	319.04	51.58
	충북	27	304.96	50.08
	충남	30	324.07	52.35
	전북	27	317.56	51.32
	전남	34	317.56	52.01
	경북	38	312.13	51.01
	경남	37	308.00	50.49
	제주	15	344.93	60.29
도시규모	대도시	66	311.47	50.58
	중소도시	122	318.84	52.10
	읍/면지역	201	313.16	51.07

나. 시간대별 박물관 개방 현황

1) 시간대별 국공립 박물관 개방 현황²⁾

박물관 시간대별 개방 현황도 심야(24시~6시)를 제외하고 한 시간 단위로 최소시간간격(minimum time interval)을 설정한 후 개방 비율을 분석했다

〈표 3-19〉 시간대별 박물관 개방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운영		미운영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389	100.0	0	0.0
6시~7시	0	0.0	389	100.0
7시~8시	5	1.3	384	98.7
8시~9시	319	82.0	70	18.0
9시~10시	387	99.5	2	0.5
10시~11시	387	99.5	2	0.5
11시~12시	387	99.5	2	0.5
12시~13시	387	99.5	2	0.5
13시~14시	388	99.7	1	0.3
14시~15시	389	100.0	0	0.0
15시~16시	388	99.7	1	0.3
16시~17시	384	98.7	5	1.3
17시~18시	283	72.8	106	27.2
18시~19시	2	0.5	387	99.5
19시~20시	2	0.5	387	99.5
20시~21시	2	0.5	387	99.5
21시~22시	1	0.3	388	99.7
22시~23시	1	0.3	388	99.7
23시~24시	0	0.0	389	100.0

2) 국립박물관 15개관은 21시까지 야간개방 사업을 하고 있으나 상시개방이 아닌 관계로 반영되지 않음

시간대별 박물관 개방 여부를 살펴보면, 오전 8시~ 18시까지 개방하고 있는 박물관이 72.8%~100%로 대부분의 박물관은 8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을 따로 구분된 자료가 없어서 분석할 수 없었으나, 본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일부 국립 박물관을 제외하고 주말에도 18시 이전에 문을 닫는 박물관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추론할 수 있다.

2)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국공립 박물관 개방 현황

〈표 3-20〉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박물관 개방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6시~7시	0	0	0	0
7시~8시	1.3	3	2.5	0
8시~9시	82	63.6	84.4	86.6
9시~10시	99.5	100	99.2	99.5
10시~11시	99.5	100	99.2	99.5
11시~12시	99.5	100	99.2	99.5
12시~13시	99.5	100	99.2	99.5
13시~14시	99.7	100	99.2	99.5
14시~15시	100	100	100	100
15시~16시	99.7	100	100	99.5
16시~17시	98.7	98.5	99.2	98.5
17시~18시	72.8	28.8	85.2	79.6
18시~19시	0.5	0	0	1
19시~20시	0.5	0	0	1
20시~21시	0.5	0	0	1
21시~22시	0.3	0	0	0.5
22시~23시	0.3	0	0	0.5
23시~24시	0	0	0	0

2. 미술관 운영시간 현황

1) 국공립 미술관 개방시간 총량

2017년 기준 국립 미술관의 연평균 개관일수는 312일이며 주당 평균 개방시간으로 48시간이었고, 공립 미술관의 연평균 개관일수는 299일이었으며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47.56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3-21〉 2017년 국공립 미술관 가동현황

구분	박물관수	연간 박물관 평균 개관일수 (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 (시간)
국립	3	312	48
공립	56	299	47.56

자료 : 2017년 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지역별 미술관 개방시간 총량

지역별 박물관 개방시간 총량을 살펴보면, 먼저 년 간 개관일수는 공립미술관에 비해 국립 미술관의 개관일수가 연간 13일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의 미술관의 개관일수가 가장 길고, 대도시의 개관일수가 가장 짧았으며 개관일 수의 차이는 연간 37일 정도였다. 17개 시도 별로도 연간 개관일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짧은 곳은 서울이었고, 가장 긴 곳은 인천이었는데 둘의 차이는 연간 88일이었다.

주 평균 개방시간은 공립에 비해 국립이 다소 길었으며, 도시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미술관이 길었고, 대도시는 짧았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의 일평균 개방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대구지역의 주 평균 개방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 간의 차이는 주당 18시간이었다.

〈표 3-22〉 지역별 국공립 미술관 개방시간 총량

(단위: 일, 시간)

구분		표본수	연관 개관일수	주 평균 개방시간
전체		59	299.61	49.15
설립유형	공립	56	298.95	47.56
	국립	3	312.00	48.00
지역	서울	6	233.67	36.48
	부산	1	313.00	48.09
	대구	2	311.50	54.48
	인천	2	321.50	45.08
	광주	2	311.50	47.55
	대전	2	281.00	43.13
	울산	0	0.0	0.00
	세종	0	0.0	0.00
	경기	10	313.20	49.59
	강원	3	302.00	52.16
	충북	3	305.00	49.16
	충남	2	305.50	48.45
	전북	3	296.67	46.43
	전남	7	313.71	50.47
	경북	5	303.60	49.09
	경남	4	301.50	47.39
	제주	7	305.29	52.50
도시규모	대도시	15	277.73	43.25
	중소도시	23	300.70	48.31
	읍/면지역	21	314.05	50.43

가. 시간대별 미술관 개방 현황

1) 시간대별 국공립 미술관 개방 현황³⁾

〈표 3-23〉 시간대별 미술관 개방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운영		미운영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59	100.0	0	0.0
6시~7시	0	0.0	59	100.0
7시~8시	0	0.0	59	100.0
8시~9시	24	40.7	35	59.3
9시~10시	58	98.3	1	1.7
10시~11시	58	98.3	1	1.7
11시~12시	59	100.0	0	0.0
12시~13시	59	100.0	0	0.0
13시~14시	59	100.0	0	0.0
14시~15시	59	100.0	0	0.0
15시~16시	59	100.0	0	0.0
16시~17시	59	100.0	0	0.0
17시~18시	59	100.0	0	0.0
18시~19시	0	0.0	59	100.0
19시~20시	0	0.0	59	100.0
20시~21시	0	0.0	59	100.0
21시~22시	0	0.0	59	100.0
22시~23시	0	0.0	59	100.0
23시~24시	0	0.0	59	100.0

시간대별 미술관 개방 여부를 살펴보면, 오전 9시~ 18시까지 개방하고 있는

3) 국립미술관 3개관이 야간개방을 하고 있으나, 상시 개방이 아니라 반영되지 않음

박물관이 93.8%~100%로 대부분의 미술관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8시~9시에 개방하고 있는 미술관은 40.7%였고, 8시 이전에 개방하는 곳은 없었다. 저녁에는 18시 이후에 개방하고 있는 미술관은 전무했다. 박물관 통계와 마찬가지로 미술관 통계도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18시 이후에 개방하고 있는 미술관은 전무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미술관 개방 현황

〈표 3-24〉 도시규모별, 시간대별 미술관 개방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6시~7시	0	0	0	0
7시~8시	0	0	0	0
8시~9시	40.7	6.7	47.8	57.1
9시~10시	98.3	93.3	100	100
10시~11시	98.3	93.3	100	100
11시~12시	100	100	100	100
12시~13시	100	100	100	100
13시~14시	100	100	100	100
14시~15시	100	100	100	100
15시~16시	100	100	100	100
16시~17시	100	100	100	100
17시~18시	100	100	100	100
18시~19시	0	0	0	0
19시~20시	0	0	0	0
20시~21시	0	0	0	0
21시~22시	0	0	0	0
22시~23시	0	0	0	0
23시~24시	0	0	0	0

3. 박물관 및 미술관 개방시간 조정 정책 현황

가. 국립 문화시설 야간 개방

1) 국립 문화시설 야간 운영 현황

〈표 3-25〉 국립문화시설 야간 개방 현황

기관		관람시간	야간개장(~21시)
국립중앙박물관		10:00 ~ 18:00 / (일·공휴일) 10:00 ~ 19:00	수요일 / 토요일
국립지방박물관		10:00 ~ 18:00 / (일·공휴일) 10:00 ~ 19:00	문화가 있는날/토요일(3~10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00 ~ 18:00	수요일 / 토요일
국립민속박물관		(3~10월) 09:00 ~ 18:00 / (11~2월) 09:00 ~ 17:00	매월 마지막 수, 금, 토
국립한글박물관		10:00 ~ 18:00	문화가 있는날/ 토요일
국립중앙도서관		09:00 ~ 18:00	월~금요일 (18:00~21:00)
국립 현대미술관	과천관	(3~10월) 10:00 ~ 18:00 / (11~2월) 10:00 ~ 17:00	토요일 / 문화가 있는 날
	서울관	10:00 ~ 18:00	금요일 / 토요일
	덕수궁관	10:00 ~ 19:00	수요일 / 토요일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07년부터 일부 국립 박물관을 시작으로 '15년 이후 모든 국립박물관(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제외)과 국립미술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정일(수요일, 토요일)을 중심으로 21시까지 야간개장을 하고 있다

〈표 3-26〉 도시규모별 국립박물관·미술관 야간개방 시설 수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야간개방 시설 수	8개관	9개관	2개관

2) 국립 문화시설 야간 운영 지원 현황

자체 예산을 통해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한글박물관을 제외한 국립 문화시설 야간개장 지원으로 '18년 현재 30억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투입되고 있다.

〈표 3-27〉 국립문화시설 야간개장 지원 현황

기관	예산(백만원)		
	'17년	'18년	'19년
국립중앙박물관	2,442	2,181	2,396
국립지방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18	65	67
국립중앙도서관	309	316	324
국립현대미술관	513	466	495
합계	3,382	3,028	3,282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3) 국립 문화시설 야간 이용객 현황

〈표 3-28〉 국립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야간 이용객 현황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비고
국립중앙박물관	—	93,146	87,809	75,759	'11년 시행
국립경주박물관	8,305	16,981	17,796	22,240	
국립광주박물관	6,591	7,419	4,930	1,039	
국립전주박물관	8,371	12,276	6,765	7,032	
국립부여박물관	—	8,165	15,357	14,266	
국립공주박물관	6,965	12,419	9,089	995	
국립진주박물관	12,378	13,688	33,648	29,909	
국립청주박물관	7,797	23,088	8,796	7,464	
국립대구박물관	21,756	4,354	12,677	13,210	
국립김해박물관	4,437	7,740	6,959	9,205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비고
국립제주박물관	7,271	8,986	6,465	10,450	
국립춘천박물관	6,466	6,373	7,562	9,353	
국립나주박물관	—	—	6,322	10,814	
국립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	—	—	—	—	미시행
중앙박물관 합계	90,337	214,635	224,175	211,763	
국립현대미술관(과천)	—	—	6,633	9,365	
국립현대미술관(서울)	—	—	39,018	44,450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	—	17,520	10,035	
미술관 합계	—	—	63,171	63,850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미확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26,426	25,913	'14년 시행
국립한글박물관			11,441	9,857	'14년 시행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재구성

국립 박물관 야간 이용객은 최근 3년 년간 약 21~22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초기 '08년에 일부 시설 시행, 관람객이 9만 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10만 명의 관람객이 증가했다. 국립 미술관은 '15년부터 야간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18년 현재 6만 3천여 명이 야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9〉 국립시설 야간 개방 이용자 현황

	사례 수	2017년		2018년	
		이용자수	야간이용자수	이용자수	야간이용자수
박물관	17	12,578,285	254,730(2.0%)	12,993,870	211,763(1.6%)
미술관	3	2,839,931	44,479(1.6%)	2,445,969	63,850(2.6%)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재구성

나. 국립 문화시설 무휴관 운영

1) 국립 문화시설 무휴관 운영현황

‘16년 10월 중앙 박물관,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서울관)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7년부터 무휴관 박물관/미술관은 8개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표 3-30〉 국립 문화시설 무휴관 운영 현황

	개관일수	개관시간	폐관시간	운영시간	정기휴관일
국립중앙박물관	362	10:00	18:00	8:00	1월1일, 설날, 추석
국립경주박물관	362	10:00	18:00	8:00	1월1일, 설, 추석
국립광주박물관	362	10:00	18:00	8:00	1월1일, 설날, 추석
국립전주박물관	362	10:00	18:00	8:00	1월1일, 국경일
국립민속박물관	362	9:00	18:00	9:00	1월1일, 설날, 추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62	10:00	19:30	9:30	1월1일, 설날, 추석
국립한글박물관	362	10:00	18:00	8:00	1월1일, 설날, 추석
국립현대미술관(서울)	312	10:00	18:00	8:00	1월1일, 설날, 추석

자료: 각 기관 누리집 참조

2) 국립문화시설 무휴관 지원 현황

〈표 3-31〉 국립문화시설 무휴관 지원 현황

기관	예산(백만원)		
	‘17년	‘18년	‘19년
합계	5,924	5,822	6,067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국립 문화시설 무휴관 지원으로 ‘18년 현재 58억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투입되고 있다. ‘19년에는 60억으로 다소 증가한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3) 국립문화시설 무휴관 이용자 현황

〈표 3-32〉 국립문화시설 무휴관 이용자 현황

	기존휴관일 이용자 수(명)	
	2017년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광주, 전주 포함)	486,026	484,702
국립민속박물관	98,245	126,99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7,534	108,220
국립한글박물관	84,313	82,752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117,893	102,531
합계	894,011	905,202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주: 기존휴관일은 무휴관 시행 이전의 휴관일을 의미(월요일, 민속박물관은 화요일)

국립문화시설 무휴관(기존에 휴관일이었던 날) 이용자 수는 '17년에는 8십 9만 명, '18년에는 90만 명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휴관 정책을 실시하지 얼마 되지 않아 증가의 폭의 유의미성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18년 현재 무휴관 이용객은 연간 전체 이용객의 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년 8.6%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였다.

〈표 3-33〉 국립문화시설 무휴관 이용 비율

	사례 수	2017년		2018년	
		이용자수	기존휴관 이용자수	이용자수	기존휴관 이용자수
박물관 미술관	8개관	10,170,158	894,011(8.6%)	10,418,195	905,202(8.8%)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다. 공립 미술관 박물관 야간개방 현황

공립 미술관 박물관의 경우 정책적으로 야간개방, 무휴관 등 개방시간 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9~18시 개방시간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 가운데, 자율적으로 일부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20시 이후 폐관을 기준으로 공립박물관의 경우는 2개관, 공립미술관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미술관 박물관의 야간개방은 자율적인 영역이고, 숫자가 적어 따로 야간 관람객 현황은 조사하고 있지 않아 자료가 없어 분석할 수 없었다.

〈표 3-34〉 공립 박물관·미술관 야간 개방 현황

(단위: 개)

구분	박물관	미술관
18시~19시	2	—
19시~20시	2	—
20시~21시	2	—
21시~22시	1	—
22시~23시	1	—
23시~24시	—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개방 시간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의 개방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도서관

가. 도서관 개방시간 현황

도서관의 개방시간 총량은 연간 도서관 개방일수, 주당 평균 개방시간 두 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8년 현재 공공도서관의 연간 평균 개관 일수는 299일이었고,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68.37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지역/도시규모별로 도서관 개방시간의 총량은 차이가 있었다. 도시 규모 별로 중소도시의 주당 평균 개방시간이 가장 길었고, 지역별로 제주의 주당 개방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24시~6시)를 제외하고 한 시간 단위로 최소시간간격(minimum time interval)을 설정한 후 도서관의 개방 패턴을 알아보았다.

자료실의 경우 평일기준 8시~18시에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의 비율이 높았다. 22까지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도 495개(48.2%)에 달했다. 주말에는 8~17시에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 비율이 높았다.

열람실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8시~22시에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이 90%

수준이었으며, 주말에도 20시까지 개방하는 도서관이 90%가 넘었다.

도시규모에 따라 야간 시간 영역에 운영하는 도서관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료실의 경우 평일은 대도시의 야간 운영이 가장 높았으며, 주말엔 중소도시의 야간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열람실의 경우 평일과 주말 야간운영에서 모두 중소도시 도서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지원 정책 현황

’07년 80개관 56억으로 시작된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지원 정책은 ’18년 현재 공공도서관 510개관(48.9%) 125억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 분석해 보면 22시까지 개방하고 있는 곳이 495개관(48.2%)으로 나타나고 있어 0.7%의 오차가 있었다. 이는 개방시간과 관련된 정보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개방시간을 22시까지 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도서관 야간개방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17년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야간개방 참여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도서관 야간개방 이용자 현황은 ’13년 2천 9백만 명 수준에서 ’18년 현재 3천 3백만 명 수준으로 4백만 명 증가했다. 다만 ’14년부터 ’18년 까지 이용자 수가 감소 혹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박물관·미술관

가. 개방시간

1) 박물관

’17년 현재 국공립 박물관의 연평균 개관 일수는 국립이 317일, 공립이 314일이었고,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국립이 50.39시간, 공립이 51.33시간으로 52시간의 이하로 나타나고 있었다. 박물관 개방 시간 총량은 지역/도시규모별

로 차이가 있었다. 도시 규모별로 중소도시의 주당 평균 개방시간이 가장 길었고, 지역별로 인천의 주당 평균 박물관 개방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24시~6시)를 제외하고 한 시간 단위로 최소시간간격(minimum time interval)을 설정한 후 박물관 개방의 패턴을 알아보았다. 박물관의 98% 이상은 9시~17시까지 개방하고 있었으며, 18시까지 개방하고 있는 곳은 72.8%였다. 상시적으로 18시 이후까지 개방하고 있는 박물관은 2개관(0.5%) 이하로 소수였다. 다만, 국립박물관 16개관이 특정일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었다.

도시 규모에 따라 박물관의 개방 패턴이 달라지는 지점은 17시, 18시 사이였다. 17시까지는 개방패턴이 유사하였으나, 대도시는 17시에 폐관하는 박물관이 많고, 18시까지 개방하는 박물관이 28.8%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미술관

연간 미술관의 개방일수, 주당 평균 개방시간 두 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7년 현재 공립 미술관의 연간 평균 개관 일수는 299일이었고,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47.56시간으로 나타났고, 국립 미술관의 평균 개관일 수는 312일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48시간으로 모두 52시간 이하였다. 지역/도시규모별로 미술관의 개방시간의 총량은 다른 시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주당 평균 개방시간은 읍면지역이 가장 길었고, 대도시와의 차이는 주당 평균 7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심야(24시~6시)를 제외하고 한 시간 단위로 최소시간간격(minimum time interval)을 설정한 후 미술관의 개방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9시~18시까지 98% 이상의 미술관이 개방하고 있었다. 개방의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8시~9시 지점이었는데, 40.7%가 개방하고 있었다.

도시 규모에 따라 미술관 개방 패턴이 달라지는 지점은 이른 오전 시간(8시~9시)이었다. 읍면지역, 중소도시에서 이른 오전에 개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게 나타났다.

나. 개방시간 조정 정책 현황

1) 야간 개방

박물관·미술관의 개방시간 조정 정책은 도서관에 비해 협소하고, 늦게 시작되었다. '07년 일부 국립 박물관을 시작으로 '15년이 되어서야 모든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이 공립 도서관을 대상으로 평일 내내 22시까지 운영이 되는 반면, 박물관·미술관은 국립 시설만만을 대상으로 하며, 평일 중 하루, 이틀(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토요일에 한해 2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립 문화시설 야간개방의 이용자는 '15년 박물관과 미술관을 합쳐 2십 8만 명 수준이었고, '18년 현재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

2) 무휴관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주중 개방시간 선택 연장뿐 아니라, 무휴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6년 국립 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17년부터는 휴관 없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8개관 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휴관일(기존에 휴관의 휴관 일이었던 날) 이용객 수는 '17년 8십 9만여 명에서 '18년 90십만 명 수준으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1) 시설 간 차이

본 연구의 분석틀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공급시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설 간의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도서관의 경우, 평일 야간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이 되고 있었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국립시설을 중심으로 평일 중 특정일과 토요일에 야간 개방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특징과도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도서관의 경우 야간개방 지원 정책과 맞물려 생활권 공공시설, 방문의 일상성의 특징으로 인해 평일 저녁시간에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방문의 비일상성의 특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방시간 조정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평일/주말 모두 야간개방 등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표 3-3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개방시간 현황 종합

	개관일수	주당 개방시간	개방패턴	지원정책	개방조정 시설 현황	야간 이용객
도서관	299	68.37	주간, 야간	공공도서관 야간 개방	공공 48.2%	3천 3백만
박물관	314	50.39	주간	국립시설 야간개방, 무휴관	국립시설	2십8만 (야간)
미술관	299	47.56	주간		국립시설	9십만 (무휴관)

2) 지역 간 차이

문화시설 개방시간 관련해서 시설의 특성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도 나타나고 있었다. 도서관은 자료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야간운영이, 열람실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야간운영비용이 높았는데, 이는 일정부분 수요의 특성과도 관련 있으리라 판단된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공급 특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시설이었다.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의 개방 패턴이 주간으로 고정된 가운데, 박물관은 다소 이른 폐관(17시)을 하는 비율이 대도시가 높았으며, 미술관은 이른 개관(8시)을 하는 비율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3) 개방시간 연장 정책의 효과

일부 문화기반시설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야간개방, 무휴관 등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확대의 성과를 내고 있었다.

자료실 야간개방 정책에 공공도서관의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효과로 전체 이용객 대비 야간 이용객의 비율이 18.5%에 이르고 있다.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도 국립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야간개방을 하고 있지만, 전체 이용객 대비 야간 이용객이 1.6%~2.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야간 이용객 비율을 공공도서관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은 평일 주 5일 야간 이용객의 비율이고,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주1~2일 야간 운영을 통한 이용객 상승 비율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립시설 무휴관의 경우, 야간개방보다는 수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이용객 대비 무휴관 이용객 비율이 8.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제4장

문화기반시설 수요시간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주요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개방시간 조정을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 현황뿐 아니라 실제 참여자들이 문화기반시설의 시간접근성과 관련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어 일상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문화서비스 문화기반시설 접근 가능시간과 공공 문화기반시설 공급시간의 조율을 통해 국민의 문화서비스 접근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나.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남녀 1,300명으로 17개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2019년 6월 주민등록인구비율 기준)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표 4-1〉 조사대상

		연령대					합계
		만 15~19세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50세 이상	
서울 특별시	남	9	27	30	31	29	253
	여	9	27	30	31	30	
부산 광역시	남	4	9	9	10	10	83
	여	3	8	9	10	11	
대구 광역시	남	3	6	7	8	8	63
	여	3	5	7	8	8	
인천 광역시	남	3	8	9	9	10	76
	여	3	8	8	9	9	
광주 광역시	남	2	4	4	5	4	37
	여	1	4	4	5	4	
대전 광역시	남	1	4	4	5	5	38
	여	1	4	4	5	5	
울산 광역시	남	1	4	4	4	4	32
	여	1	3	3	4	4	
세종 특별자치시	남	0	0	1	1	1	6
	여	0	0	1	1	1	
경기도	남	14	34	38	44	40	333
	여	14	31	36	43	39	
강원도	남	1	4	4	5	5	36
	여	1	3	4	4	5	
충청북도	남	1	4	4	5	5	38
	여	1	4	4	5	5	
충청남도	남	3	5	7	7	7	55
	여	3	4	5	7	7	
전라북도	남	3	4	4	5	7	44
	여	3	4	4	5	5	

		연령대					합계
		만 15~19세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50세 이상	
전라남도	남	3	4	4	5	7	42
	여	1	4	4	5	5	
경상북도	남	3	7	7	8	9	64
	여	3	5	5	8	9	
경상남도	남	4	8	9	10	12	82
	여	4	7	8	10	10	
제주 특별자치도	남	1	1	1	3	3	18
	여	1	1	1	3	3	
합계		108	255	283	328	326	1300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엠브레인 130만 패널 중 적격 응답자를 선정하고, 온라인으로 구현된 설문지를 메일링 후,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라. 조사항목

〈표 4-2〉 설문문항

분류	내용
여가시간 관련 일반사항	- 개인 시간 부족 여부 정도 및 시간 - 일과 끝난 후 피곤함 정도 - 여가 활동 위해 시간 내는 정도 - 여가활동 의향 여부 - 여가시간 활용 종류 - 삶의 만족 관련 사항
일상의 구조 (잠재적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기준] 일상의 구조(의무활동, 필수/유지활동, 여가활동) 파악 - [주말 기준] 일상의 구조(의무활동, 필수/유지활동, 여가활동) 파악
문화기반시설 이용 관련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이용 경험(최근 1년)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이동 수단 및 이동 시간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방문 빈도 및 방문 요일/시간대

분류	내용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방문 시 총 체류 시간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6시 이후 방문 여부(최근 1년)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방문 의향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가용성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지리접근성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시간접근성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서비스접근성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접근성 만족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	-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시간 불일치로 비이용 경험 - 문화기반시설 이용 가능 시간과 문화 기반 시설 운영 시간 일치 중요도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개방 시간 조정 필요 여부 -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개방 시간 조정시 비용 전담처 및 최대 지불 비용 -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개방 시간 조절 불필요 이유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개방 시간 조정 시, 향후 이용 의향 및 미이용 의향 이유 -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이용 가능 시간대 -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개방 연장 시, 고려사항

조사항목은 크게 개인 시간관련 일반사항, 일상의 구조, 문화기반시설 이용 관련,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2절

조사 결과

1. 자료의 특성

〈표 4-3〉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중
전체		(1,300)	
지역규모	대도시	(556)	42.8
	중소도시	(484)	37.2
	읍면지역	(260)	20.0
시도	서울	(253)	19.5
	부산	(83)	6.4
	대구	(63)	4.8
	인천	(76)	5.8
	광주	(37)	2.8
	대전	(38)	2.9
	울산	(32)	2.5
	경기도	(333)	25.6
	강원도	(36)	2.8
	충청북도	(38)	2.9
	충청남도	(55)	4.2
	전라북도	(44)	3.4
	전라남도	(42)	3.2

		사례수	비중
전체		(1,300)	
	경상북도	(64)	4.9
	경상남도	(82)	6.3
	제주도	(18)*4)	1.4
	세종	(6)*	0.5
성별	남	(666)	51.2
	여	(634)	48.8
연령	만 15~19세	(108)	8.3
	만 20~29세	(255)	19.6
	만 30~39세	(283)	21.8
	만 40~49세	(328)	25.2
	만 50세 이상	(326)	25.1
직업	직장인	(798)	61.4
	학생	(184)	14.2
	전업주부	(121)	9.3
	자영업자/기타	(197)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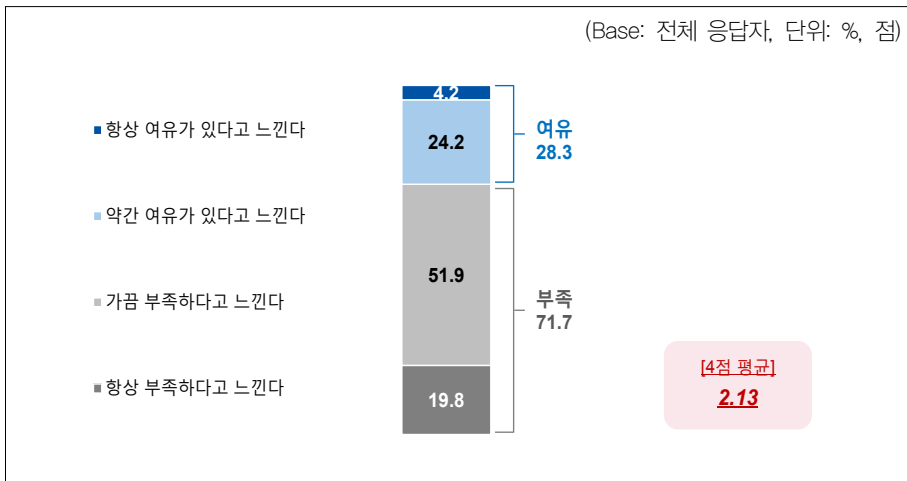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666명(51.2%), 여성 634명(48.8%)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10대 108명(8.3%), 20대 255명(19.6%), 30대 283명(21.8%), 40대 328명(25.2%), 50대 이상 326명(25.1%)으로 이었다. 지역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대都市는 특별시와 광역시, 중소都市는 도의 시(주소 끝이 동으로 끝나는 지역), 읍면지역은 군 단위를 포함해서 주소지가 읍·면 지역으로 끝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都市에 거주하는 사람은 556명(42.8%), 중소都市는 484명(37.2%), 읍·면 지역은 260명(20%)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직장인이 798명(61.4%), 학생이 184명(14.2%), 전업주부가 121명(9.3%), 자영업

4) 샘플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및 기타가 197명(15.2%)으로 나타났다.

2. 이용자 시간 관련 현황

가. 시간 부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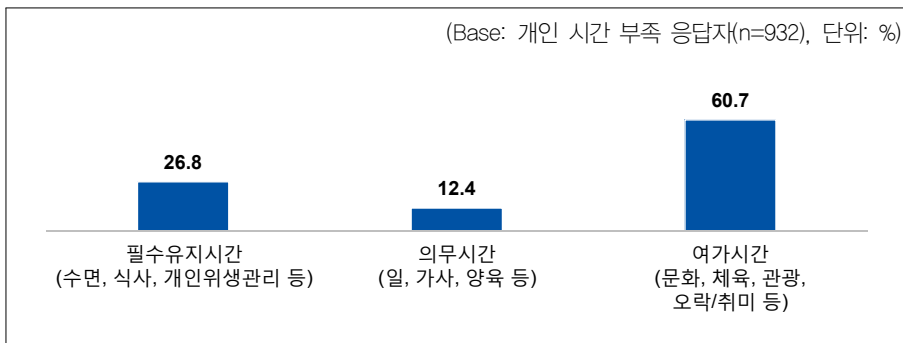


[그림 4-1] 개인 시간 부족 여부 정도

전체 응답자의 71.7%는 평소 시간이 ‘부족(항상 부족 19.8% + 가끔 부족 51.9%)’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72.8%)이 여성(70.5%)에 비해 약간 시간부족으로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71.7%), 중소도시(75.2%) 경우 읍면 지역 거주자(63.8%) 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의 경우(81.6%)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타 연령대비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직장인(77.1%)이 학생(71.2%), 전업주부(52.9%), 자영업/기타(61.9%)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족한 시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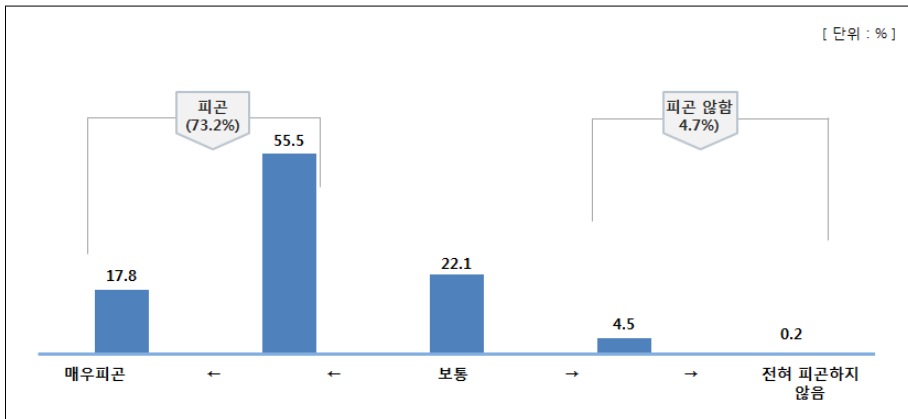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60.7%는 ‘여가시간’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필수유지시간(26.8%)’, ‘의무시간(12.4%)’ 순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60.7%)와 중소도시(62.6%)의 여가시간 부족이 읍면지역(56.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65.8%)의 여가시간 부족이 10대(59.5%), 20대(61.3%), 40대(57.3%), 50대 이상(58.8%)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직장인(62%), 자영업 및 기타(61.5%), 학생(58.8%), 전업주부(51.6%) 순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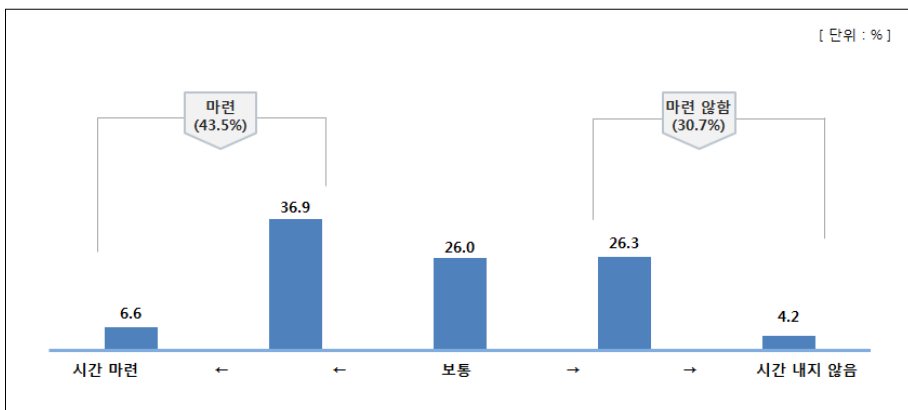
다. 일과 후 피곤함 정도

하루 일과 끝난 후, 전체 응답자의 73.2%(매우 피곤 17.8% + 약간 피곤 55.5%)는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거주자(66.2%)보다 대도시(77%), 중소도시(72.7%) 거주자인 경우 ‘피곤함’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81.6%)가 10대(74.1%), 20대(74.9%), 40대(73.5%), 50대 이상(64.1%)에 피곤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인(78.4%), 학생(76.1%), 전업주부(60.3%), 자영업자/ 기타(57.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하루 일과가 끝난 후 피곤함 정도

라. 일과 후 여가시간 마련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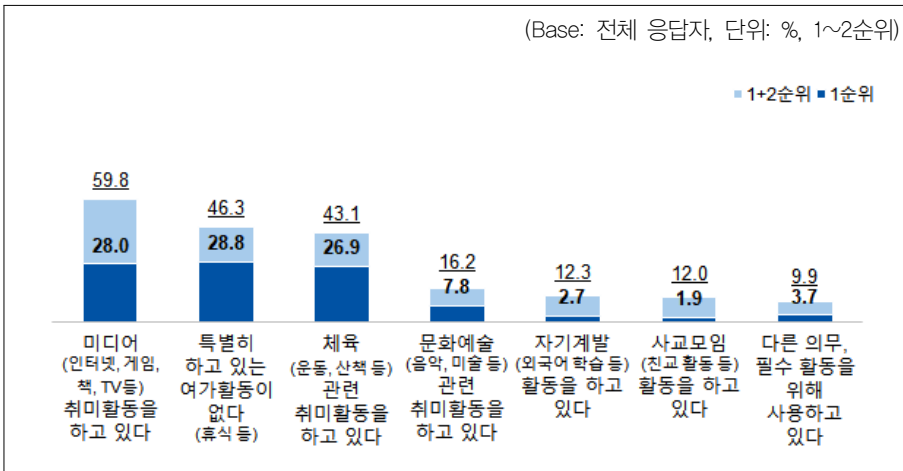
[그림 4-4] 일과 후 여가시간을 내는 사람의 비율

전체 응답자의 43.5%(매우 그렇다 6.6% + 약간 그렇다 36.9%)는 평소 하루 일과 끝난 후 여가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46%), 중소도시(39.9%), 읍면지역(45%)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세 미만(55.6%), 20대(52.5%)가 30대(36.7%), 40대(38.4%), 50대 이상(43.6%)에 비해 여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비율이 높았으며, 직업별

로는 학생(54.3%)이 직장인(42.6%), 전업주부(41.3%), 자영업자/기타(38.6%)에 비해 여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비율이 높았다.

마. 일과 후 여가시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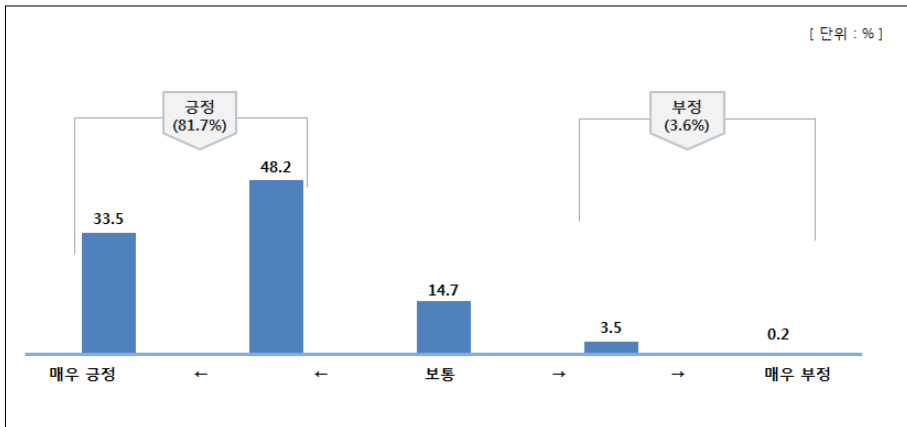
[그림 4-5] 일과 후 여가시간 활용

하루 일과 끝난 후,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으로 ‘미디어 취미 활동’이 59.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특pecially 하고 있는 여가활동 없다’ 46.3%, ‘체육 취미 활동’ 4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미디어 취미활동(65.4%)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고, 문화예술관련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대도시(17.8%), 중소도시(15.3%), 읍면지역(14.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만 20세 미만(32.4%) 20대(22%)는 ‘문화 예술 관련 취미활동’, 만 40대(47%) 및 50대 이상(52.8%)은 ‘체육 관련 취미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타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직장인(49%)과 전업주부(52.9%)가 특별히 하고 있는 여가활동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바. 일과 후 여가시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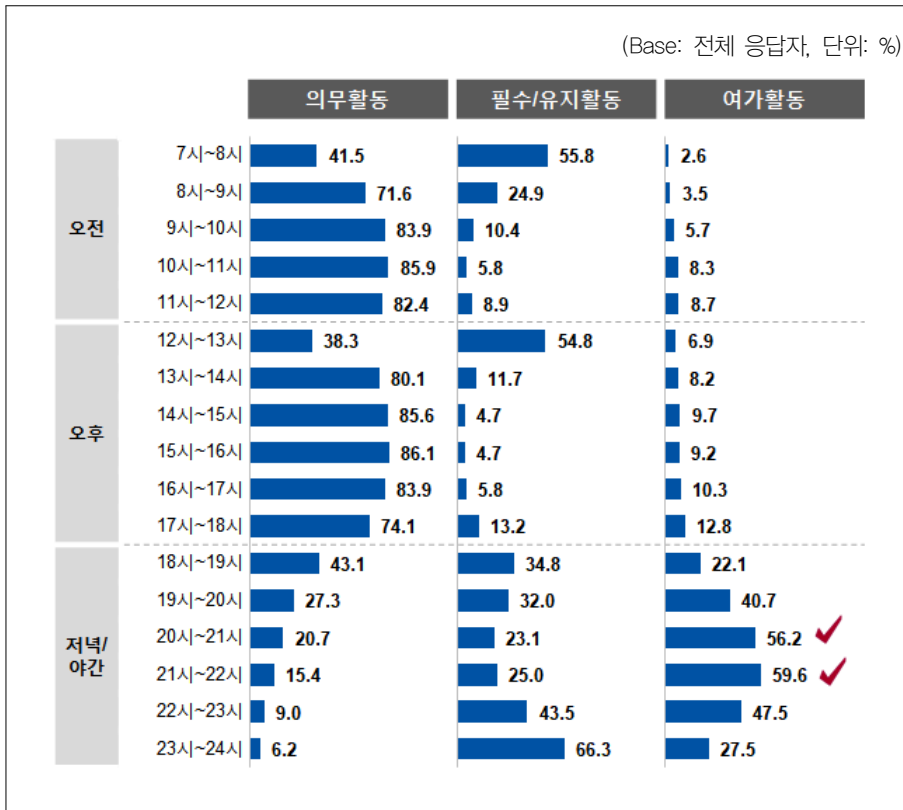


[그림 4-6] 일과 후 여가활동 의향

전체 응답자의 81.7%(매우 그렇다 33.5% + 약간 그렇다 48.2%)는 하루 일과 끝난 후 ‘여가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82.2%), 중소도시(83.3%)가 읍면지역(77.7%)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과 후 여가활동 의향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30대(79.2%), 40대(79.3%)가 10대(82.4%), 20대(82%), 50대 이상(85.9%)에 비해 여가활동 의향이 낮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인(82.3%), 학생(84.2%)의 여가활동 의향이 전업주부(79.2%), 자영업 및 기타(78.2%)에 비해 일과 후 여가활동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3. 일상의 시간 구조

가. 평일 시간대별 주요 활동



[그림 4-7] 〈평일기준〉 시간별 주 활동

평일기준으로 의무활동, 필수/유지활동, 여가활동⁵⁾을 하는 분포를 알아본 결과 국민들은 오전 중 7~8시는 필수/유지활동, 의무 활동 순으로 주로 활동하며, 8시 ~ 12시는 주로 의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의무활동 : 직업활동(일, 출퇴근), 학교활동, 돌봄 활동, 구직 활동, 가사 활동, 가정용품 구매 등

필수/유지활동 : 수면, 식사, 위생, 의료 서비스 받기 등

여가 활동 : 문화활동, 체육활동, 취미/오락활동, 관광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종교활동, 휴식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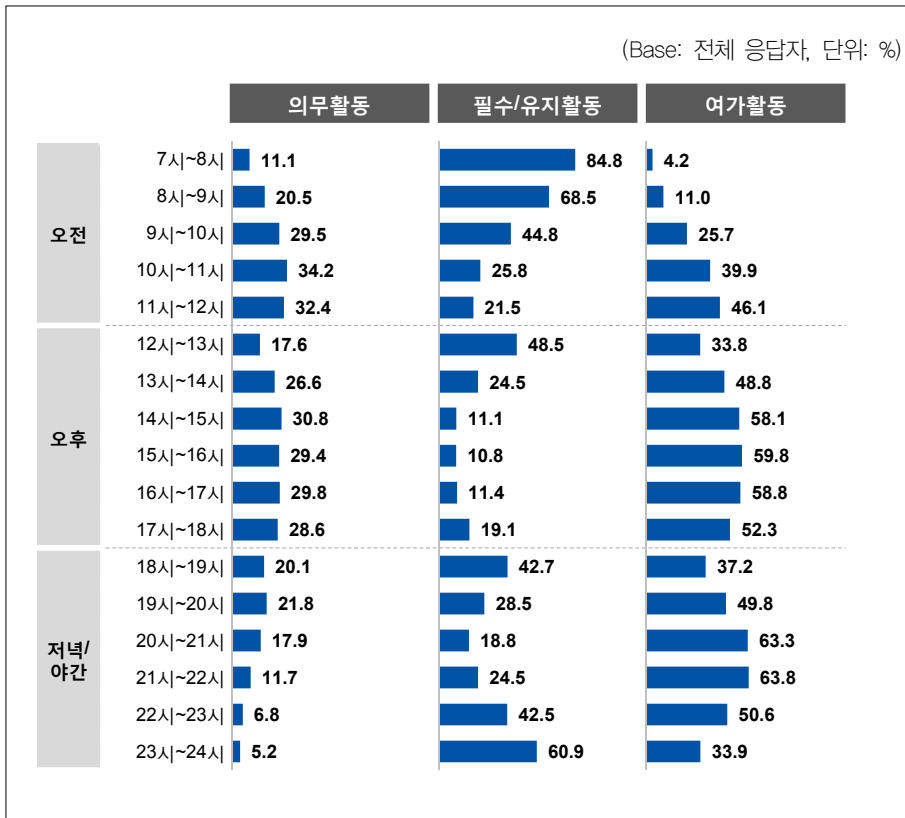
오후 12시~13시는 식사 등의 필수/유지활동을 주로 하며, 13시~18시까지는 주로 의무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저녁/야간 시간 중 18시~19시는 의무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필수/유지활동과 여가활동 시간 비중이 높았다. 여가활동은 19시부터 시작하여 22시까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4〉 〈평일 기준〉 시간별 주 활동

(단위: %)

		의무활동	필수/유지활동	여가활동
오전	7시~8시	41.5	55.8	2.6
	8시~9시	71.6	24.9	3.5
	9시~10시	83.9	10.4	5.7
	10시~11시	85.9	5.8	8.3
	11시~12시	82.4	8.9	8.7
오후	12시~13시	38.3	54.8	6.9
	13시~14시	80.1	11.7	8.2
	14시~15시	85.6	4.7	9.7
	15시~16시	86.1	4.7	9.2
	16시~17시	83.9	5.8	10.3
	17시~18시	74.1	13.2	12.8
저녁/ 야간	18시~19시	43.1	34.8	22.1
	19시~20시	27.3	32.0	40.7
	20시~21시	20.7	23.1	56.2
	21시~22시	15.4	25.0	59.6
	22시~23시	9.0	43.5	47.5
	23시~24시	6.2	66.3	27.5

나. 주말 시간대별 주요 활동



[그림 4-8] <주말 기준> 시간별 주 활동

주말은 평일 대비 의무활동을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필수/유지활동, 여가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의무활동의 경우 오전과 오후를 기준으로 20%~34% 사람들이 의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녁/야간 시간에도 10%~20% 사람들이 의무활동을 하고 있었다. 필수/유지활동 경우, 오전 이른 시간대, 오후 이른 시간대, 야간 늦은 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가활동의 경우, 오전(최고 11~12시, 46.1%)에서 오후(최고 15~16시, 59.8%), 저녁 야간(최고 21시~22

시, 63.8%)으로 갈수록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과도한 설문문항으로 인한 응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구분하지 않아, 본 조사의 결과가 토요일, 일요일 양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5〉 [주말 기준] 시간별 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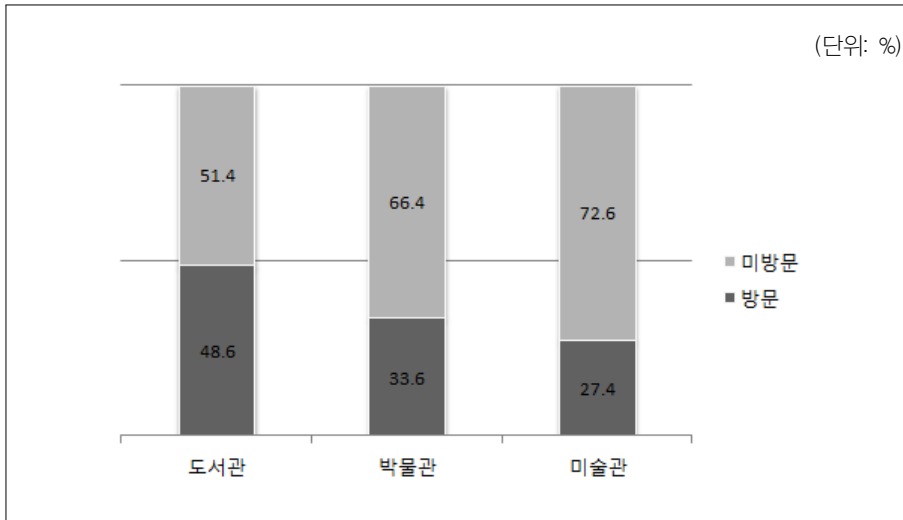
(단위: %)

		의무활동	필수/유지활동	여가활동
오전	7시~8시	11.1	84.8	4.2
	8시~9시	20.5	68.5	11.0
	9시~10시	29.5	44.8	25.7
	10시~11시	34.2	25.8	39.9
	11시~12시	32.4	21.5	46.1
오후	12시~13시	17.6	48.5	33.8
	13시~14시	26.6	24.5	48.8
	14시~15시	30.8	11.1	58.1
	15시~16시	29.4	10.8	59.8
	16시~17시	29.8	11.4	58.8
	17시~18시	28.6	19.1	52.3
저녁/ 야간	18시~19시	20.1	42.7	37.2
	19시~20시	21.8	28.5	49.8
	20시~21시	17.9	18.8	63.3
	21시~22시	11.7	24.5	63.8
	22시~23시	6.8	42.5	50.6
	23시~24시	5.2	60.9	33.9

4. 문화기반시설 이용관련 현황

가. 문화기반시설 접근성

1) 문화기반시설 방문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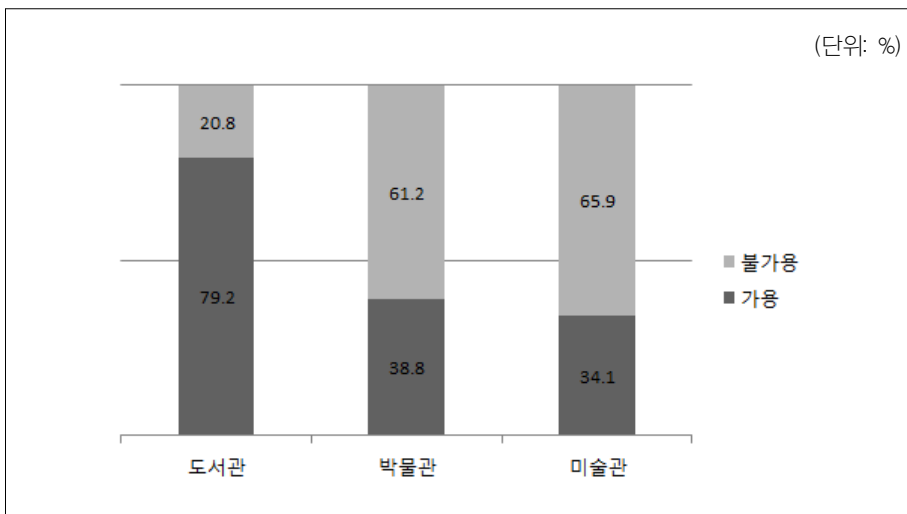


[그림 4-9] 최근 1년 이내, 문화시설 별 방문 경험

최근 1년 이내, 문화기반시설별 방문 경험률은 ‘도서관’ 48.6%, ‘박물관’ 33.6%, ‘미술관’ 27.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모두 읍면지역의 방문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도서관은 10대(63%), 40대(50%) 순으로 방문경험이 높았으며, 박물관은 40대(39%), 50대 이상(34.7%), 미술관은 10대(34.2%), 20대(32.2%) 순으로 방문 경험률이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도서관의 경우 학생(59.8%), 전업주부(58.7%) 순으로 방문 경험률이 높았고, 박물관은 직장인(36.5%), 전업주부(34.7%) 순이었으며, 미술관은 학생(32.1%), 직장인(26.9%) 순이었다.

2) 문화기반시설 가용성

문화기반시설별로 ‘도서관’은 전체 응답자의 79.2%는 주변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떠오른다고 응답한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38.8%, 34.1%만이 이용 가능 시설이 떠오른다고 응답해 도서관 대비 가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가용성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가용성은 중소도시가(83.3%) 가장 높았고, 박물관은 대도시(39.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술관은 읍면지역(25.8%)의 가용성이 크게 낮았다. 연령별로는 도서관의 경우 10대(90.7%)와 40대(82.9%)가 가용성 지각이 높았으며, 박물관은 40대(44.8%), 50대 이상(45.7%)의 가용성 지각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미술관의 가용성 지각은 전 연령(31.5%~36.8%)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도서관의 경우 학생(87.5%)과 전업주부(85.1%)의 가용성 지각이 높았으며, 박물관은 직장인(40.7%)과 자영업자(40.6%)의 가용성 지각이 높았고, 미술관도 자영업자(36.5%)와 직장인(34.8%)의 가용성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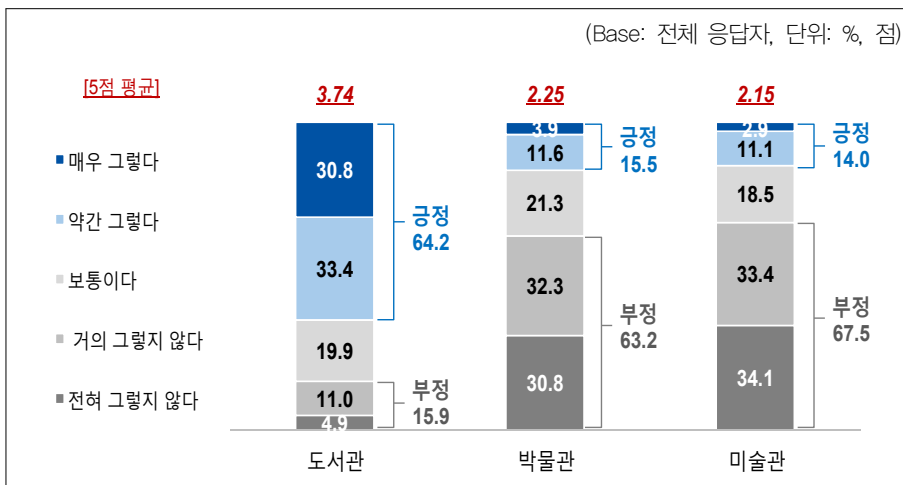


[그림 4-10] 문화시설별 가용성

3) 문화기반시설 지리접근성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도서관’은 전체 응답자의 64.2%(매우 그렇다 30.8% + 약간 그렇다 33.4%)는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였고,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가깝다고 느낀 긍정 응답률이 각각 15.5%(매우 그렇다 3.9% + 약간 그렇다 11.6%), 14.0%(매우 그렇다 2.9% + 약간 그렇다 11.1%)로 도서관 대비 지리 접근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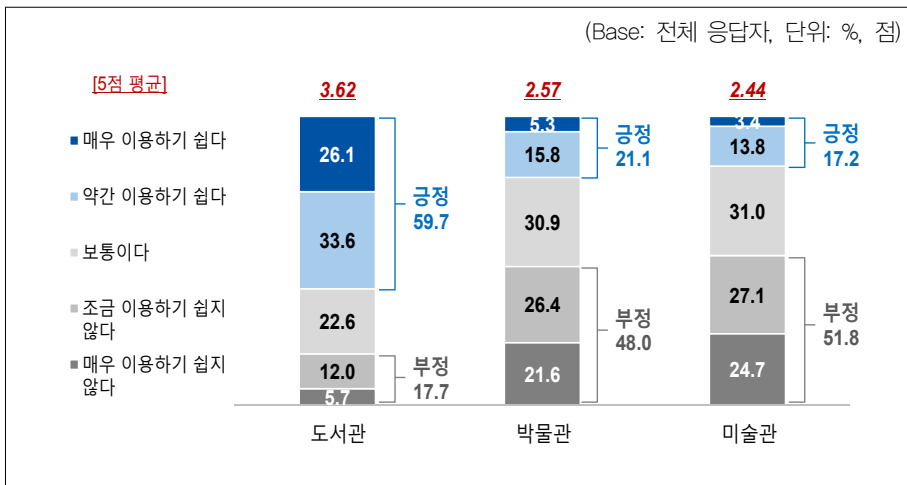
지역별로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은 중소도시(71.1%) 거주자가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박물관의 지리적 접근성도 중소도시(16.1%)가 가장 높았다. 미술관의 경우 대도시(15.8%) 거주자가 지리적 접근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은 50대 이상(71.5%)이 가장 높게 지각했으며, 박물관은 40대(19.8%), 미술관도 40대(19.8%)가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도서관의 경우 전업주부(67.8%)가, 박물관은 자영업자(18.3%), 미술관은 직장인(14.5%)이 지리적 접근성을 타 직업에 비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림 4-11] 문화시설별 지리접근성

4) 문화기반시설 시간접근성

이용자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시설의 개방시간을 고려할 때, 도서관은 전체 응답자의 59.7%(매우 이용하기 쉬움 26.1% + 약간 이용하기 쉬움 33.6%)가 이용하기 쉬운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박물관’은 21.1%(매우 이용하기 쉬움 5.3% + 약간 이용하기 쉬움 15.8%), ‘미술관’은 17.2%(매우 이용하기 쉬움 3.4% + 약간 이용하기 쉬움 13.8%)가 이용시간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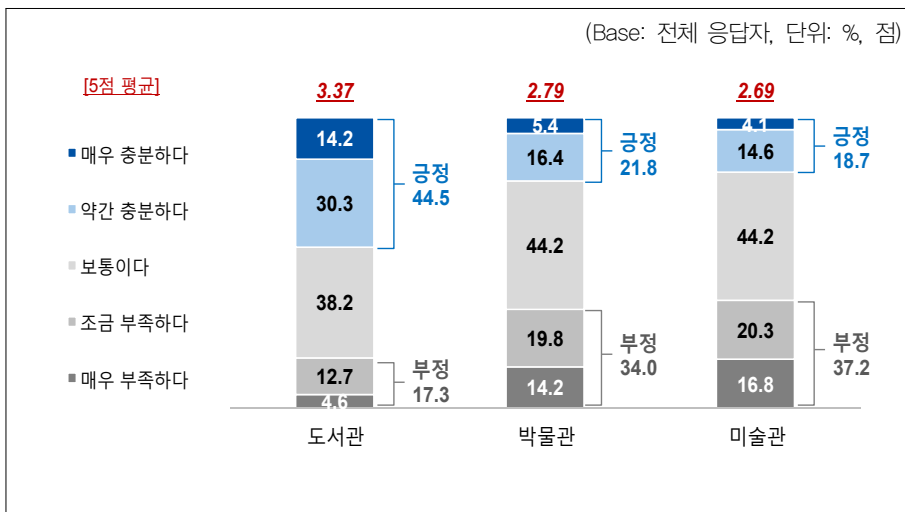
[그림 4-12] 문화시설별 시간접근성

지역별로 도서관의 시간접근성은 중소도시(65.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의 시간접근성은 읍면지역(21.9%)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대도시이하였다. 미술관의 경우, 대도시(19.4%)의 시간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도서관의 경우, 10대(72.2%), 50대 이상(63.2%) 순으로 높았고, 30대의 시간접근성(51.2%)이 가장 낮았다. 박물관의 경우 50대 이상(24.5%), 10대(24.1%) 순으로 높았고, 30대(18.4%), 20대(15.3%)의 시간접근성이 낮았다. 미술관의 경우, 10대(18.5%), 40대(18%) 순으로 높았고, 30대(16.6%), 20대(15.7%)의 시간접근성이 낮았다. 직업별로는 도서관, 미술관, 박

물관의 모두에서 직장인(차레대로 57.9%, 20.3%, 16.3%)의 시간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접근성이 높은 직업은 도서관과 박물관은 전업주부(차레대로 71.1%, 23.1%), 미술관은 자영업자(20.3%)의 시간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5) 문화기반시설 서비스접근성

‘도서관’에서 원하는 서비스(프로그램)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한 긍정 응답률은 44.5%(매우 충분 14.2% + 약간 충분 30.3%)였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각각 21.8%(매우 충분 5.4% + 약간 충분 16.4%), 18.7%(매우 충분 4.1% + 약간 충분 14.6%)로 도서관 대비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문화기반시설별(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서비스 접근성이 모두 대도시, 중소도시 대비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서비스 접근성이 모든 문화시설에 가장 낮았으며, 직업별 서비스접근성은 모든 시설에서 자영업자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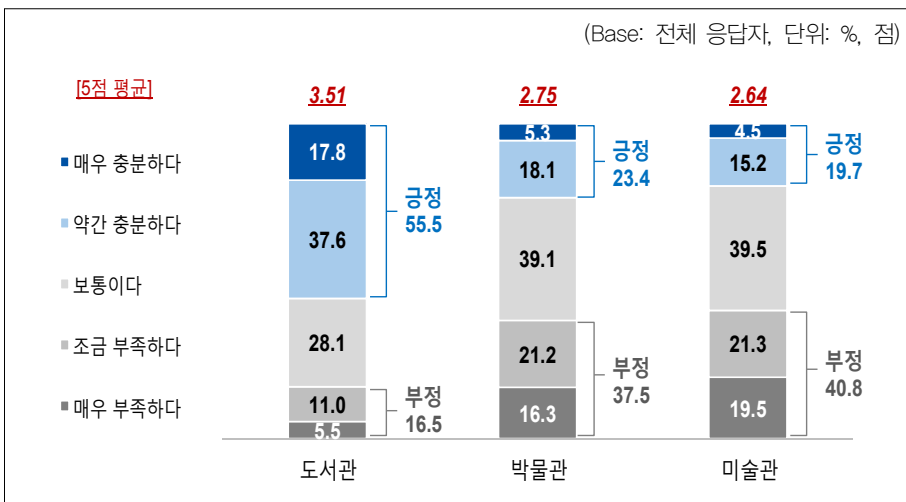


[그림 4-13] 문화시설별 서비스접근성

6) 문화기반시설 충분도

전반적인 사항(개방시간, 입지,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했을 때, ‘도서관’은 전체 응답자의 55.5%(매우 충분 17.8% + 약간 충분 37.6%)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박물관’은 23.4%(매우 충분 5.3% + 약간 충분 18.1%)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술관’은 19.7%(매우 충분 4.5% + 약간 충분 15.2%)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도서관’ 대비 충분도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도서관(48.5%), 박물관(19.6%), 미술관(12.7%) 모두에서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대도시, 중소도시 대비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도서관(43.8%), 박물관(18.7%), 미술관(17.3%) 모두에서 접근성의 충분도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도서관은 경우는 자영업자(48.2%), 직장인(52.5%), 박물관의 경우도 자영업자(20.8%), 직장인(22.2%), 미술관은 전업주부의 접근성 충분도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4-14] 문화시설별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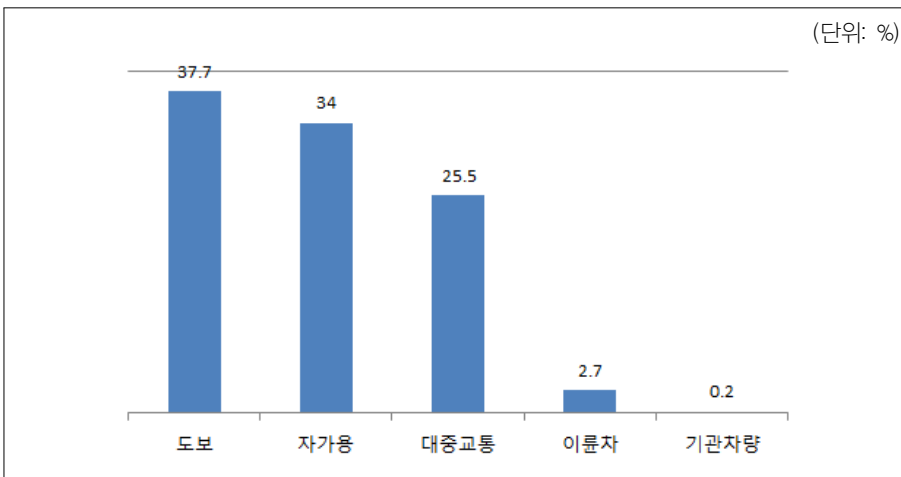
나. 도서관 이용 현황

도서관 이용 현황은 최근 1년 이내 도서관 방문 경험자(n=632명)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이동 수단

도서관 방문 시 ‘도보(37.7%)’와 ‘자가용(34.0%)’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25.5%)’의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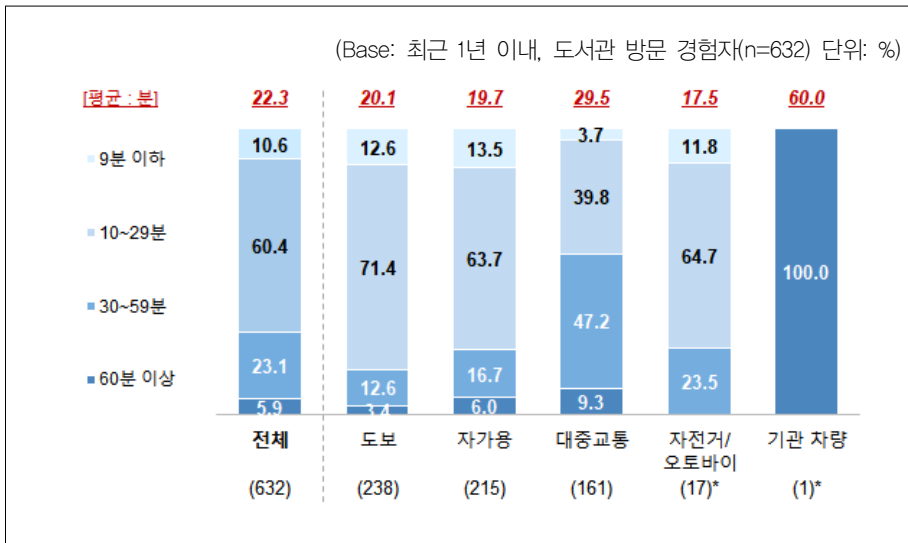
읍면 거주자의 경우 주로 ‘자가용(46.4%)’을 이용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도서관 이동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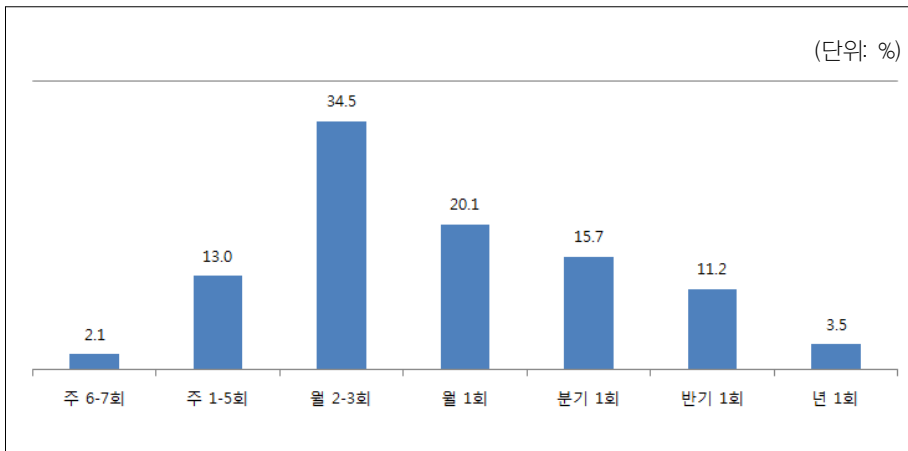
2) 이동 시간

이동수단과 관계없이 도서관 방문에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22.3분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방문 시 이동 시간으로 ‘10~29분(60.4%)’이 가장 높으며, ‘60분 이상’ 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그림 4-16] 도서관 이동시간

3) 방문 빈도



[그림 4-17] 도서관 방문빈도

도서관 방문빈도를 살펴본 결과, ‘월 2~3회(34.5%)’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월 1회 정도(20.1%)’, ‘분기(3개월)별

1회(15.7%)’ 순이며, 주 1회 이상 방문율은 1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읍면 거주자의 주 1회 이상 도서관 방문율은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별로 만 15~29세의 주 1회 이상 방문율이 타 연령대비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직장인의 주 1회 이상 도서관 방문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 1~3회 방문 빈도는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가 연령별로 50대 이상이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방문 요일/시간대

〈표 4-6〉 도서관 방문 요일/시간대

(Base: 최근 1년 이내, 도서관 방문 경험자(n=632), 단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4.6	21.0	11.9
오후	32.0	41.0	23.6
저녁 및 야간	16.1	5.7	3.2
계	62.7	67.7	38.7

도서관 주 방문 요일/시간대는 ‘토요일 오후(41.0%)’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평일/오후(32.0%)’, ‘일요일/오후(2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토요일 오후 시간대의 방문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만 20~29세’와 ‘만 50세 이상’은 ‘평일/오후’ 도서관을 주로 방문한다고 응답하였고, 10대, 30대, 40대는 토요일 오후에 주로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직장인과 학생은 토요일 오후 방문빈도가 높았고, 전업주부와 자영업자는 평일 오후의 방문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오후 6시 이후 방문경험

최근 1년 이내, 도서관 방문 경험자의 39.7%는 오후 6시 이후 도서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읍면지역 대비, 오후 6시 이후 도서관 방문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의 6시 이후 방문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자영업자의 6시 이후 방문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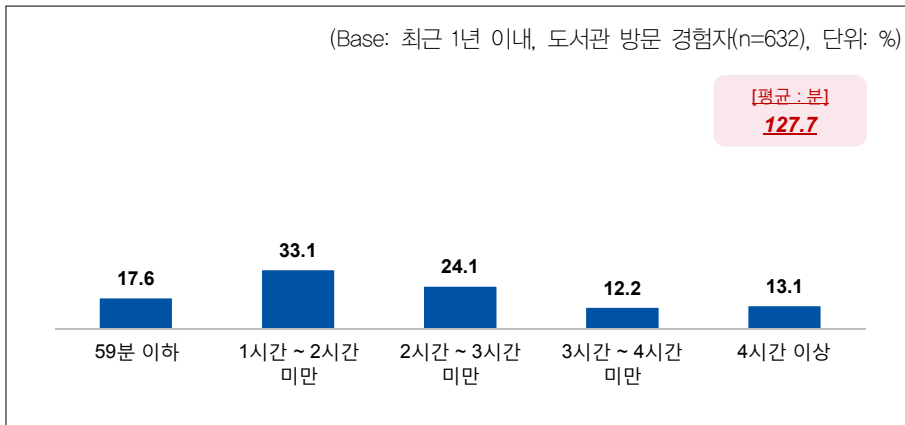
〈표 4-7〉 도서관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632)	39.7	60.3
지역규모	대도시	(269)	43.5	56.5
	중소도시	(253)	41.5	58.5
	읍면지역	(110)	26.4	73.6
연령	만 15~19세	(68)	41.2	58.8
	만 20~29세	(115)	54.8	45.2
	만 30~39세	(138)	42.8	57.2
	만 40~49세	(164)	36.0	64.0
	만 50세 이상	(147)	28.6	71.4
직업	직장인	(370)	39.5	60.5
	학생	(110)	50.0	50.0
	전업주부	(71)	18.3	81.7
	자영업자/기타	(81)	45.7	54.3

6) 평균 체류 시간

도서관 방문자의 평균 체류 시간은 127.7분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방문 시, 평균 ‘1시간~2시간 미만(33.1%)’ 체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다음 순으로 ‘2시간~3시간 미만(24.1%)’이 높으며, ‘4시간 이상’ 체류하는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체류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30대(평균 94.5 시간)의 체류시간이 타 연령의 체류시간에 비해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체류시간이 다른 직업 평균에 비해 눈에 띄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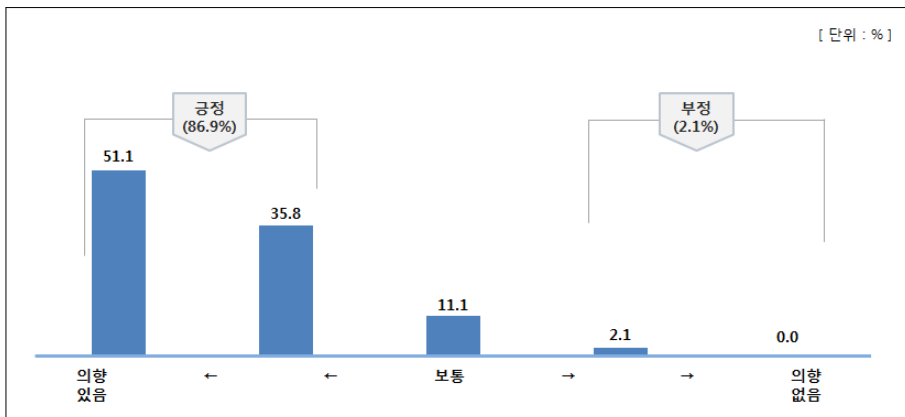


[그림 4-18] 도서관 평균 체류 시간

7) 도서관 향후 방문의향

도서관 방문 경험자의 86.9%(방문 의향 매우 있음 51.1% + 방문 의향 약간 있음 35.8%)는 향후에도 도서관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방문의향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방문의향이 92%가 넘었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자영업자의 방문의향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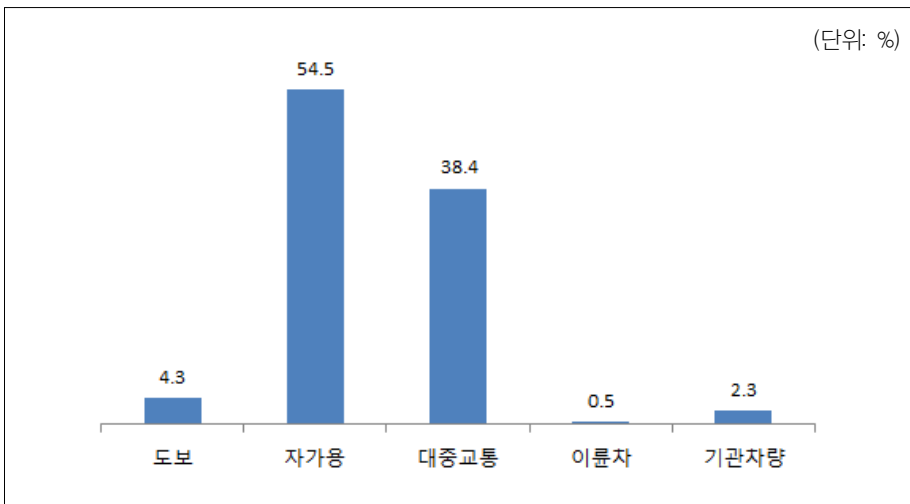


[그림 4-19] 도서관 향후 방문의향

다. 박물관 이용 현황

박물관 이용 현황은 최근 1년 이내 박물관 방문 경험자(n=437명)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이동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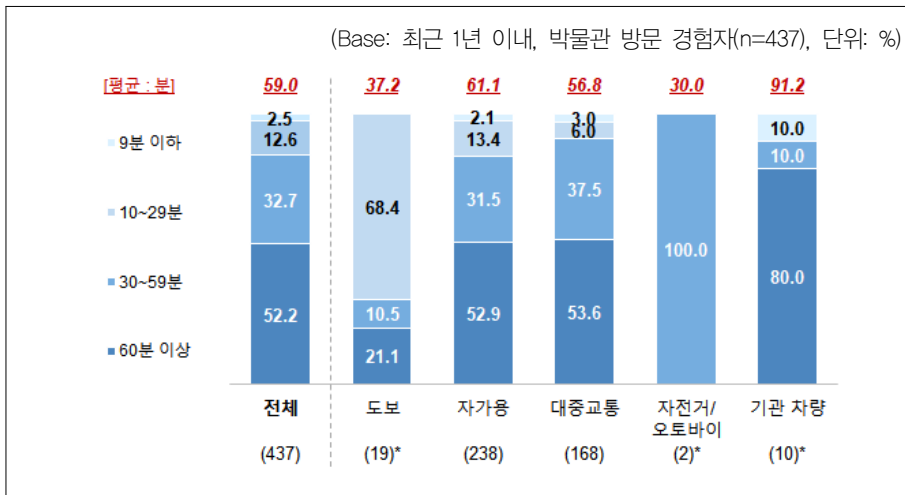
[그림 4-20] 박물관 이동수단

박물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자가용(54.5%)’, 다음으로 ‘대중교통(38.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는 대중교통(49.3%)과 자가용(45.2%) 이용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59.5%)와 읍면지역(68.4%)은 자가용 이용이 가장 높았다.

2) 이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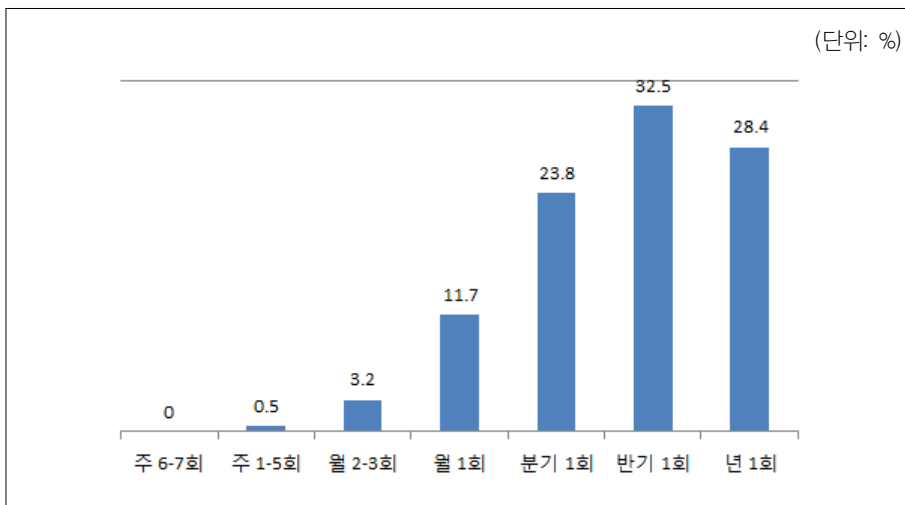
이동수단과 상관없이 박물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평균 59분이었다. 박물관 방문 시 ‘60분 이상’ 이동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0~59분(32.7%)’ 순으로 나타났고, 박물관 방문자의 절반 정도는 주로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60분 이상’ 이동하여 박물관을 방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수단별로는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37.2분이 소요되었고, 자가용은 61.1분, 대중교통은 56.8분, 이륜차 30분, 기관차량은 91.2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박물관 이동 시간

3) 방문빈도



[그림 4-22] 박물관 방문 빈도

박물관 이용자의 방문 빈도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 이내 ‘반기(6개월)별 1회(32.5%)’, ‘1년에 1회(28.4%)’, ‘분기(3개월)별 1회(23.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방문의 주기가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직업은 방문빈도에서 일관된 패턴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10대 학생의 경우 1년에 1회 방문빈도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4) 방문요일/시간

〈표 4-8〉 박물관 방문 요일/시간대

(Base: 최근 1년 이내, 박물관 방문 경험자(n=437), 단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6.46	21.5	14.9
오후	14.4	54.9	26.8
저녁 및 야간	1.1	3.0	1.4
계	21.96	79.4	43.1

박물관 주 방문 요일/시간대는 ‘토요일 오후(54.9%)’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요일/오후(26.8%)’, 토요일/오전(2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토요일 오후에 박물관을 방문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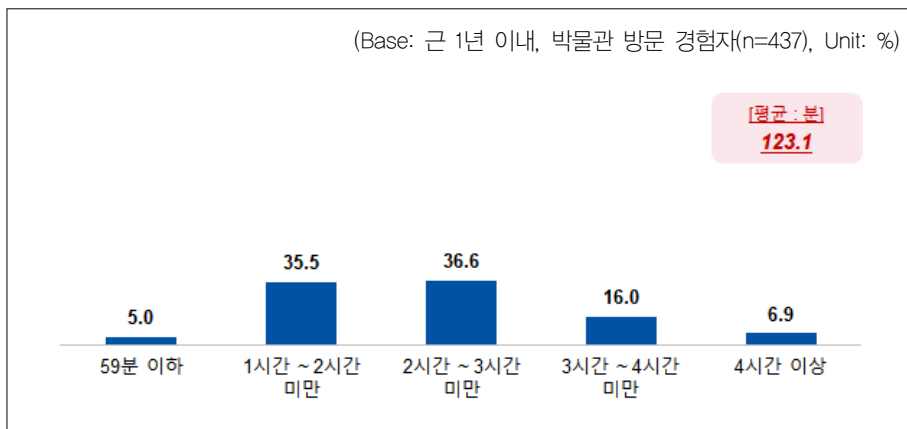
최근 1년 이내, 박물관 방문 경험자의 9.4%만이 오후 6시 이후 박물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거주자가 중소도시, 읍면지역보다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자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 직업별로는 학생의 오후 6시 이후의 박물관 방문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박물관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37)	9.4	90.6
지역규모	대도시	(205)	11.7	88.3
	중소도시	(153)	7.2	92.8
	읍면지역	(79)	7.6	92.4
연령	만 15~19세	(29)*	10.3	89.7
	만 20~29세	(71)	18.3	81.7
	만 30~39세	(96)	5.2	94.8
	만 40~49세	(128)	7.0	93.0
	만 50세 이상	(113)	9.7	90.3
직업	직장인	(291)	8.9	91.1
	학생	(46)	13.0	87.0
	전업주부	(42)	7.1	92.9
	자영업자/기타	(58)	10.3	89.7

6) 평균 체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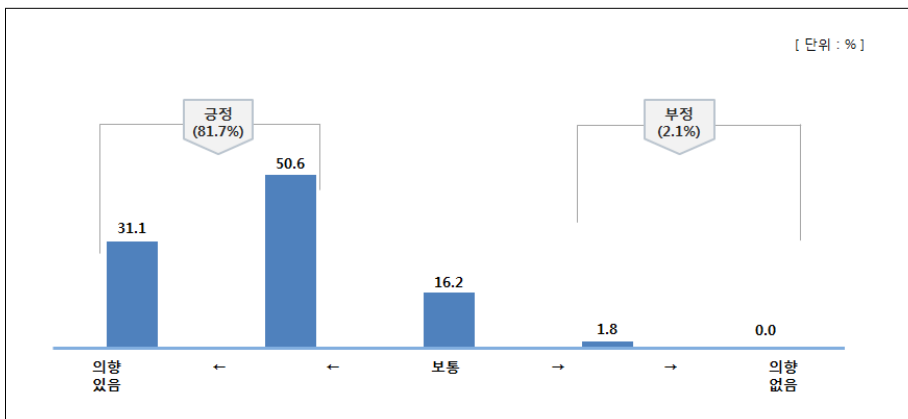
[그림 4-23] 박물관 평균 체류시간

박물관 방문자의 평균 체류 시간은 123.1 분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방문 시, 평균 ‘2시간~3시간 미만(36.6%)’ 체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다음 순으로 ‘1시간~2시간 미만(35.5%)’이 높으며, ‘4시간 이상’ 체류하는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들은 1시간~2시간 미만(45.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중소도시는 2시간~3시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는 1시간~2시간 미만 체류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직장인과 전업주부의 경우 1시간~2시간 미만의 체류시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박물관 향후 방문의향

박물관 방문 경험자의 81.7%(방문 의향 매우 있음 51.1%+방문 의향 약간 있음 35.8%)는 향후에도 박물관을 방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읍면지역(77.2%)의 향후 방문의향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65.5%)의 방문 의향이 타 연령대의 방문의향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도 10대 연령이 속한 학생들의 방문의향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방문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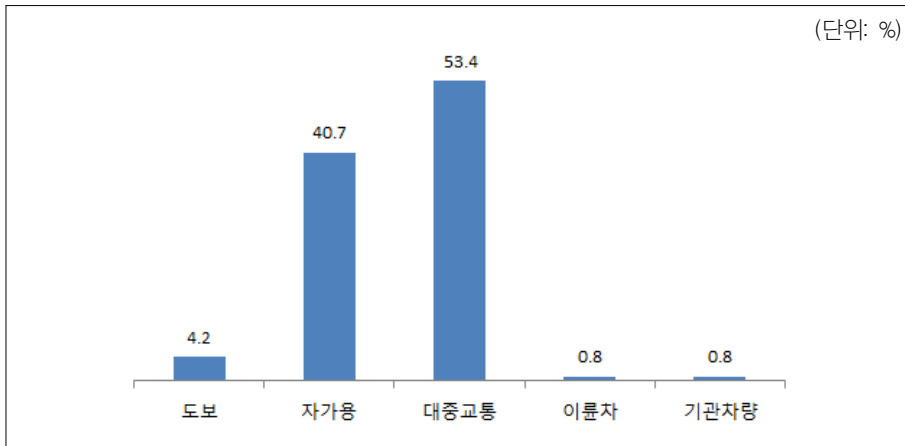


[그림 4-24] 박물관 향후 방문 의향

라. 미술관 이용 현황

미술관 이용 현황은 최근 1년 이내 미술관 방문 경험자(n=356명)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이동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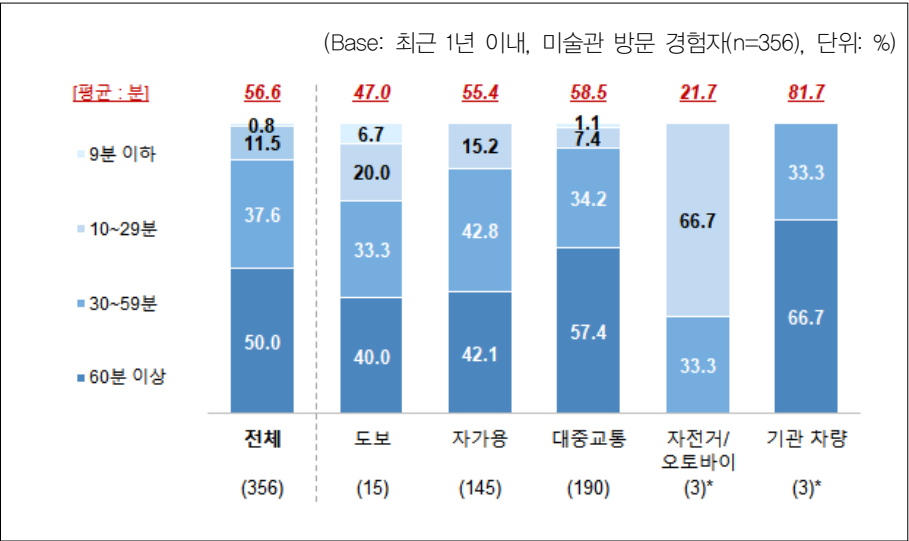


[그림 4-25] 미술관 이동수단

미술관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대중교통(53.4%)’, 다음으로 ‘자가용(40.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읍면지역(63.3%)의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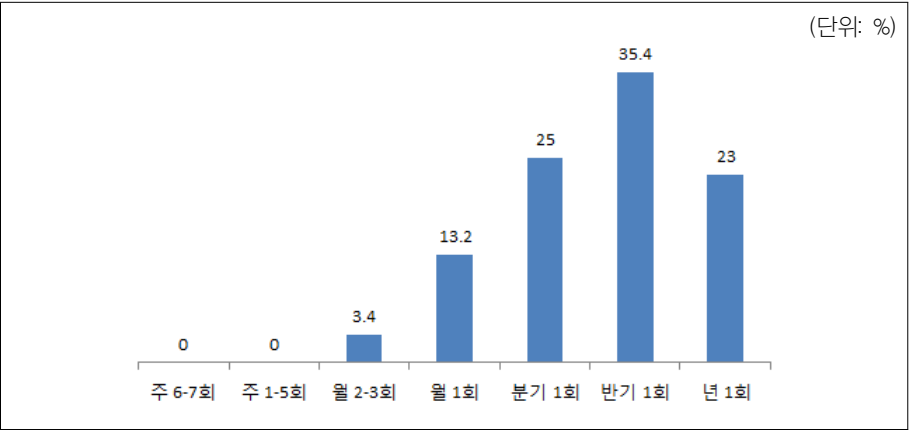
2) 이동시간

이동수단과 상관없이 미술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평균 56.6분이었다. 미술관 방문 시 ‘60분 이상’ 이동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0~59분(37.6%)’ 순으로 나타나 박물관 이동시간 패턴과 유사하였다. 이동수단별로는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47분이 소요되었고, 자가용은 55.4분, 대중교통은 58.5분, 이륜차 21.7분, 기관차량은 81.7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미술관 이동 시간

3) 방문빈도



[그림 4-27] 미술관 방문 빈도

박물관 이용자의 방문 빈도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 이내 ‘반기(6개월)별 1회(35.4%)’, ‘분기(3개월)별 1회(25%)’, ‘1년에 1회(23%)’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방문의 주기가 다소 길어 1년에 1회 방문자(36.7%)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직업별로는 큰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30대와 직장인이 반기 1회 정도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방문요일/시간

〈표 4-10〉 미술관 방문 요일/시간대

(Base: 최근 1년 이내, 박물관 방문 경험자(n=437), 단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4.5	18.5	17.1
오후	19.4	51.7	27.5
저녁 및 야간	4.2	3.9	1.4
계	28.1	74.1	46

미술관 주 방문 요일/시간대는 ‘토요일 오후(51.7%)’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요일/오후(27.5%)’, 평일/오후(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일요일 오후 방문빈도가 높은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토요일 오후의 방문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의 일요일 오후 방문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평일 오후 방문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5)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

최근 1년 이내, 미술관 방문 경험자의 14.4%가 오후 6시 이후 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거주자가 중소도시, 읍면지역보다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자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 직업별로는 학생의 오후 6시 이후의 박물관 방문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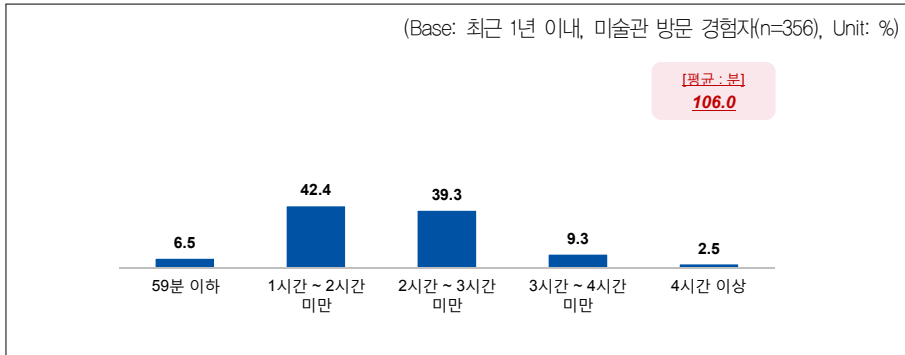
〈표 4-11〉 미술관 오후 6시 이후 방문 경험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356)	14.3	85.7
지역규모	대도시	(187)	19.8	80.2
	중소도시	(120)	9.2	90.8
	읍면지역	(49)	6.1	93.9
연령	만 15~19세	(37)	24.3	75.7
	만 20~29세	(82)	20.7	79.3
	만 30~39세	(85)	10.6	89.4
	만 40~49세	(77)	10.4	89.6
	만 50세 이상	(75)	10.7	89.3
직업	직장인	(217)	12.9	87.1
	학생	(59)	23.7	76.3
	전업주부	(27)*	3.7	96.3
	자영업자/기타	(53)	15.1	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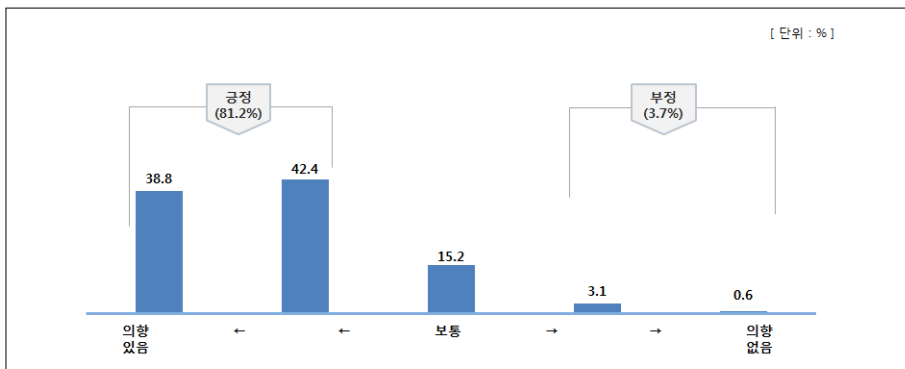
6) 평균 체류시간

미술관 방문자의 평균 체류 시간은 106 분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방문 시, 평균 체류 시간은 ‘1시간~ 2시간 미만(42.4%)’, ‘2시간~3시간 미만(39.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시간 이상’ 체류한다는 비율은 2.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1시간~2시간 미만 체류비율이 51%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체류시간도 중소도시가 가장 길고, 읍면지역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평균 체류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평균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8] 미술관 평균 체류시간

7) 미술관 향후 방문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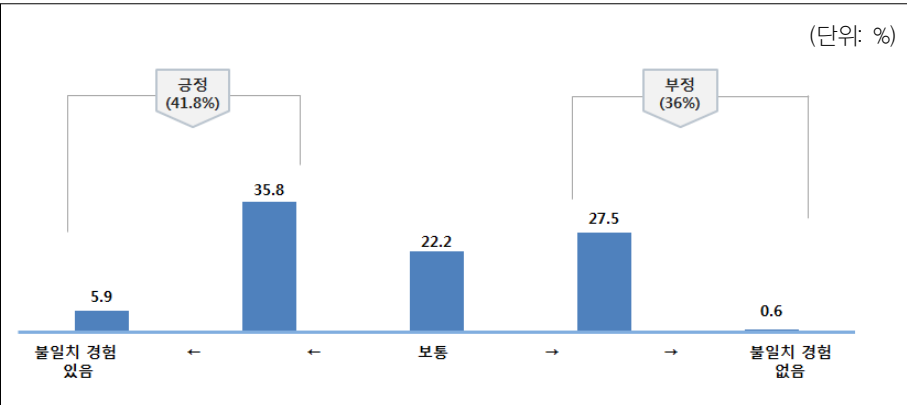
[그림 4-29] 미술관 향후 방문의향

미술관 방문 경험자의 81.2%(방문 의향 매우 있음 38.8% + 방문 의향 약간 있음 42.4%)는 향후에도 미술관 방문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대도시(82.4%)와 중소도시(83.3%) 거주자의 방문의향이 읍면지역(7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90.7%)의 향후 방문의향이 가장 높았고, 10대(56.8%)의 향후 방문의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66.1%)과 전업주부(70.4%)의 향후 방문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직장인(85.3%)과 자영업 및 기타(86.8%)에서 향후 방문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 관련 의견

가. 이용시간 불일치 경험



[그림 4-30] 이용시간 불일치 경험

〈표 4-12〉 이용시간 불일치 경험

(단위: %, 점)

		사례수	부정	긍정	5점 평균
전체		(1,300)	36.0	41.8	3.03
지역규모	대도시	(556)	34.0	46.2	3.12
	중소도시	(484)	36.4	39.3	2.98
	읍면지역	(260)	39.6	36.9	2.93
성별	남	(666)	39.2	36.8	2.92
	여	(634)	32.6	47.0	3.14
연령	만 15~19세	(108)	41.7	39.8	2.88
	만 20~29세	(255)	32.5	44.7	3.10
	만 30~39세	(283)	32.5	44.9	3.13
	만 40~49세	(328)	34.5	40.9	3.05
	만 50세 이상	(326)	41.4	38.3	2.92

		사례수	부정	긍정	5점 평균
전체		(1,300)	36.0	41.8	3.03
직업	직장인	(798)	34.0	43.2	3.08
	학생	(184)	38.0	42.9	2.99
	전업주부	(121)	43.8	36.4	2.88
	자영업자/기타	(197)	37.6	38.1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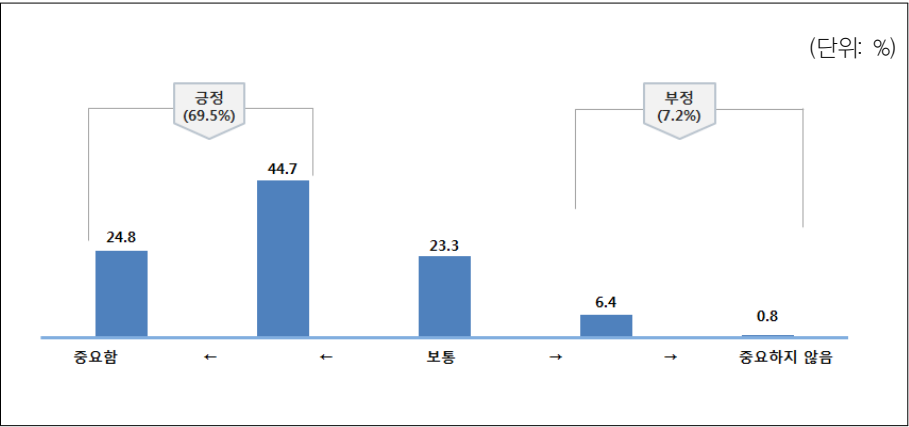
이용하고자 할 때 문화기반시설 방문 시 문이 닫혀서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1.8%(매우 그렇다 5.9% + 약간 그렇다 35.8%)로 나타났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자는 36%(전혀 그렇지 않다 8.5% + 거의 그렇지 않다 22.2%)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불일치 경험이 41.8%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39.3%, 읍면지역 3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4.9%)의 불일치 경험이 가장 높았고, 20대(44.7%), 40대(40.9%)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43.3%), 직장인(42.9%)이 불일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용시간 일치의 중요도

개인이 이용 가능한 시간과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이 일치하는 것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9.5%(매우 중요 24.8% + 약간 중요 44.7%)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72.1%)와 중소도시(70%)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읍면지역(62.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 이용시간 일치의 중요도

연령별로는 중요도 응답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학생, 전업주부의 중요도 응답은 비슷하였으나, 자영업자 및 기타 사람들의 중요도 응답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이용시간 일치의 중요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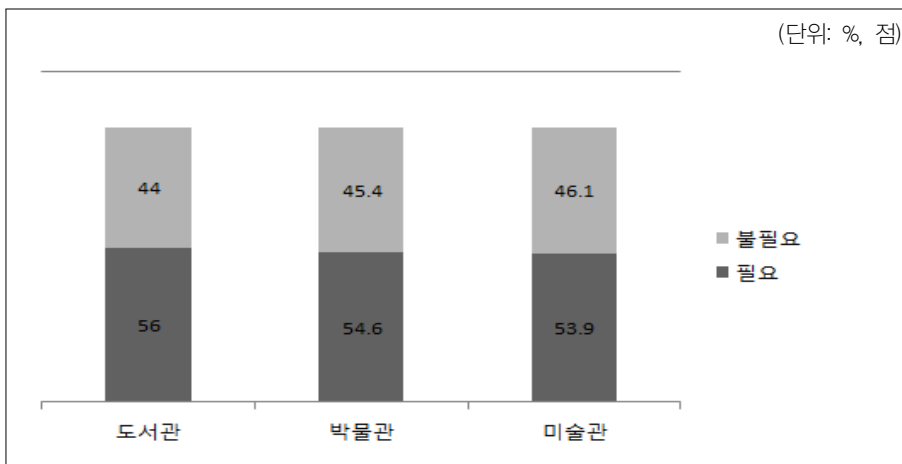
		사례수	부정	긍정	5점 평균
전체		(1,300)	7.2	69.5	3.86
지역규모	대도시	(556)	7.2	72.1	3.91
	중소도시	(484)	7.0	70.0	3.87
	읍면지역	(260)	7.7	62.7	3.76
성별	남	(666)	9.2	64.4	3.77
	여	(634)	5.2	74.8	3.96
연령	만 15~19세	(108)	5.6	71.3	3.94
	만 20~29세	(255)	9.8	71.4	3.89
	만 30~39세	(283)	8.5	67.1	3.84
	만 40~49세	(328)	5.8	68.3	3.82
	만 50세 이상	(326)	6.1	70.6	3.87

		사례수	부정	긍정	5점 평균
전체		(1,300)	7.2	69.5	3.86
직업	직장인	(798)	6.9	70.2	3.88
	학생	(184)	8.2	72.3	3.93
	전업주부	(121)	5.0	74.4	3.87
	자영업자/기타	(197)	9.1	60.9	3.72

다. 개방시간 조정의 필요 여부

문화기반시설별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도서관 56.0%, 박물관 54.6%, 미술관 53.9%)은 개방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별로 도서관은 대도시에서 개방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읍면지역에서 개방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20대, 40대의 개방시간 조정 필요성 인식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직장인, 자영업 및 기타에서 개방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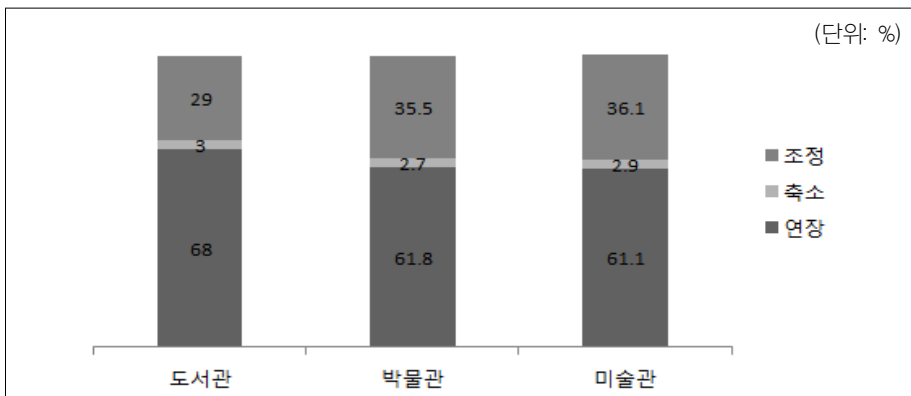
[그림 4-32] 문화기반시설별 개방시간 조정 필요 여부

〈표 4-14〉 문화기반시설별 개방시간 조정 필요 여부

(단위: %, 점)

개방시간 조정 필요함		사례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체		(1,300)	56.0	54.6	53.9
지역규모	대도시	(556)	58.6	55.9	54.1
	중소도시	(484)	53.7	55.4	55.2
	읍면지역	(260)	54.6	50.4	51.2
성별	남	(666)	55.4	53.0	50.8
	여	(634)	56.6	56.3	57.3
연령	만 15~19세	(108)	44.4	44.4	41.7
	만 20~29세	(255)	54.5	52.9	54.9
	만 30~39세	(283)	59.7	57.2	58.0
	만 40~49세	(328)	60.4	56.4	55.5
	만 50세 이상	(326)	53.4	55.2	52.1
직업	직장인	(798)	60.4	57.6	57.4
	학생	(184)	45.1	45.7	45.1
	전업주부	(121)	46.3	47.1	44.6
	자영업자/기타	(197)	54.3	55.3	53.8

라. 개방시간 조정의 방향성



[그림 4-33] 문화시설별 개방시간 조정 방향

문화기반시설별 개방시간 조정 방향에 대해 도서관(68.0%), 박물관(61.8%), 미술관(61.1%) 모두 ‘개방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무조건 연장을 하기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서관(29%), 박물관(35.5%), 미술관(36.1%)로 나타났다.

1) 도서관

세부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연장 의견이 다소 적고,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0대에서 개방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이 높았으며, 30대와 20대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전업주부 층에서 개방시간 연장 의견이 높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15〉 도서관 개방시간 조정의 방향

(단위: %, 점)

		사례수	개방시간 연장	개방시간 축소	여건에 따라 조정
전체		(728)	68.0	3.0	29.0
지역규모	대도시	(326)	68.4	3.1	28.5
	중소도시	(260)	68.5	2.7	28.8
	읍면지역	(142)	66.2	3.5	30.3
연령	만 15~19세	(48)	72.9	2.1	25.0
	만 20~29세	(139)	65.5	3.6	30.9
	만 30~39세	(169)	66.3	2.4	31.4
	만 40~49세	(198)	68.2	3.0	28.8
	만 50세 이상	(174)	70.1	3.4	26.4
직업	직장인	(482)	66.8	3.1	30.1
	학생	(83)	74.7	2.4	22.9
	전업주부	(56)	76.8	1.8	21.4
	자영업자/기타	(107)	63.6	3.7	32.7

2) 박물관

〈표 4-16〉 박물관 개방시간 조정의 방향

(단위: %)

		사례수	개방시간 연장	개방시간 축소	여건에 따라 조정
전체		(710)	61.8	2.7	35.5
지역규모	대도시	(311)	61.4	3.2	35.4
	중소도시	(268)	63.4	2.2	34.3
	읍면지역	(131)	59.5	2.3	38.2
연령	만 15~19세	(48)	56.3	4.2	39.6
	만 20~29세	(135)	61.5	4.4	34.1
	만 30~39세	(162)	63.0	2.5	34.6
	만 40~49세	(185)	64.9	2.2	33.0
	만 50세 이상	(180)	59.4	1.7	38.9
직업	직장인	(460)	62.4	2.4	35.2
	학생	(84)	58.3	6.0	35.7
	전업주부	(57)	61.4	1.8	36.8
	자영업자/기타	(109)	62.4	1.8	35.8

박물관 경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개방시간 연장 의견이 가장 적었고, 시설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연장의견 비율이 가장 낮았고, 시설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의 개방시간 연장 의견 비율이 가장 낮았고, 시설에 따라 조정 의견 비율을 모든 직업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3)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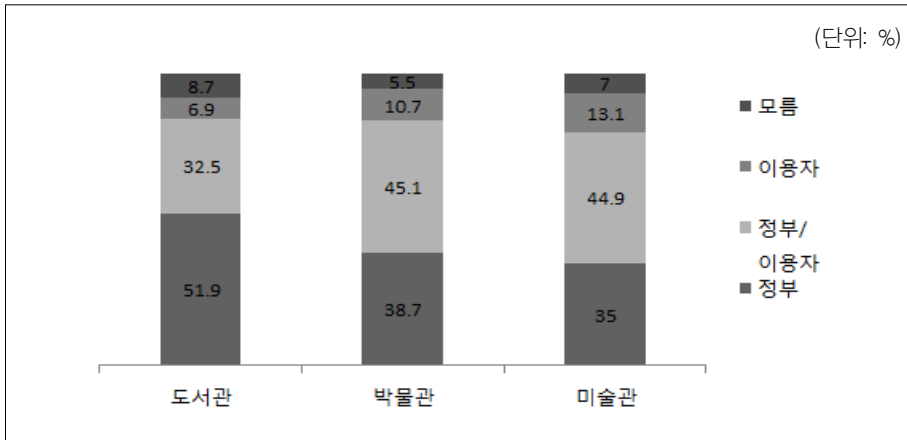
〈표 4-17〉 미술관 개방시간 조정의 방향

(단위: %)

		사례수	개방시간 연장	개방시간 축소	여건에 따라 조정
전체		(701)	61.1	2.9	36.1
지역규모	대도시	(301)	62.8	3.0	34.2
	중소도시	(267)	61.0	1.1	37.8
	읍면지역	(133)	57.1	6.0	36.8
연령	만 15~19세	(45)	62.2	4.4	33.3
	만 20~29세	(140)	65.0	2.9	32.1
	만 30~39세	(164)	59.1	2.4	38.4
	만 40~49세	(182)	60.4	3.8	35.7
	만 50세 이상	(170)	60.0	1.8	38.2
직업	직장인	(458)	60.5	2.4	37.1
	학생	(83)	65.1	3.6	31.3
	전업주부	(54)	57.4	3.7	38.9
	자영업자/기타	(106)	62.3	3.8	34.0

미술관은 지역별로 도서관과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서 연장 의견 비율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연장 의견 비율이 가장 낮았고, 여건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연장 의견 비율이 가장 낮았고,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 개방시간 연장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



[그림 4-34] 개방시간 연장 비용부담 주체

문화기반시설별 개방시간 연장 시, 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도서관’은 ‘정부가 전담’ 해야 한다는 의견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이용자가 분담(32.5%)’해야 한다는 순이며, ‘이용자가 전담’ 해야 한다는 의견은 6.9%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정부/이용자가 분담’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가 전담’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7%로 다음 순으로 높았다. ‘미술관’ 또한 박물관과 유사하게 ‘정부/이용자가 부담’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정부가 전담’ 해야 한다는 응답이 35.0%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전담’ 해야 한다는 의견이 13.1%로 ‘도서관’, ‘박물관’ 대비 높게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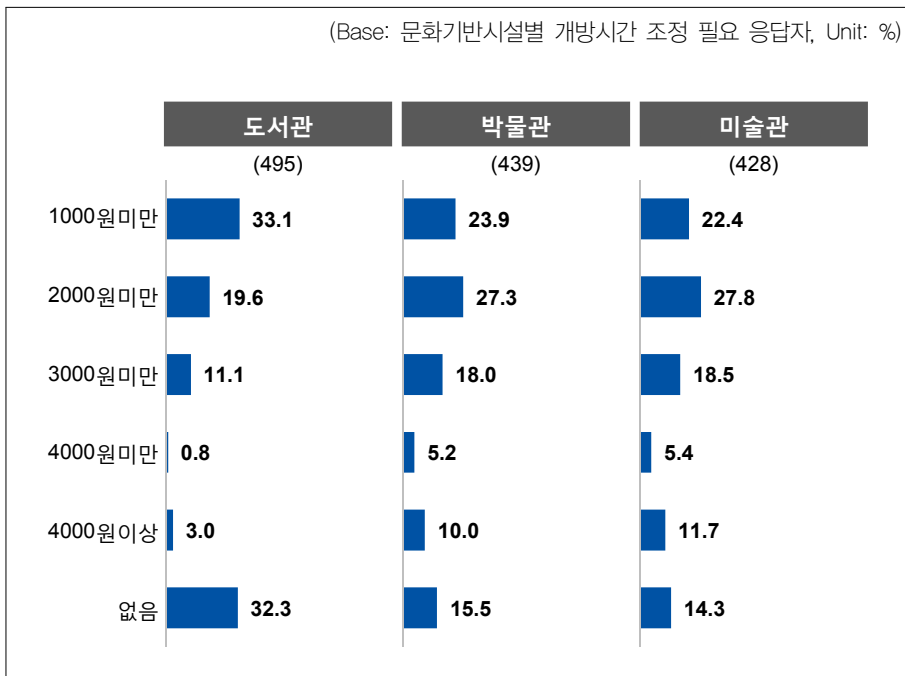
바. 개방시간 연장 지불의사 비용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연장 시, 1회 최대 지불 비용으로 ‘도서관’은 ‘1,000원 미만(33.1%)’이 가장 높으며, ‘없음(32.3%)’이라는 의견이 다음 순으로 높았다.

‘박물관’은, ‘2,000원 미만(27.3%)’, ‘1,000원 미만(23.9%)’ 순으로 최대 지불 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전체 응답자의 10.0%는 ‘4,000원 이상’ 지불 가능하

다고 응답하였다.

‘미술관’은, ‘박물관’과 유사하게 ‘2,000원 미만(27.3%)’, ‘1,000원 미만(23.9%)’ 순으로 최대 지불 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4,000원 이상’ 지불 가능하다고 응답률은 14.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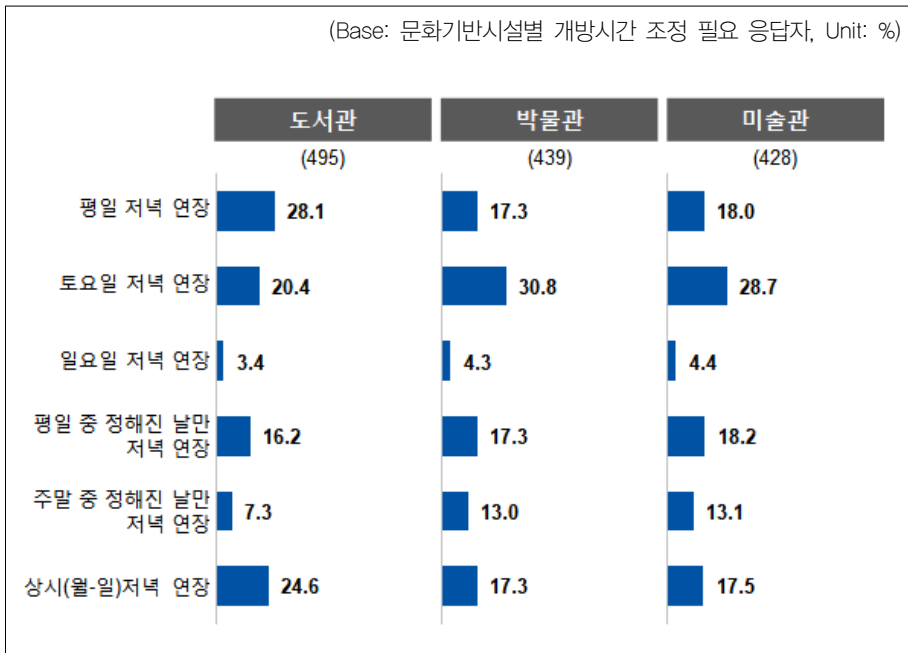


[그림 4-35] 개방시간 연장 지불의사 금액

사. 선호하는 개방시간 연장 구간

‘도서관은 평일 저녁 연장(28.1%)’, ‘상시(월-일) 저녁 연장(24.6%)’, ‘토요일 저녁 연장(20.4%)’ 순으로 개방시간 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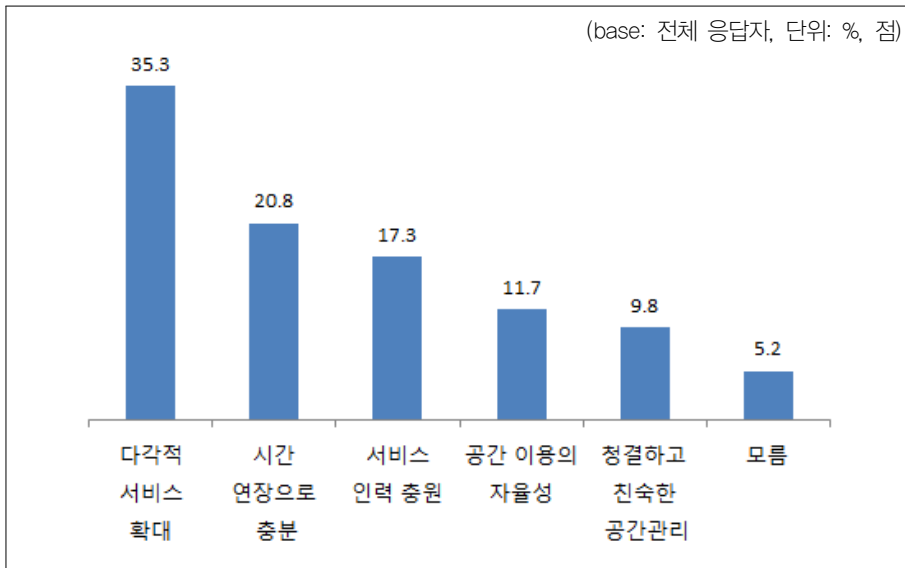
‘박물관(30.8%)’과 ‘미술관(28.7%)’은 ‘토요일 저녁 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6] 선호하는 개방시간 연장 구간

아. 개방시간 연장 시 이용객을 위한 고려 사항

문화기반 시설 개방시간 연장 시, 이용객을 위해 추가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연장된 시간에 다각적인 서비스가 기획되어야 한다(35.5%)’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방시간 연장만 이루어지면 충분하다(20.8%)’, ‘서비스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17.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7] 개방시간 연장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자. 개방시간 연장 불필요 이유

시설별로 개방시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개방시간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도서관(n=233) 개방시간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로 ‘개방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33.0%)’, ‘현재 개방시간만으로 충분(29.6%)’ 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박물관(n=271) 또한 ‘개방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32.8%)’이 연장 불필요 이유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미술관(n=273)은 ‘도서관’, 박물관과 유사하게 ‘개방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28.6%)’, ‘개방시간을 늘린다고 이용객이 늘지 않을 것(25.3%)’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표 4-18〉 개방시간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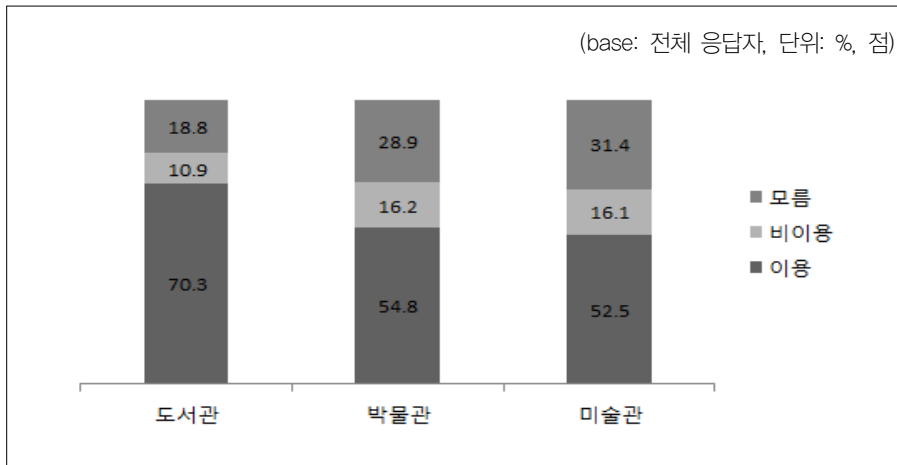
	도서관 (n=223)	박물관 (n=271)	미술관 (n=273)
개방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33.0	32.8	28.6
개방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이용객이 늘지 않을 것이다	29.6	22.1	25.3
개방시간 연장으로 연장된 시간만큼 운영하는데 비용(세금)이 더 들 것이다	18.5	21.8	22.3
현재 개방시간만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16.7	21.4	21.6
기타	2.1	1.8	2.2

차. 개방시간 연장 시 이용의향

1) 개방시간 연장 시 이용 의향

저녁, 야간, 주 7일 등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을 연장 조정 시, ‘도서관’은 전체 응답자의 70.3%는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박물관’은 54.8%, ‘미술관’은 52.5%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도서관의 경우, 중도도시의 거주자의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도시의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개방시간 연장 시, 문화기반시설 별(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향후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도서관은 10대, 박물관과 미술관은 40대의 이용의향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도서관은 직업과 무관하게 이용 의향이 높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8] 개방시간 연장 시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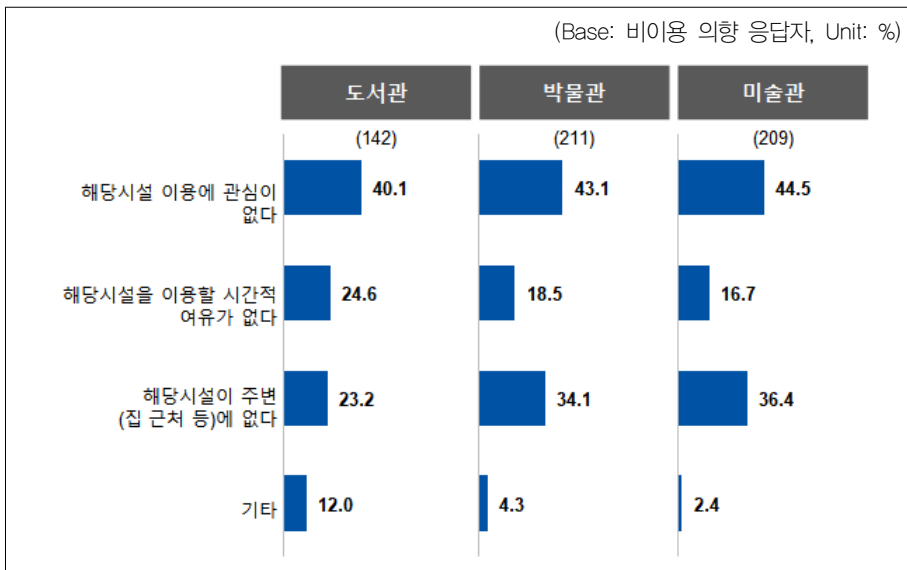
〈표 4-19〉 개방시간 연장 시 이용 의향

(단위: %, 점)

향후 이용 의향		사례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체		(1,300)	70.3	54.8	52.5
지역규모	대도시	(556)	69.6	56.5	55.0
	중소도시	(484)	73.3	56.0	52.9
	읍면지역	(260)	66.2	49.2	46.5
성별	남	(666)	65.9	53.5	48.6
	여	(634)	74.9	56.3	56.6
연령	만 15~19세	(108)	73.1	39.8	38.9
	만 20~29세	(255)	67.1	52.5	54.5
	만 30~39세	(283)	72.4	61.8	60.4
	만 40~49세	(328)	71.3	54.0	50.6
	만 50세 이상	(326)	69.0	56.4	50.6
직업	직장인	(798)	70.3	57.8	56.5
	학생	(184)	71.2	44.6	45.7
	전업주부	(121)	70.2	48.8	40.5
	자영업자/기타	(197)	69.5	56.3	50.3

2) 개방시간 연장 비이용 이유

개방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이용 이유를 알아보았다. 도서관은 ‘해당시설 이용에 관심 없음(40.1%)’,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24.6%)’, ‘주변에 없음(23.2%)’ 순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해당시설 이용에 관심 없음(43.4%)’이 가장 높으며, ‘주변에 없음(34.1%)’ 또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술관도 박물관과 유사하게 ‘해당시설 이용에 관심 없음(44.5%)’, ‘주변에 없음(3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9] 개방시간 연장 비이용 이유

6. 문화기반시설 이용 가능 시간

가. 주중/주말 문화시설 이용 가능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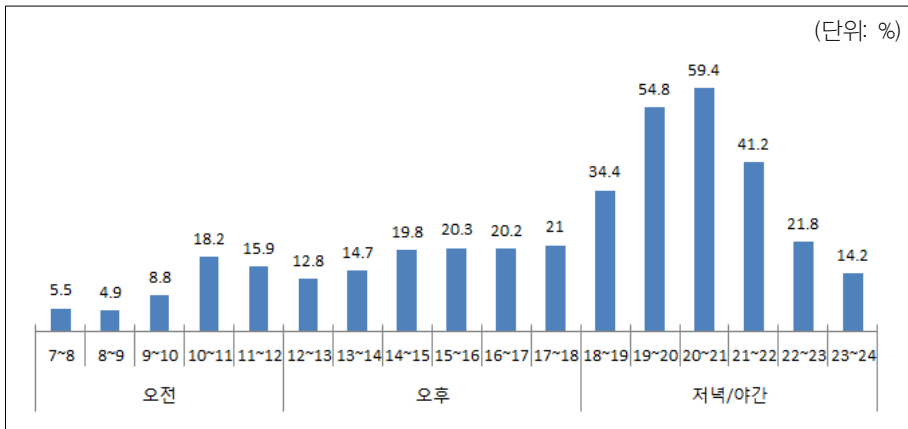
〈표 4-20〉 문화시설 이용 가능 시간

(단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7~8	5.5	6.7	6.8
	8~9	4.9	9.0	9.4
	9~10	8.8	18.7	17.5
	10~11	18.2	33.4	32.9
	11~12	15.9	34.1	33.6
오후	12~13	12.8	30.8	30.8
	13~14	14.7	43.0	41.8
	14~15	19.8	54.8	53.4
	15~16	20.3	57.2	57.2
	16~17	20.2	52.7	54.5
	17~18	21.0	48.7	48.9
저녁 및 야간	18~19	34.4	44.7	41.5
	19~20	54.8	47.8	43.1
	20~21	59.4	44.8	38.2
	21~22	41.2	32.9	27.2
	22~23	21.8	18.6	14.3
	24~25	14.2	12.2	9.7

1) 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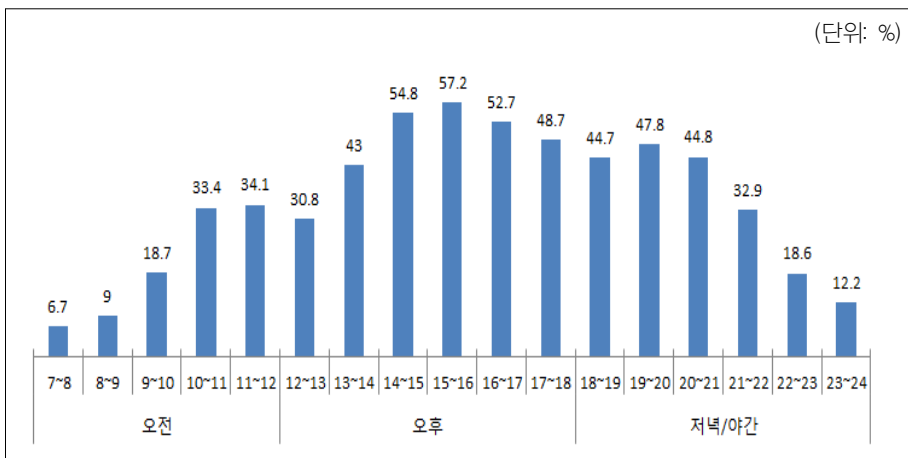
평일(월~금) 중 문화기반시설별 이용 가능 시간대로 ‘20시~21시(59.4%)’, ‘19시~20시(54.8%)’ 구간이 높게 나타나며, 다음 순으로 ‘21시~22시(41.2%)’ 구간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0] 문화기반시설 이용가능시간_평일

2)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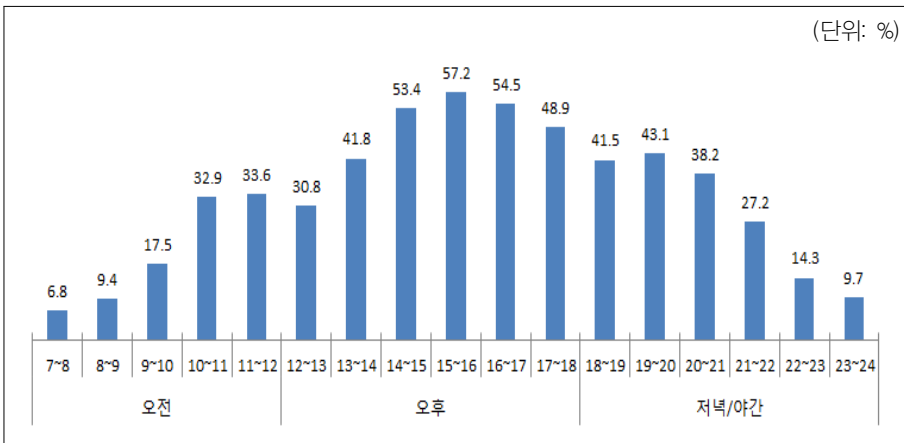
토요일 중 이용 가능 시간대로 오후 ‘15시~16시(57.2%)’, ‘14시~15시(54.8%)’, ‘16시~17시(52.7%)’순으로 이용 가능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저녁/야간 시간 중 ‘19시~20시(47.8%)’, ‘20시~21시(44.8%)’, ‘18시~19시(44.7%)’에도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림 4-41] 문화기반시설 이용가능시간_토요일

3) 일요일

일요일 중 이용 가능 시간대로 오후 ‘15시~16시(57.2%)’, ‘16시~17시(54.5%)’, ‘14시~15시(53.4%)’의 응답이 높았으며, 저녁/야간 중 이용 가능 시간대는 18시~19시(41.5%), 19시~20시(43.1%)를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4-42] 문화기반시설 이용 가능 시간 일요일

나. 문화시설별 이용 가능 시간

시설 서비스의 특성과 시설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대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화시설별 이용 가능 시간대를 살펴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설별 방문의향이 있는 사람의 이용 가능 시간대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1) 도서관

평일 기준, 도서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대는 ‘20시~21시(63.5%)’, ‘19시~20시(58.4%)’가 높게 나타났다.

토요일 기준, 도서관 향후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대로 ‘15시~16시

(58.6%)', '16시~17시(55.3%)', '14시~15시(54.6%)' 순으로 오후 시간대의 응답이 높으며, 또한 '19시~20시(53.3%)', '20시~21시(50.5%)'의 저녁/야간 시간대 응답도 높았다.

일요일 기준, 도서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대는 '15시~16시(58.2%)', '16시~17시(56.9%)', '14시~15시(54.2%)', '17시~18시(52.3%)' 순으로 오후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4-21〉 도서관 방문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중복 응답, n=914)

(단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7~8	6.1	7.3	7.4
	8~9	4.9	9.6	10
	9~10	8.4	18.8	18.1
	10~11	18.1	35.3	33.6
	11~12	16.8	36.1	34.9
오후	12~13	13	32.2	31.2
	13~14	14	43.7	42.8
	14~15	18.9	54.6	54.2
	15~16	20.4	58.6	58.2
	16~17	21.2	55.3	56.9
	17~18	22.4	51.9	52.3
저녁 및 야간	18~19	36.5	48.5	44.4
	19~20	58.4	53.3	47.8
	20~21	63.5	50.5	41.8
	21~22	44.7	37	31.2
	22~23	23.4	20.6	16.2
	24~25	15.3	13.1	10.8

2) 박물관

평일 기준, 박물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대는 ‘20시~21시(66.6%)’, ‘19시~20시(59.7%)’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토요일 기준, 박물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대는 ‘15시~16시(55.8%)’, ‘16시~17시(52.7%)’, ‘14시~15시(52.0%)’, ‘17시~18시(50.9%)’ 순이었고, ‘19시~20시(56.7%)’, ‘20시~21시(53.2%)’의 저녁/야간 시간대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 기준, 박물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대는 ‘15시~16시(55.7%)’, ‘16시~17시(54.6%)’, ‘14시~15시(53.2%)’, ‘17시~18시(50.8%)’ 순이었다.

〈표 4-22〉 박물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중복 응답, n=713)

(단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7~8	5	6.6	7
	8~9	3.9	10	10
	9~10	7.3	19.1	18.7
	10~11	16.7	35.3	35.3
	11~12	14.4	35.5	34.9
오후	12~13	11.8	32.1	31.4
	13~14	12.2	42.6	41.5
	14~15	16.1	52	53.2
	15~16	17.4	55.8	55.7
	16~17	17.8	52.7	54.6
	17~18	19.9	50.9	50.8
저녁 및 야간	18~19	34.8	50.4	46.6
	19~20	59.7	56.7	50.1
	20~21	66.6	53.2	44.7
	21~22	45.6	38.6	32.7
	22~23	22.6	20.9	16.7
	24~25	16	13.7	11.5

3) 미술관

평일 기준, 미술관 방문 의향자의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20시~21시(67.2%)’, ‘19시~20시(61.6%)’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기준, 미술관 방문 의향자의 토요일 이용 가능 시간대는 오후 ‘15시~16시(55.6%)’, ‘16시~17시(52.9%)’, ‘14시~15시(52.4%)’, ‘17시~18시(51.7%)’ 순이었고, 저녁 및 야간은 ‘19시~20시(57.8%)’, ‘20시~21시(54.5%)’ 순이었다.

일요일 기준 미술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대로 ‘15시~16시(55.3%)’, ‘16시~17시(54.2%)’, ‘14시~15시(53.6%)’ 순으로 오후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3〉 미술관 방문 의향자의 이용 가능 시간(중복 응답, n=683)

(단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7~8	5.4	6.7	7.3
	8~9	4.4	9.5	10
	9~10	7.2	19	18
	10~11	16.3	34.1	34
	11~12	13.6	35.7	34.8
오후	12~13	11.7	32.4	31.5
	13~14	11.7	43.8	41.3
	14~15	15.5	52.4	52.6
	15~16	16.1	55.6	55.3
	16~17	17.1	52.9	54.2
	17~18	20.8	51.7	51.7
저녁 및 야간	18~19	36.7	51.5	47.9
	19~20	61.6	57.8	50.1
	20~21	67.2	54.5	44.9
	21~22	45.8	39.5	33.4
	22~23	23.9	22.3	18.2
	24~25	17	14.9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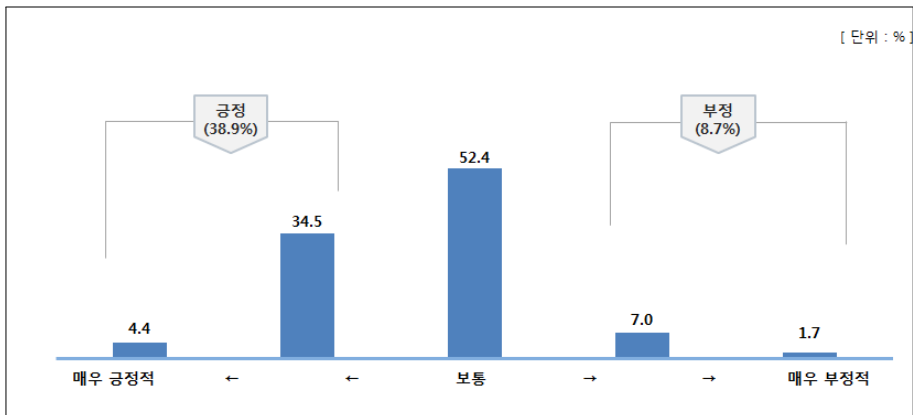
7. 문화기반시설 일반

가. 문화기반시설 운영

1)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적절성 인식

현재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8.9%(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4.4% + 약간 잘 이루어지고 있음 34.5%)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4%,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응답자는 8.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도시의 긍정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와 50대 이상의 긍정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및 기타에서 긍정 비율이 비교적 크게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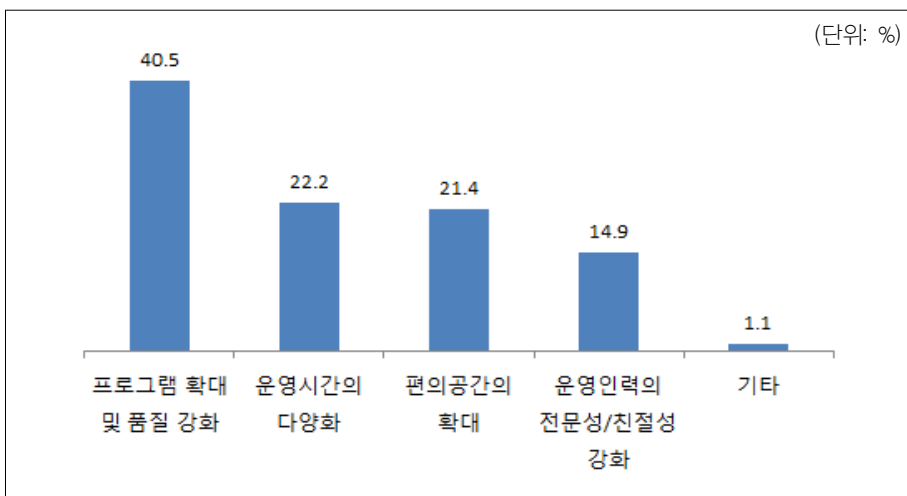
[그림 4-43] 현재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적절성

2)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우선순위

문화기반시설 운영 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요소로 ‘프로그램 확대 및 품질 강화(40.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운영시간 다양화(22.2%)’, ‘편의공간의 확대(2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도시의 경우 ‘운영시간 다양화(25.2%)’ 응답비율이 타지역 대비 높으며, 읍면지역은 편의 공간의 확대(22.3%), 운영인력의 전문성/친절성 강화(20%)에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편의 공간(36.1%)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직장인(43%)과 전업주부(47.9%)의 프로그램 확대와 품질 강화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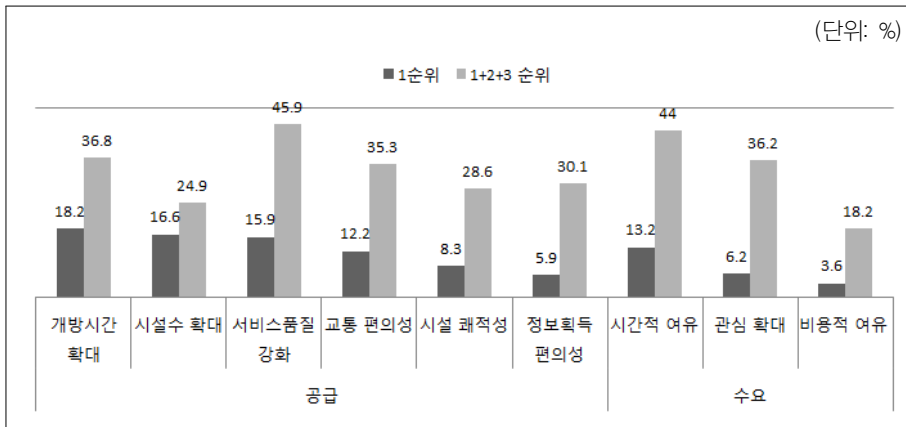


[그림 4-44]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우선순위

나. 문화기반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1순위 기준으로 국민들이 문화기반시설을 더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적 요소로 ‘시설의 개방시간 확대(18.2%)’, ‘시설의 숫자 확대(16.6%)’, ‘서비스 품질 개선(15.9%)’ 순으로 나타났고, 수요적 요소로는 시간적 여유(13.2%)가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1~3순위 기준, 공급적 요소는 서비스 품질 강화(45.9%), 개방시간 확대(36.8%), 교통 편의성 증대(35.3%)로 나타났고, 수요적 요소는 시간적 여유(44%)와 관심 확대(36.2%)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5] 문화기반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다. 국립 문화시설 무휴관 정책 관련

1) 국립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 무휴관 지속 필요성

현재 일부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주 7일 개방(무휴관) 하는 방침에 대해 ‘지속할 필요가 응답’한 비율은 51.3%,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8.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들이 무휴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의 필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필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자영업자의 필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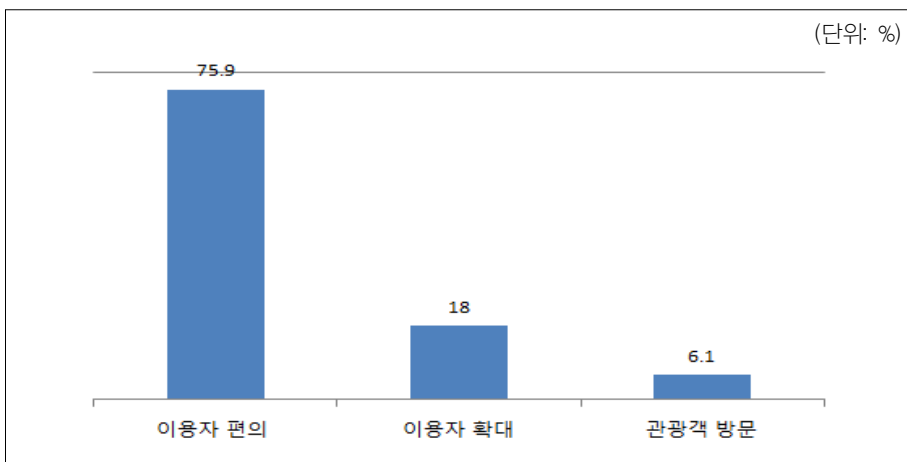
〈표 4-24〉 국립 문화시설 무휴관 정책의 지속 필요여부

(단위: %, 점)

		사례수	필요	불필요
전체		(1,300)	51.3	48.7
지역규모	대도시	(556)	52.5	47.5
	중소도시	(484)	51.0	49.0
	읍면지역	(260)	49.2	50.8

		사례수	필요	불필요
전체		(1,300)	51.3	48.7
성별	남	(666)	49.2	50.8
	여	(634)	53.5	46.5
연령	만 15~19세	(108)	47.2	52.8
	만 20~29세	(255)	46.7	53.3
	만 30~39세	(283)	50.5	49.5
	만 40~49세	(328)	48.5	51.5
	만 50세 이상	(326)	59.8	40.2
직업	직장인	(798)	49.5	50.5
	학생	(184)	46.7	53.3
	전업주부	(121)	61.2	38.8
	자영업자/기타	(197)	56.9	43.1

2) 국립 문화시설 무휴관 정책의 지속 필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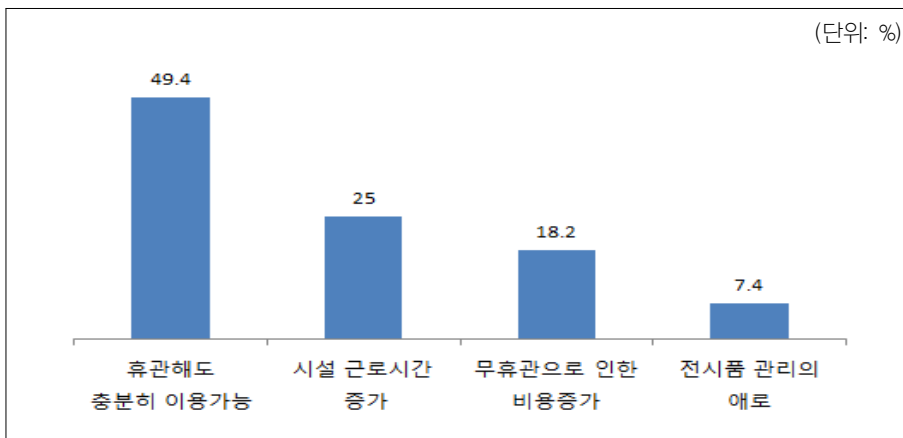


[그림 4-46] 무휴관 정책의 지속 필요 이유

무휴관 정책의 지속 필요 이유로 ‘이용자가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방문하고 싶은 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75.9%)’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3) 무휴관 정책의 불필요 이유

반면, 주 7일 개방(무휴관) 지속 불필요 이유로 ‘정기휴관일이 있어도 충분히 이용 가능(49.4%)’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시설 근로자의 장기근로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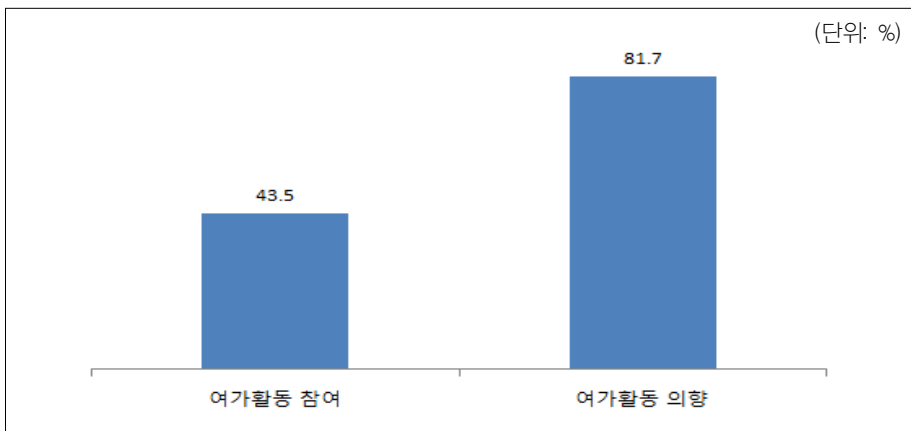
[그림 4-47] 무휴관 정책 불필요 이유

제3절

수요 심층 분석

수요 심층 분석에서는 수요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수요의 증가를 대략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일과 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과 향후 잠재적인 확장 가능성을 파악해 보고, 공공문화시설의 연장 개방에 따른 사용 의향여부에 따라 공공문화시설 개방의 연장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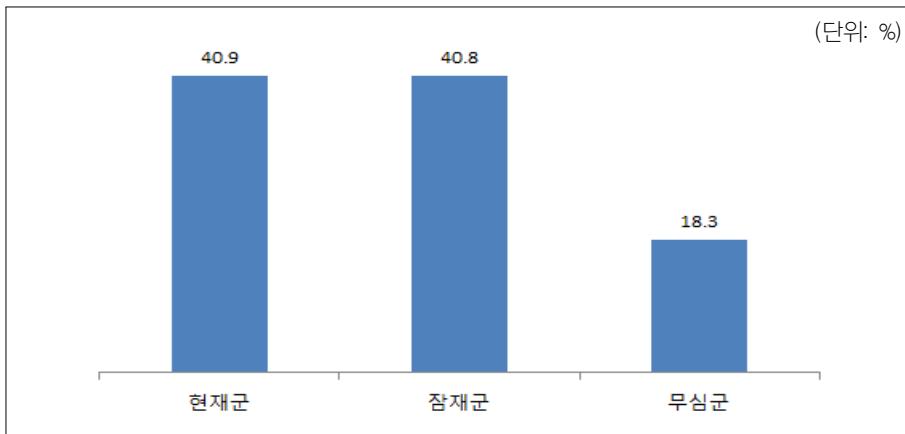
1. 여가활동 확장 가능성 분석



[그림 4-48] 일과 후 여가활동 참여와 참여 의향 비교

일과 후 현재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43.5%인데 비해, 앞으로 일과 후

여가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7%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고, 이와 같은 차이는 일과 후 여가활동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더 세밀하게 일과 후 여가활동에 따라 현재 일과 후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을 ‘현재군’으로, 일과 후 여가활동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 집단을 ‘잠재군’으로, 일과 후 여가활동을 현재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의향이 없는 집단을 ‘무심군’으로 규정하고 분석한 결과, 현재군은 40.9%인데, 잠재군이 40.8%로 잠재군이 현재군과 거의 같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서 여가활동의 확장 가능성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49] 여가활동 참여와 의향여부에 따른 여가활동 집단 구분

여가활동 확장의 대상 등을 알아보기 위해 더 나아가 여가활동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가활동 현재군은 여자에서 높았고, 10대, 20대에서 높았으며, 미혼에서 높았고, 대도시에서 높았으며, 고학력에서 높았으며, 학생에서 높았고, 주 5일 근무제 적용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가활동의 잠재군은 30대, 40대, 50대 이상에서 높았고, 기혼에서 높았으며, 중소도시, 농임어업, 자영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25〉 여가활동 집단별 통계학적 특성 분석

구분		여가활동 3집단		
		잡재군	현재군	무심군
성별	남자	41.0%	39.2%	19.8%
	여자	40.5%	42.7%	16.7%
연령	만 15-19세	32.4%	50.0%	17.6%
	만 20-29세	31.8%	50.2%	18.0%
	만 30-39세	44.5%	34.6%	20.8%
	만 40-49세	43.9%	35.4%	20.7%
	만 50세 이상	44.2%	41.7%	14.1%
결혼	기혼	48.5%	35.3%	16.2%
	미혼	32.4%	47.0%	20.6%
지역규모	대도시	39.2%	43.0%	17.8%
	중소도시	45.2%	38.0%	16.7%
	읍면지역	35.8%	41.9%	22.3%
학력	고교이하	38.9%	39.3%	21.8%
	대학	41.1%	40.9%	18.0%
	대학원	41.9%	43.9%	14.2%
직업	농/임/어업	45.5%	18.2%	36.4%
	자영업	48.8%	41.9%	9.3%
	판매/영업/서비스직	41.0%	31.1%	27.9%
	제조/생산/기능/노무직	38.1%	41.3%	20.6%
	사무/관리/전문직	43.0%	40.5%	16.5%
	전업 주부	40.5%	38.8%	20.7%
	학생	34.2%	50.0%	15.8%
	무직/퇴직/기타	32.0%	37.0%	31.0%
주5일근무	적용	42.0%	42.3%	15.7%
	비적용	39.1%	39.1%	21.8%
전체		40.8%	40.9%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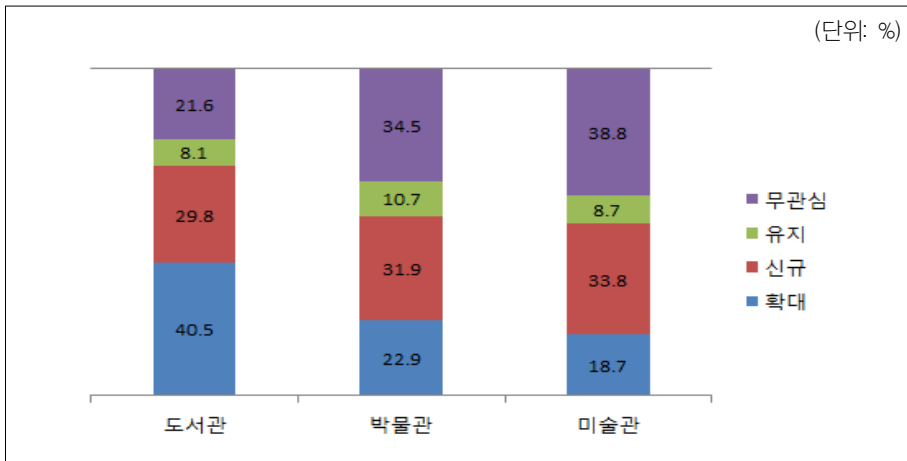
2.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이용 확대 가능성 분석

개방시간 연장으로 수요자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 현재 상태와 개방 시간 연장의 상태에서의 참여 특성을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4-26〉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집단 구분

집단 구분	설명
확대 이용군	현재 이용하고 있으면서 개방시간 연장에 따라 이용을 증대시킬 집단
신규 이용군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개방시간 연장에 따라 이용하기 시작할 집단
이용 유지군	현재 이용하고 있으면서 개방시간 연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집단
무관심 군	현재도 이용하고 있지 않고 개방시간이 연장돼도 이용하지 않을 집단

분석결과, 도서관의 경우 확대 이용군이 40.5%로, 신규이용군은 29.3%로 나타나서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도서관의 연장 개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의 경우 확대 이용군이 22.9%, 신규이용군은 31.9%로 나타나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박물관의 연장 개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술관의 경우 확대 이용군이 18.7%로, 신규이용군은 33.8%로 나타나서 역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술관의 연장 개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기존에 이용자층이 많고 생활문화공간의 성격이 강한 도서관에서 연장개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급문화공간의 성격이 강한 박물관과 미술관도 연장개방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4-50]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자 집단의 비율

1) 도서관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자 변화

전체적으로는 인구사회적 특성에 의한 차이가 크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연장 개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확대이용군은 여자에서 높았고, 10대, 고학력집단, 전업주부와 학생 집단에서 높았고, 일과 후 여가활동의 현재군에서 높았다. 신규이용군은 농임어업에서 45.5%로 높았고, 여가활동의 잠재군에서 33.2%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7〉 도서관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집단 특성 분석

구분		도서관 이용집단			
		확대이용군	신규이용군	이용유지군	무관심군
성별	남자	36.8%	29.1%	8.0%	26.1%
	여자	44.5%	30.4%	8.2%	16.9%
연령	만 15-19세	49.1%	24.1%	13.9%	13.0%
	만 20-29세	37.6%	29.4%	7.5%	25.5%
	만 30-39세	41.0%	31.4%	7.8%	19.8%
	만 40-49세	41.8%	29.6%	8.2%	20.4%
	만 50세 이상	38.3%	30.7%	6.7%	24.2%

구분		도서관 이용집단			
		확대이용군	신규이용군	이용유지군	무관심군
기혼	기혼	41.4%	31.2%	7.9%	19.6%
	미혼	39.6%	28.3%	8.3%	23.8%
지역규모	대도시	40.8%	28.8%	7.6%	22.8%
	중소도시	44.0%	29.3%	8.3%	18.4%
	읍면지역	33.5%	32.7%	8.8%	25.0%
학력	고교이하	29.6%	31.5%	10.1%	28.8%
	대학	42.2%	29.4%	8.2%	20.2%
	대학원	49.3%	29.1%	4.1%	17.6%
직업	농/임/어업	18.2%	45.5%	0%	36.4%
	자영업	36.0%	39.5%	3.5%	20.9%
	판매/영업/서비스직	32.8%	39.3%	4.9%	23.0%
	제조/생산/기능/노무직	36.5%	27.0%	4.8%	31.7%
	사무/관리/전문직	39.9%	30.9%	7.7%	21.5%
	전업 주부	47.1%	23.1%	11.6%	18.2%
	학생	48.4%	22.8%	11.4%	17.4%
	무직/퇴직/기타	36.0%	29.0%	9.0%	26.0%
주5일근무	적용	40.5%	30.5%	7.7%	21.2%
	비적용	40.5%	28.7%	8.6%	22.1%
여가활동 3집단	잠재군	39.6%	33.2%	7.9%	19.2%
	현재군	48.1%	26.3%	8.1%	17.5%
	무심군	25.6%	29.8%	8.4%	36.1%
전체		40.5%	29.8%	8.1%	21.6%

2) 박물관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자 변화

박물관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확대이용군의 규모가 늘어났고, 농림어업과 판매영업서비스직에서 신규이용군의 규모가 높았고, 일과 후 여가활동의 잠재군에서 신규이용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5일 근무제 적용 집단

에서 확대이용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28〉 박물관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집단 특성 분석

구분		박물관 이용집단			
		확대이용군	신규이용군	이용유지군	무관심군
성별	남자	23.3%	30.2%	11.0%	35.6%
	여자	22.6%	33.8%	10.4%	33.3%
연령	만 15-19세	14.8%	25.0%	12.0%	48.1%
	만 20-29세	19.2%	33.3%	8.6%	38.8%
	만 30-39세	23.7%	38.2%	10.2%	27.9%
	만 40-49세	25.3%	28.7%	13.7%	32.3%
	만 50세 이상	25.5%	31.0%	9.2%	34.4%
기혼	기혼	26.7%	31.5%	11.3%	30.6%
	미혼	18.8%	32.4%	10.1%	38.7%
지역규모	대도시	25.5%	30.9%	11.3%	32.2%
	중소도시	21.5%	34.5%	10.1%	33.9%
	읍면지역	20.0%	29.2%	10.4%	40.4%
학력	고교이하	14.8%	28.8%	10.5%	45.9%
	대학	23.4%	31.8%	10.6%	34.2%
	대학원	34.5%	37.8%	11.5%	16.2%
직업	농/임/어업	9.1%	45.5%	9.1%	36.4%
	자영업	33.7%	32.6%	4.7%	29.1%
	판매/영업/서비스직	19.7%	39.3%	9.8%	31.1%
	제조/생산/기능/노무직	19.0%	31.7%	11.1%	38.1%
	사무/관리/전문직	26.6%	31.8%	11.1%	30.6%
	전업 주부	21.5%	27.3%	13.2%	38.0%
	학생	13.0%	31.5%	12.0%	43.5%
	무직/퇴직/기타	15.0%	33.0%	8.0%	44.0%
주5일근무	적용	27.2%	32.0%	11.2%	29.6%
	비적용	17.3%	31.8%	10.0%	40.9%

구분		박물관 이용집단			
		확대이용군	신규이용군	이용유지군	무관심군
여가활동 3집단	잠재군	21.7%	34.5%	11.5%	32.3%
	현재군	28.6%	31.6%	11.1%	28.8%
	무심군	13.0%	26.9%	8.0%	52.1%
전체		22.9%	31.9%	10.7%	34.5%

3) 미술관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자 변화

미술관의 경우, 확대이용군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았고, 다른 지역보다 대도시에서 높았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자영업과 사무관리전문직에서 높았으며, 주5일근무 적용집단과 일과 후 여가활동의 현재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규이용군은 30대, 40대, 50대 이상에 높았으며, 판매영업서비스직, 제조생산기능노무직에서 높았고, 일과 후 여가활동의 잠재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29〉 미술관 개방 연장에 따른 이용집단 특성 분석

구분		박물관 이용집단			
		확대이용군	신규이용군	이용유지군	무관심군
성별	남자	15.3%	33.3%	8.3%	43.1%
	여자	22.2%	34.4%	9.1%	34.2%
연령	만 15-19세	18.5%	20.4%	15.7%	45.4%
	만 20-29세	22.7%	31.8%	9.4%	36.1%
	만 30-39세	21.6%	38.9%	8.5%	31.1%
	만 40-49세	15.2%	35.4%	8.2%	41.2%
	만 50세 이상	16.6%	34.0%	6.4%	42.9%
기혼	기혼	15.4%	37.1%	8.0%	39.5%
	미혼	22.2%	30.4%	9.4%	38.0%

구분		박물관 이용집단			
		확대이용군	신규이용군	이용유지군	무관심군
지역규모	대도시	24.8%	30.2%	8.8%	36.2%
	중소도시	15.9%	37.0%	8.9%	38.2%
	읍면지역	10.8%	35.8%	8.1%	45.4%
학력	고교이하	7.0%	34.2%	7.0%	51.8%
	대학	19.7%	33.3%	9.6%	37.4%
	대학원	33.1%	36.5%	6.1%	24.3%
직업	농/임/어업	9.1%	36.4%	9.1%	45.5%
	자영업	23.3%	34.9%	9.3%	32.6%
	판매/영업/서비스직	9.8%	42.6%	4.9%	42.6%
	제조/생산/기능/노무직	9.5%	39.7%		50.8%
	사무/관리/전문직	22.0%	35.6%	8.0%	34.4%
	전업 주부	9.9%	30.6%	12.4%	47.1%
	학생	19.0%	26.6%	13.0%	41.3%
	무직/퇴직/기타	15.0%	29.0%	8.0%	48.0%
주5일근무	적용	21.6%	35.9%	7.8%	34.6%
	비적용	14.8%	31.1%	9.8%	44.3%
여가활동 3집단	잠재군	15.3%	37.9%	9.1%	37.7%
	현재군	26.3%	33.1%	9.2%	31.4%
	무심군	9.2%	26.5%	6.7%	57.6%
전체		18.7%	33.8%	8.7%	38.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개인 시간 관련 일반 사항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필수 유지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 중 ‘여가시간(문화, 체육, 관광, 오락/취미 등)’을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하루 일과 끝난 후 여가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경우가 절반이 되지 않으며, 여가활동으로 ‘미디어(인터넷, 게임, 책, TV 등) 취미 활동’과 ‘체육(운동, 산책 등) 관련 취미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특별히 하고 있는 여가활동이 없다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며 문화예술관련 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는 약 16% 정도였다.

그러나 전체의 80% 이상이 하루 일과 끝난 후에 여가활동을 할 의향은 있다고 응답하여, 시간적 또는 체력적인 등의 이유로 현재는 못 하고 있으나 일과 후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큰 것으로 보인다.

2. 일상의 구조

일상의 시간구조를 살펴보면, 평일기준으로 여가활동은 20시~21시(56.2%), 21~22시(59.6%), 22시~23시(47.5%), 19시~20시(40.7%) 순으로 저녁/야간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녁/야간 시간에 의무 활동의 비율을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줄어드는 일관적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고, 필수/유지활동과 여가활동

은 여가활동이 늘어나면, 유지활동이 줄어들고, 유지활동이 늘어나면 여가활동이 줄어드는 상호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주말 기준으로는 오전에는 필수 유지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오후로 접어들면서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주말 저녁/야간이 되어도 여가활동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문화기반시설 이용 현황

1) 접근성

우선, 문화기반시설 최근 1년 이내 방문 경험률은 도서관 49%, 박물관 34%, 미술관 27%로 나타나고 있었다. 도서관은 학생과 전업주부의 방문이 높았고, 박물관은 직장인과, 전업주부, 미술관은 학생과 직장인의 방문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주변에 이용 가능한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인지하고 있는 인지적 가용성(availability)의 경우, 도서관은 79%, 박물관은 38.8%, 미술관은 34.1%로 도서관의 가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접근성도 가용성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가장 높았으며, 박물관, 미술관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도서관, 박물관의 지리적 접근성인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미술관의 지리적 접근성은 대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가용한 시간과 시설의 개방시간의 일치를 나타내는 시간접근성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용한 시간이 의무활동의 배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과 중 의무활동이 많은 직장인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시간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서비스접근성은 읍면지역 거주자, 30대, 자영업자 표본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접근성, 지리적접근성, 서비스접근성 모두를 고려했을 때 문화기반시설 충분도는 도서관이 가장 높았고, 박물관 미술관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영

업자와 직장인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서비스의 충분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접근성 긍정 비율

긍정(4+5점)	사례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리 접근성	(1300)	64%	16%	14%
시간 접근성	(1300)	60%	21%	17%
서비스 접근성	(1300)	45%	22%	19%
충분도	(1300)	56%	23%	20%

2) 도서관 이용(이용자, n=632)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는 도보의 비율(37.7%)이 가장 높았으나, 읍면 지역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동수단과 상관없이 도서관으로 가는 평균 소요시간은 22.3분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월 2~3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요일은 토요일이었고, 시간대는 오후시간(12~18시) 이었다. 도서관에 한번 방문해서 평균 체류하는 시간은 127.7분이었다.

그리고 40% 정도는 6시 이후 저녁 시간에 도관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었고, 자영업자와 학생들의 6시 이후 방문 경험 비율이 높았다.

3) 박물관 이용(이용자, n=437)

박물관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동수단은 자가용(54.5%)이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동수단과 상관없이 박물관으로 가는 평균 소요시간은 59분이었고, 대다수의 사람은 3개월 ~ 1년에 1회 정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요일은 토요일이었고, 시간대는 오후시간(12~18시) 이었다. 일요일 오후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박물관에 방문해서 평균 체류하는 시간은 123.1분이었다. 오후 6시 이후 방문경험자는 9.4%로 나타났다.

4) 미술관 이용(이용자, n=356)

미술관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동수단은 대중교통(53.4%)이었다. 읍면지역은 자가용(63.3%)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동수단과 상관없이 미술관으로 가는 평균 소요시간은 56.6분이었고, 대다수의 사람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3개월 ~ 1년에 1회 정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요일은 토요일이었고, 시간대는 오후시간(12~18시) 이었다. 일요일 오후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박물관에 방문해서 평균 체류하는 시간은 106분이었다. 오후 6시 이후 방문경험자는 14.4%로 나타났다.

4.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 관련

이용시간 일치가 시설 이용에 중요하다는 응답(69.5%)이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약 42%가 이용 가능 시간에 문화기반시설의 문이 닫혀서 이용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의 과반 수 이상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개방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60% 이상이 현재보다 개방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30% 정도의 응답자는 조정은 하되, 각 시설의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31〉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개방시간 조정 필요성

	사례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필요하다	(1300)	56%	55%	54%

〈표 4-32〉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개방시간 조정방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례수	(728)	(710)	(701)
현재보다 개방시간 연장	68%	62%	61%
현재보다 개방시간 축소	3%	3%	3%
각 시설 여건에 따라 조정	29%	36%	36%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경우 절반 정도가 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도서관에 비해 정부+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표 4-33〉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개방시간 연장 비용부담 주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례수	(495)	(439)	(428)
정부가 전담	52%	39%	35%
정부+이용자가 부담	33%	45%	45%
이용자가 전담	7%	11%	13%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1회 최대 지불 비용으로는 도서관의 경우 없음 32%, 1,000만원 미만 33%로 추가 비용 지불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2,000원 미만’이 가장 높으며 ‘3,000원 미만’도 약 18%로 꽤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4-34〉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지불비용 순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례수	(495)	(439)	(428)
1순위	1000원(33.1%)	2000원(27.3%)	2000원(27.8%)
2순위	0원(32.3%)	1000원(23.9%)	1000원(22.4%)
3순위	2000원(19.6%)	3000원(18.0%)	3000원(18.5%)

선호하는 연장 구간은 도서관은 평일 저녁 연장이 가장 높았으며, 박물관 미술관은 토요일 저녁 연장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도서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평일 저녁 연장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업주부들은 3개 시설 모두에서 상시개방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4-35〉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이용 선호 시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례수	(495)	(439)	(428)
1순위	평일 저녁(28.1%)	토요일 저녁(30.8%)	토요일 저녁(28.7%)
2순위	상시(24.6%)	특정 평일(17.3%)	특정 평일(18.2%)
3순위	토요일 저녁(20.4%)	평일저녁, 상시(17.3%)	평일 저녁(18%)

문화시설의 개방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같이 고려될 사항으로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서비스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 연장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음이었다.

한편,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n=233)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하는 이유로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장되어도 이용객이 없을 것이다’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연장 시, 향후 이용 의향은 도서관 70%, 박물관 55%, 미술관 53%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개방 연장이 되더라도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는 해당시설 이용에 관심이 없다가 가장 높으며, 도서관은 다음으로 해당시설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박물관/미술관은 해당시설이 주변에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5. 문화기반시설 이용 가능 시간

문화기반시설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는 평일 기준 20시~21시가 가장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15~16시이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18시 이후 21시까지 약 40%가량이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 4-36〉 문화시설 이용 가능 시간

(단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1순위	20시~21시(59.4)	15시~16시(57.2)	15시~16시(57.2)
2순위	19시~20시(54.8)	14시~15시(54.8)	16시~17시(54.5)
3순위	18시~19시(34.4)	16시~17시(52.7)	14시~15시(53.4)

도서관 방문의향자의 이용가능시간은 평일 19시~22시까지 비율이 높았고, 주말은 오후시간에 이용 가능한 시간 분포가 많았다.

6. 문화기반시설 일반

문화기반시설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질문한 결과 전체의 39%만이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해 ‘프로그램 확대 및 품질 강화’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영시간의 다양화’, ‘편의공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문화기반시설을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필요사항 1순위로 ‘해당 시설의 개방 시간 확대’가 1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해당 시설의 숫자 확대’,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주 7일 개방(무휴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이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속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용자가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방문하고 싶은 요일에 이용할 수 있어서’가 가장 높은 반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기휴관일이 있어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의 응답이 많았다.

7. 수요 심층 분석

향후 여가활동 수요를 대략적으로 예측해본 결과, 현재의 100% 수준에서

여가활동 참여가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중소도시의 30대~50대, 자영업자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개방시간 연장으로 인한 이용자의 예상되는 변화는 신규 이용의 증가와 현재 이용자의 확대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확대이용과 신규이용을 합치면 도서관이 현재 수준에서 70.2% 이용 증가, 박물관은 54.5% 이용증가, 미술관은 52.5% 이용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도서관은 현재 이용의 확대가 많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신규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예상은 수요자 입장에서 자신의 집 주변에 가용한 해당시설을 염두에 두고 응답한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모든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이 개방시간을 연장했을 때 예측되는 숫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부 시설의 개방시간 연장의 효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제5장

종합진단 및 정책 여건 분석

제1절

수요-공급 종합 진단

1. 문화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문화시설 현재 이용시간은 현재 문화시설 공급시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 미래 조정과 관련된 정책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수다. 미래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요 가능시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 시간접근성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점은 의무활동 등 고정된 활동이다. 일상의 구조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 평일 오전과 오후는 의무 활동으로 채워져 있어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자신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을 쓰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시간 구간은 저녁 19시부터 23시까지였다.

〈표 5-1〉 일상의 시간 구조 및 문화시설 이용 가능한 시간대 (단위: %)

		일상의 시간구조 (평일기준)	문화시설 이용가능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7시~8시	유지, 의무활동	5,5	6,7	6,8
	8시~9시		4,9	9,0	9,4
	9시~10시	의무 활동	8,8	18,7	17,5
	10시~11시		18,2	33,4	32,9
	11시~12시		15,9	34,1	33,6

		일상의 시간구조 (평일기준)	문화시설 이용가능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13시	의무활동(평일)	12.8	30.8	30.8
	13시~14시		14.7	43.0	41.8
	14시~15시		19.8	54.8	53.4
	15시~16시		20.3	57.2	57.2
	16시~17시		20.2	52.7	54.5
	17시~18시		21.0	48.7	48.9
저녁/ 야간	18시~19시	의무활동	34.4	44.7	41.5
	19시~20시	여가활동	54.8	47.8	43.1
	20시~21시		59.4	44.8	38.2
	21시~22시		41.2	32.9	27.2
	22시~23시		21.8	18.6	14.3
	23시~24시	유지활동	14.2	12.2	9.7

같은 맥락에서 평일 기준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구간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구간은 19시~22시 구간이었다. 주말은 14시~17시 구간이 가장 이용 가능성이 높은 시간 구간이었다. 다만, 주말의 경우 17시~22시(일요일은 21시) 구간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시간 구간이었다.

〈표 5-2〉 문화시설 최적 수요 구간

구분		가용한 최적 구간	비고
여가활동 구간		19시~ 23시	
문화시설 이용가능 구간	평일	19시~ 22시	
	주말	14시~ 17시	17시~22시 구간도 높음

2. 문화서비스 수요-공급 시간 매칭

서비스 수요-공급 시간 매칭 분석을 통해 시설별, 도시규모별로 수요-공급 시간의 미스매치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였다. 가용한 수요 최적 시간구간에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인지 파악해야 해당시간 구간에 대한 개방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직관적인 방식이 아닌 데이터에 의한 방식으로 미스매치 영역을 찾는 것이 정책을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문화서비스 수요-공급 매칭 분석

1) 도서관

〈표 5-3〉 도서관 수요-공급 시간(자료실_평일기준)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6시~7시	0.0	-	1.5	-	1.1	-
7시~8시	1.4	5.4	3.0	6.8	2.3	6.4
8시~9시	95.7	4.1	95.0	5.1	97.7	6.4
9시~10시	99.5	5.7	100.0	10.7	100.0	9.9
10시~11시	99.7	15	100.0	18.6	100.0	23.8
11시~12시	99.7	13.4	100.0	18.9	100.0	20.3
12시~13시	99.7	12.7	100.0	14.6	100.0	10.5
13시~14시	99.7	11.9	100.0	14.6	100.0	17.4
14시~15시	99.7	15.5	100.0	22.3	100.0	19.8
15시~16시	100.0	17.3	100.0	21.1	100.0	25.6
16시~17시	100.0	18.9	100.0	21.1	100.0	26.7
17시~18시	100.0	20.4	100.0	23.4	100.0	25
18시~19시	72.8	38	64.0	38.3	60.7	29.7
19시~20시	64.9	61	55.9	59.2	50.8	51.2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0시~21시	54.9	66.4	49.9	65.1	46.9	53.5
21시~22시	50.8	48.3	47.9	46.5	45.0	33.1
22시~23시	0.3	25.8	1.3	25.6	2.3	13.4
23시~24시	0.0	16.8	0.0	16.9	0.0	8.7

① 평일 기준

평일기준으로 도서관의 공급 시간은 자료실 평일 개방을 기준으로 하였고, 수요 시간 도서관 야간개방 연장 이용 의향자의 평일 수요 가능 시간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의 수요 가능 시간 구간은 저녁/야간 시간대였으며, 이 시간에 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는 도서관도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규모별로 개방 도서관 비율과 수요 가능 비율이 일관되게 줄어들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말 기준

주말기준으로 도서관 공급시간은 자료실 주말 개방을 기준으로 하였고, 수요는 연장 이용의향자의 주말 수요 가능 시간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요자 입장에서 도서관 주말 저녁/야간 의향도 높지만, 공급을 하는 도서관의 수는 많지 않았다.

〈표 5-4〉 도서관 수요-공급 시간(자료실_주말 기준)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6시~7시	0.0	—	1.5	—	1.2	—
7시~8시	1.4	6.7	2.8	7.9	1.9	7.6
8시~9시	93.4	9	92.6	11	96.9	8.1
9시~10시	99.7	17.6	100.0	20.3	100.0	18.6
10시~11시	100.0	32.3	100.0	38.3	100.0	36
11시~12시	100.0	34.6	100.0	40	100.0	31.4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2시~13시	100.0	30.2	100.0	36.9	100.0	26.7
13시~14시	100.0	44.2	100.0	45.4	100.0	39
14시~15시	100.0	54.5	100.0	54.9	100.0	54.1
15시~16시	100.0	59.4	99.7	58.6	99.6	57
16시~17시	84.9	57.9	87.5	54.9	80.2	50
17시~18시	85.5	55.3	81.1	52.7	89.1	42.4
18시~19시	12.6	49.4	16.3	51.5	8.9	40.1
19시~20시	12.6	54.5	16.3	54.6	8.9	47.7
20시~21시	10.1	56.1	15.1	49.6	8.2	40.1
21시~22시	9.0	40.6	12.2	36.9	6.6	29.1
22시~23시	0.5	23.3	0.8	21.4	0.4	12.8
23시~24시	0.0	13.4	0.0	15.5	0.0	7.6

2) 박물관·미술관

박물관과 미술관은 평일/주말의 개방시간 조사되지 않아, 공급시간은 평일/주말을 구분하지 않았고, 수요 가능 시간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공급특성과 이용특성이 비슷하여 박물관은 평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미술관은 주말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5-5〉 박물관 수요-공급 시간(평일 기준)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6시~7시	0	—	0	—	0	—
7시~8시	3	5.7	2.5	7.7	0	6.3
8시~9시	63.6	9.6	84.4	10.7	86.6	9.4
9시~10시	100	16.9	99.2	19.9	99.5	22.7
10시~11시	100	29.9	99.2	39.1	99.5	40.6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1시~12시	100	32,8	99,2	39,5	99,5	33,6
12시~13시	100	29,9	99,2	37,3	99,5	26,6
13시~14시	100	41,7	99,2	45,4	99,5	39,1
14시~15시	100	50,6	100	53,9	100	51,6
15시~16시	100	56,4	100	58,3	99,5	49,2
16시~17시	98,5	55,7	99,2	53,9	98,5	43
17시~18시	28,8	54,1	85,2	53,1	79,6	38,3
18시~19시	0	50,6	0	54,6	1	40,6
19시~20시	0	57	0	57,6	1	53,9
20시~21시	0	58,3	0	50,9	1	45,3
21시~22시	0	42	0	37,6	0,5	32
22시~23시	0	23,9	0	21,8	0,5	11,7
23시~24시	0	14,3	0	16,6	0	6,3

평일기준으로 박물관의 공급시간은 17시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18시에 99% 폐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요 가능시간은 17시 이후 22시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공급 측면에서 17시~18시 이후 개방하고 있는 박물관의 비율이 읍면지역이 많은 반면, 해당시간 수요 가능 비율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았다.

〈표 5-6〉 미술관 수요-공급 시간(일요일 기준)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6시~7시	0		0		0	
7시~8시	0	7,5	0	7,8	0	5,8
8시~9시	6,7	10,8	47,8	10,5	57,1	6,6
9시~10시	93,3	15,4	100	18,8	100	23,1
10시~11시	93,3	33,7	100	34,8	100	33,1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1시~12시	100	35	100	34.8	100	34.7
12시~13시	100	31.4	100	35.2	100	24
13시~14시	100	41.8	100	43.4	100	35.5
14시~15시	100	52.9	100	54.3	100	47.9
15시~16시	100	56.2	100	56.6	100	50.4
16시~17시	100	53.3	100	58.6	100	47.1
17시~18시	100	53.9	100	53.9	100	41.3
18시~19시	0	52	0	48.8	0	35.5
19시~20시	0	52	0	52	0	41.3
20시~21시	0	45.4	0	46.5	0	40.5
21시~22시	0	33.7	0	34.4	0	30.6
22시~23시	0	18.3	0	19.5	0	14.9
23시~24시	0	11.1	0	14.8	0	7.4

주말 기준으로 미술관의 공급시간은 18시에 중단되는 반면, 수요 가능 시간은 18시 이후에도 오후 시간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도시규모가 작아질수록 수요 가능 응답 비율이 낮았다.

나. 문화서비스 수요기회

본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이 수요자의 접근기회를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간측면의 접근기회를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지표가 필요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조정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수요의향자의 시간대별 1관 당 봉사 인구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1관당 봉사 인구수는 수요측면에서 보면 수요의 기회를 의미하고, 1관당 봉사 인구수가 많아지면 공급이 적다는 의미고 이는 곧 수요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의향자의 시간대별 접근 기회를 시간대별 개방되어 있는 시설의 수와 도시규모별 인구수

중 해당 시설 이용 의향자의 비율(잠재수요 인구수)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은 경우 핵심 기능 공간인 자료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서비스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평일 박물관, 주말 미술관을 통해 서비스 기회를 분석하였다.

〈표 5-7〉 수요기회 지표 산출 방식

구분	공급시설수	잠재수요 인구수	1관당 잠재 봉사인구수
시간대별 수요기회 산출 요소	시간대별 개방시설의 수	인구수×시간대별 참여의향 비율	잠재수요인구÷개방시설 수

1) 도서관

도서관 자료실 평일 기준 수요기회를 살펴본 결과, 18시 이후에 수요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공통현상이 나타났고, 시계대별로 일관되게 읍면지역의 수요기회가 높고, 중소도시의 수요기회가 낮게 나타났다.

〈표 5-8〉 도서관 시간대별 수요의향자의 서비스 기회(자료실_평일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전체	368	—	397	—	262	—
6시~7시	0	0	6	0	3	0
7시~8시	5	234,449	12	196,638	6	46,899
8시~9시	352	2,529	377	4,694	256	1,099
9시~10시	366	3,381	397	9,353	262	1,661
10시~11시	367	8,873	397	16,258	262	3,994
11시~12시	367	7,926	397	16,520	262	3,407
12시~13시	367	7,512	397	12,762	262	1,762
13시~14시	367	7,039	397	12,762	262	2,920
14시~15시	367	9,168	397	19,492	262	3,323
15시~16시	368	10,205	397	18,443	262	4,296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16시~17시	368	11,149	397	18,443	262	4,481
17시~18시	368	12,044	397	20,453	262	4,195
18시~19시	268	30,780	254	52,324	159	8,213
19시~20시	239	55,406	222	92,536	133	16,926
20시~21시	202	71,358	198	114,092	123	19,124
21시~22시	187	56,070	190	84,926	118	12,333
22시~23시	1	5,600,720	5	1,776,683	6	98,194
23시~24시	0	0	0	0	0	0

※ 대도시 인구수: 21,708,217명, 중소도시 인구수: 34,700,843명, 읍/면지역 인구수: 4,396,752명

도서관 자료실 주말기준 수요기회를 살펴본 결과, 18시 이후의 수요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도시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수요기회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낮 시간에는 중소도시의 수요기회가 낮았고, 저녁시간에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수요기회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5-9〉 도서관 시간대별 수요의향자의 서비스 기회(자료실_주말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기회	공급	수요기회	공급	수요기회
전체	365	—	392	—	257	—
6시~7시	0	0	6		3	
7시~8시	5	290,890	11	249,215	5	66,831
8시~9시	341	5,729	363	10,515	249	1,430
9시~10시	364	10,496	392	17,970	257	3,182
10시~11시	365	19,210	392	33,904	257	6,159
11시~12시	365	20,578	392	35,409	257	5,372
12시~13시	365	17,961	392	32,665	257	4,568
13시~14시	365	26,288	392	40,189	257	6,672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기회	공급	수요기회	공급	수요기회
14시~15시	365	32,414	392	48,599	257	9,255
15시~16시	365	35,328	391	52,007	256	9,790
16시~17시	365	34,436	391	48,723	256	8,587
17시~18시	310	38,725	343	53,316	206	9,050
18시~19시	53	202,337	74	241,499	28	62,968
19시~20시	46	257,195	64	296,042	23	91,185
20시~21시	37	329,144	59	291,722	21	83,957
21시~22시	33	267,077	48	266,763	17	75,262
22시~23시	2	2,529,007	3	2,475,327	1	562,784
23시~24시	0	0	0	0	0	0

※ 대도시 인구수: 21,708,217명, 중소도시 인구수: 34,700,843명, 읍/면지역 인구수: 4,396,752명

2)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평일기준 수요기회를 살펴본 결과, 18시 이후의 수요기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수요기회는 없거나 희박하였다. 반면, 평일 기준으로 수요의향자의 50% 이상이 19~21시에 수요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10〉 박물관 시간대별 수요의향자의 서비스 기회(평일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6시~7시	0	0	1	0	0	0
7시~8시	0	0	4	667,991	5	55,399
8시~9시	7	297,713	149	24,919	278	1,487
9시~10시	52	70,552	223	30,966	378	2,640
10시~11시	60	108,179	225	60,302	384	4,649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11시~12시	62	114,843	225	60,919	385	3,837
12시~13시	64	101,418	225	57,526	385	3,038
13시~14시	64	141,443	226	69,709	385	4,465
14시~15시	64	171,631	226	82,760	386	5,878
15시~16시	67	182,738	226	89,516	384	5,633
16시~17시	67	180,470	216	86,591	374	5,055
17시~18시	55	213,530	159	115,888	272	6,191
18시~19시	0	0	6	3,157,777	3	595,027
19시~20시	0	0	1	19,987,686	2	1,184,925
20시~21시	0	0	1	17,662,729	2	995,864
21시~22시	0	0	0	0	1	1,406,961
22시~23시	0	0	0	0	1	514,420
23시~24시	0	0	0	0	0	0

※ 대도시 인구수: 21,708,217명, 중소도시 인구수: 34,700,843명, 읍/면지역 인구수: 4,396,752명

미술관 주말(일요일)기준 수요기회를 살펴본 결과, 18시 이후의 수요 기회는 없었다. 반면, 일요일 미술관의 수요 의향은 18시 이후 22시까지 응답자의 30~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5-11〉 미술관 시간대별 수요의향자의 서비스 기회(일요일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6시~7시	0	0	0	0	0	0
7시~8시	0	0	0	0	0	0
8시~9시	7	334,927	20	182,179	30	9,673
9시~10시	52	64,290	59	110,572	85	11,949
10시~11시	60	121,928	63	191,681	93	15,649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공급	수요 기회
11시~12시	62	122,546	63	191,681	93	16,405
12시~13시	64	106,506	64	190,855	93	11,346
13시~14시	64	141,782	64	235,315	93	16,783
14시~15시	64	179,432	64	294,415	93	22,646
15시~16시	67	182,090	62	316,785	95	23,326
16시~17시	67	172,694	62	327,979	95	21,799
17시~18시	55	212,741	60	311,729	73	24,875
18시~19시	0	0	0	0	0	0
19시~20시	0	0	0	0	0	0
20시~21시	0	0	0	0	0	0
21시~22시	0	0	0	0	0	0
22시~23시	0	0	0	0	0	0
23시~24시	0	0	0	0	0	0

※ 대도시 인구수: 21,708,217명, 중소도시 인구수: 34,700,843명, 읍/면지역 인구수: 4,396,752명

3. 문화서비스 개방시간 조정 수요

1) 요소별 개방시간 조정에 관한 의견

조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3개 시설 모두 현재 개방시간에 불만족 하여 개방시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다.

선호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도서관은 평일저녁을 가장 선호하였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주말 저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도서관은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지불 의사는 도서관의 경우 지불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박물관과 미술관은 2,00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3,000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시설의 개방시간이 연장되면 해당 시간에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시설 불문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방시간 연장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종합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모두 개방시간 조정 방향에 대해 야간개방에 대한 의견이 높았고, 도서관은 평일, 박물관 미술관은 주말의 야간개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할 의향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간 연장과 더불어 서비스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개방시간 조정 관련 수요자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12〉 개방시간 조정 관련 주요 요소에 대한 의견 통합

	개방시간 조정 관련 주요 요소				추가 고려사항	잠재수요
	조정방향	선호구간	비용부담	지불 의사		
도서관	연장	평일저녁 주말저녁	정부	1000원 미만	프로그램	현재이용확대
박물관	연장	주말저녁	정부/이용자	2000원 미만	프로그램	신규이용확대
미술관	연장	주말저녁	정부/이용자	2000원 미만	프로그램	

제2절

정책 여건 분석

1. 분석 목적

가. 분석 목적

개방시간 조정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이미 주어진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이라도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주어진 정책 환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의 분석 틀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 정책여건,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 여건, 그리고 서비스의 현장인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 개방시간 조정방안의 현실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나. 분석의 대상

〈표 5-13〉 개방시간 조정 관련 정책여건

	핵심키워드	주요 정책 및 국정기조
수요측면	국민의 시간구조 인구구조 변화	- 주 52시간 근로제 - 지역쇠퇴, 소멸
공급측면	공공 서비스 지역 문화 격차	- 공공서비스 강화 - 양질의 일자리 확대 - 공급의 효율성

1) 수요측면

개방시간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요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설문조사의 특성상 태도를 응답하는 가운데,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다는 점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완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민의 시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제도인 ‘주 52시간 근로제’와 이번 정부의 국정 의 핵심 가치인 ‘포용성’을 개방시간 조정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2) 공급측면

개방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접한 이해당사자는 해당 시설의 서비스 인력이다. 사람이 개입되는 서비스에서 시간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인력의 조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공공부문의 인력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검토는 현실적인 공급 대안을 찾는 데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와 수요측면과도 관련 있으면서 동시에 공급인력과도 관련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검토하였다.

지역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자,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현실적인 방안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의 변화는 지역의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 축소’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시설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정책여건

가. 수요 여건

1) 시간구조의 변화

최근 변화된 수요 여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1,800만에 달하는 근로자의 시간구조가 변화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의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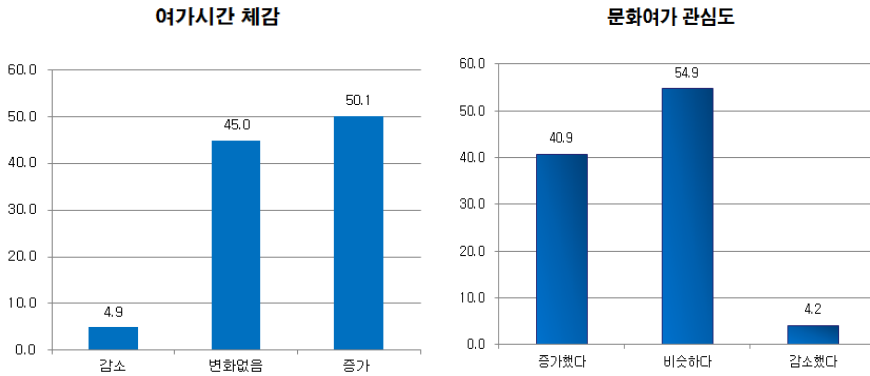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 최장 58시간의 근로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을 2018년 7월 1일부로 50~300인 미만은 1년 6개월 이후(2020년 1월),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무체제를 바꾸게 된다(고용노동부, 2018).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무활동(근로)의 축소는 일상의 시간구조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주 52시간 근로자가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시간구조가 변하고 있는 양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시간구조의 변화가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조사된 조사 자료(지역문화진흥원, 2018)에 의하면,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 직원들은 실제로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의무활동 시간의 축소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가시간 증가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인해 문화여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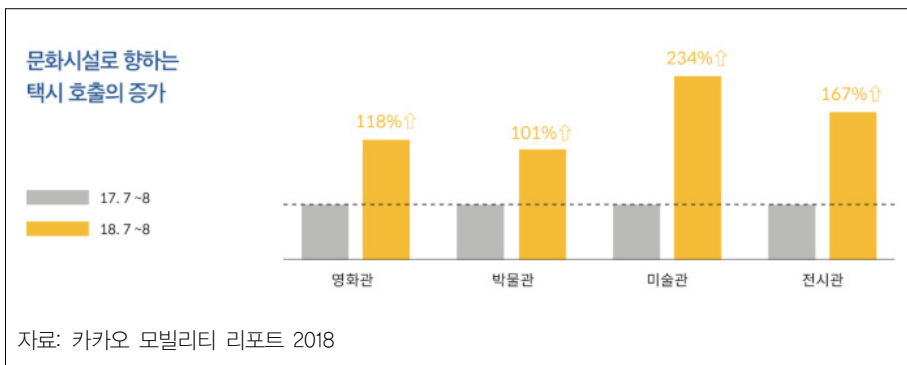


[그림 5-1] 근로단축 후 여가시간 체감

[그림 5-2] 근로단축 후 문화여가 관심도

자료: 지역문화진흥원(201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생활 변화 실태조사

실측데이터를 통한 조사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이후 문화시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의하면, 박물관으로 향하는 택시호출이 101%, 미술관으로 향하는 택시 호출이 2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5-3]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문화시설로 향하는 택시 호출 변화

신용카드 지출액도 저녁(18시~21시), 야간(21시~24시) 시간의 여가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5-14〉 주 52시간 근무제 전후 야간 카드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저녁(18시~21시)			야간(21시~24시)		
	'17.07~'18.06.	'18.07~'19.06.	증감률	'17.07~'18.06.	'18.07~'19.06.	증감률
전체	54,172,740	57,346,775	5.86	34,999,860	36,149,996	3.29
문화예술	204,725	202,401	-1.14	111,454	97,904	-12.16
스포츠	2,215,403	2,237,580	1.00	585,515	587,799	0.39
여행	2,622,881	2,766,566	5.48	1,792,664	1,932,508	7.80
취미오락	49,129,730	52,140,228	6.13	32,510,226	33,531,785	3.14

자료: 신한카드 지출액을 한국은행 데이터와 반복비례 증가법을 활용하여 추출

주: 취미오락(종합쇼핑, 외식, 패션, 미용, 교육훈련, 유흥, 인터넷 게임, 도서, 애완동물보기, 목욕, 종교활동), 여행(교통, 숙박, 관광쇼핑, 여행사, 체험), 스포츠활동(스포츠용품 구매, 골프, 헬스, 레저스포츠, 자전거, 스키, 운동경기 관람), 문화예술활동(공연관람, 사진촬영, 악기연주, 미술공예 참여, 음악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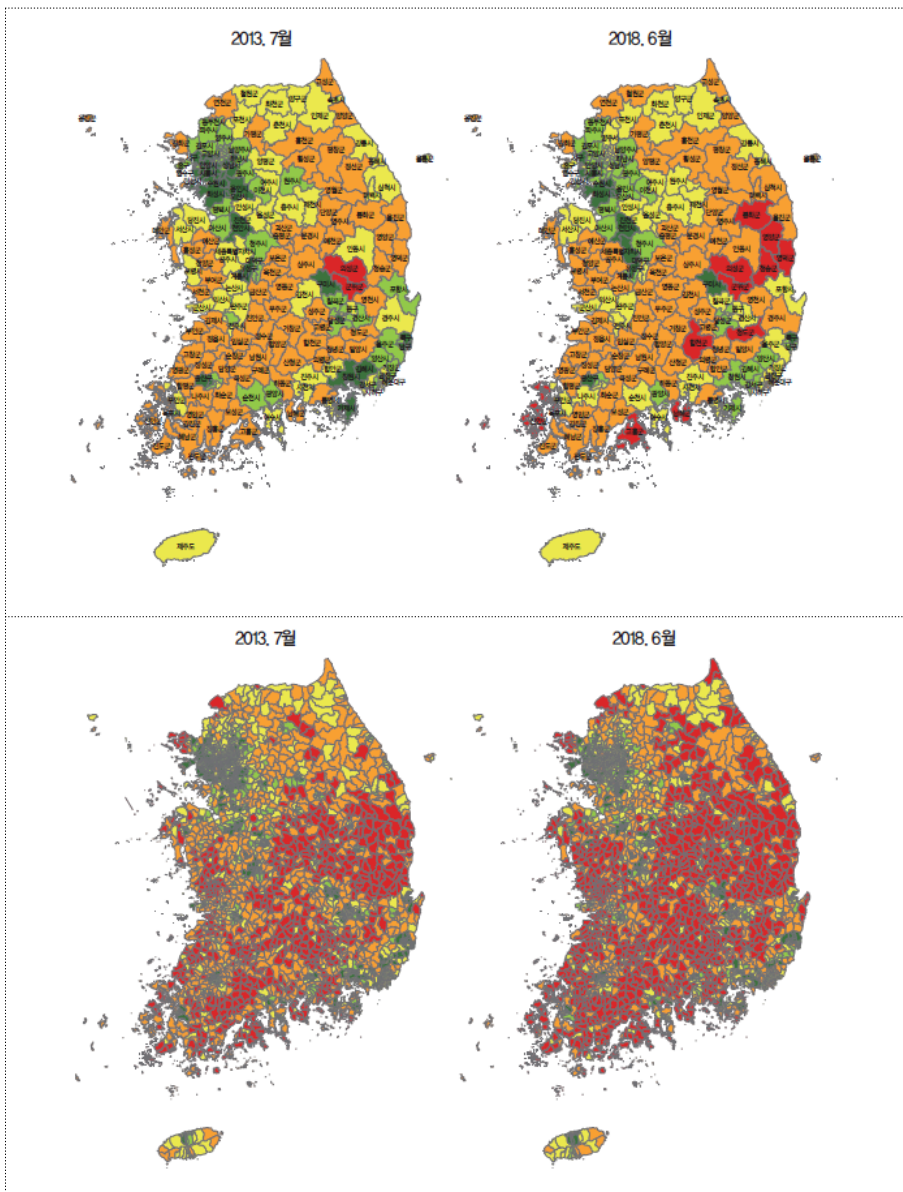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52시간제 전후 1년 동안 저녁시간(18시~21시) 여가관련 지출액은 5.86%, 야간시간(21시~24시) 여가관련 지출액은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출액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향후 모든 의미의 정책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의 생활 인프라 수요의 감소를 야기하고, 수요가 없는 지역에 재정 투자 및 신규개발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와 쇠퇴를 가속화하고, 결론적으로 지역 간 공공 서비스의 격차 확대와 생활사막(life desert)의 고착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5~2045 》(통계청, 2017)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45년에는 중부권(12.4%)과 수도권(1.0%) 인구는 늘고, 영남권(-7.7%)과 호남권(-1.3%)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 출처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p.7~9

[그림 5-4] 전국 228개 시군구(上) 및 3,463개 읍면동(下)별 지방소멸위험현황

이상호(2018)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가능성을 진단하였는데, 진단 결과는 비판적이다. 분석 결과, 2018년 6월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89개(39.0%)로, 이는 2013년 7월 현재 75개(32.9%)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었다. 읍면동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3,463개 중 1,503개로 43.3%에 이르렀으며, 특히 비수도권-도 지역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의 비중이 70.1%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수도권-광역시의 경우에도 2013년 7월 7.3%에서 2018년 6월 20.7%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지방 대도시 또한 소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쇠퇴해 감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생활 사막화와 문화기반시설 공급의 효율성 문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의 생활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하나, 수요가 불명확한 곳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공급여건

1) 공공서비스의 강화

현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데 이어 11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2019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안’임을 강조하고 11월 19일 APEC 정상회담 발언에서도 향후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포용국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라 할 수 있고,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역(보통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회 접근성의 평등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주요한 공공 문화서비스 시설이므로 당연히 포용성 원칙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년 예산은 포용성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문화 분야는 여가·건강 활동 인프라 구축에 1.6조 원의 예산(안) 세웠으며, 그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는 생활SOC⁶⁾ 계획에서도 문화 분야는 주요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확대는 지역에 고른 시설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기회는 지리적 접근성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다른 배제의 구조적 요인을 외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리적 접근 구조가 지리적 접근성 이외에도 다른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결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 또한 포용성 원칙과 부합하는 정책영역임은 틀림없다.

아직 크게 관심을 받는 영역은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 시간의 비대칭, 시간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배제도 문화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행사의 관람/참여 모두 주말 낮 시간대에 대한 비중이 높고 주중 낮 시간대는 대체로 여성과 노인들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시간구조상 주중 낮시간은 의무활동 시간으로 완벽하게 시간제약을 받는 시간임을 고려하면, 이것도 일종의 구조적 배제라 볼 수 있다.

6)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2조에서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

〈표 5-15〉 문화예술행사 관람시간

(단위: %)

구분		주말 낮 시간	주말 저녁 시간	주중 저녁 시간	주중 낮 시간
전체		48.8	24.3	15.7	11.1
성별	남성	50.1	27.4	15.6	7.0
	여성	47.6	22.6	15.9	15.2
연령	15-19세	63.1	22.6	9.6	4.8
	20대	45.6	29.6	21.1	3.7
	30대	49.3	29.0	15.7	5.9
	40대	55.7	22.3	13.0	9.0
	50대	45.3	24.2	18.2	12.3
	60대	40.0	19.5	16.5	23.9
	70대 이상	41.7	11.7	8.2	38.4

자료 :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 분야로 같이 조사되지만, 민간의 영역인 영화 관람의 경우 관람 시간이 극장을 기준으로 저녁 34.5%, 오후 31.8%, 조조 16.1%,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시공간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TV 시청과 PC/모바일을 통한 영화 관람은 시간무관(각 41.2%, 53.4%)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임규건외, 2019). 관람 요일의 경우에도 극장을 기준으로 주중 영화 관람은 '07년 8.8%에서 '16년 11.4%로 증가했고, 요일무관도 20.1%에서 2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주중 저녁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상품의 소비에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저녁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경우는 시간과 무관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과 시간적 접근성이 모두 해당하는 영역이라 영화 관람과 유사한 접근 구조로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지역 균형 발전

현재까지는 지역의 쇠퇴와 인구 감소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의 쇠퇴와 인구감소를 막는 것이었다. ‘지역균형’,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표 아래 지역 곳곳에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제한된 재정 여건하에서 투입되어야 할 재정의 양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와 지역의 면적과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면 재정 분배의 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표 5-16〉 도시규모별 문화기반시설 미입지 현황

구분1)		특·광역시	중대도시	중소도시	군급도시	계/평균
도시수		69	25	52	84	230
도서관	개수	—	—	—	—	—
	(%)	—	—	—	—	—
박물관	개수	17	2	3	13	35
	(%)	24.6	8.0	5.8	15.5	15.2
미술관	개수	47	9	36	57	149
	(%)	68.1	36.0	69.2	67.9	64.8
문예회관	개수	23	4	7	18	52
	(%)	33.3	16.0	13.5	21.4	22.6
영화관	개수	11	0	14	77	102
	(%)	15.9	0.0	26.9	91.7	44.3
과학관	개수	49	14	35	65	163
	(%)	71.0	56.0	67.3	77.4	70.9

자료: 박태선 외(2017),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주1) 도시규모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중대도시는 30만 명 이상, 중소도시는 30만 명 미만으로 구분

지난 반세기 동안 공공서비스로서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서비스 시설제공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고,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문화서비스 제공 시설을 지

역의 수요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 재정 당국에서는 주어진 재정을 다양한 분야에 지출하기 위해 효율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적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논의는 시설의 유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은 각 장르별로 중요한 시설을 지역에 고르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수요와 관련된 거시적인 특성인 시설의 분포(접근성), 인구의 감소 외에도 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은 현장에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이라는 큰 방향 외에도 지역의 수요여건에 맞는 다양한 공급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요컨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지역에 여건과 수요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공급을 통해 수요자의 문화서비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문화권의 확대와 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방향이 될 수도 있다.

3) 서비스 인력 쟁점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영역은 수요측면만이 아니다. 개방시간이 연장이라는 방식으로 조정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서비스 인력의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이번 정부 들어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고, 이는 문화기반시설 서비스 인력의 노동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현 정부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일자리 5년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10 중점 과제에 ‘공공 일자리 81만 명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모범 고용주, 과로사회 탈피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총 81만 명의 일자리 중 34만 명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 관련해서는 1단계에 6천

명의 일자리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관련 일자리 확충의 목표는 다양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 5-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_문화 분야

	방향	문화 분야
1단계	-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중심(17만 명)	- (문화) 생활체육강사, 공공도서관 야간 개방 인력 등 총원(6천 명)
2단계	-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 및 문화·체육·환경 등 일자리 추가확충(17만 명) - 공공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 확대, 전담체계 보강을 통한 '국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원	- 스포츠·문화향유권 제고

자료: 일자리위원회(2017),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1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전환 대상기관	1단계: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 2단계: 자치단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
전환 기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 제한적 예외 인정
전환 과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채용방식·임금체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
전환 시기	기간제 '17년 말까지, 파견용역 계약기간 종료 시점
처우개선	고용안정,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정규직에 준하는 체계적 인사관리시스템 마련

자료: 고용노동부(2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년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원은 17만 5천 명에 이르고,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천 명에 이른다.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는 국립 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및 자료 정리를 하는 인원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고,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참여자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경과적 일자리에 해당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추후 변경되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가능한 사업으로 추가되었다(고용노동부, 2017)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공급 당사자인 개방시간 연장 사업 근로자, 무휴관 근로자와 관련된 통계가 수집되고 있지 않아 정규직 전환 현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자문회의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는 기존에 보조 사업형태의 사업상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했으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인건비에 포함해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받아 직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 유지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표 5-19〉 문체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사업

사업명	유형	수행방식	근거법
국립문화향유권확대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 정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2조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자료: 고용노동부(2017),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관련 추가 지침

한편, 공공 서비스 인력의 근로환경도 공급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요소다. 앞서 수요적 측면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문화 향유권과 관련

된 것이었다면, 주 52시간 근로제는 서비스 인력의 노동권과도 관련된다. 개방 시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서비스 인력의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자리 확대 혹은 일자리 나눔을 통한 개방시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서비스 인력의 근로여건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서 정부의 일자리 확대 계획과 연계되어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해당 시간에 인력을 늘려 준다는 입장이지만, 큰 틀에서 논의되다 보니 현장의 세밀한 부분을 살피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문회의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설에 따라 개방시간 연장 사업으로 채용된 인력만 해당 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인력이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개방시간 연장으로 인한 근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된다. 가장 먼저 휴식권의 침해가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으며, 서비스 인력의 퇴근길 안전의 문제, 서비스 인력의 일가정의 양립 저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취지인 야간 방문자 지원보다는 주간방문자의 야간까지 연장 이용이 더 현실적으로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요측면에서 공공 문화서비스의 일정부분 확대는 배제 없는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필요한 환경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문화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크게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와 공급 일괄 방식으로 맞춰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의 효율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제6장

개선방향 및 과제

제1절

기본 방향

1. 종합 검토

가. 문화기반시설 공급 특성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시설, 지역, 요일별 공급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6-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급시간 특성

		개관일수	주당 개방시간	개방패턴	지원정책	개방조정 시설 현황
도서관	대도시	293.84	67.40	주간, 야간	공공도서관 야간 개방	50.8%
	중소도시	302.99	70.34	주간, 야간		47.9%
	읍면지역	300.65	67.02	주간, 야간		45.0%
박물관	대도시	311.47	50.58	주간	국립시설 야간개방, 무휴관	국립시설
	중소도시	318.84	52.10	주간		
	읍면지역	313.16	51.07	주간		
미술관	대도시	277.73	43.25	주간		국립시설
	중소도시	300.70	48.31	주간		
	읍면지역	314.05	50.43	주간		

도서관의 개관일수는 미술관과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짧고, 도시규모별로 편차가 적었고, 현재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지원정책에 따라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시설이 48.2%이었고, 대도시의 야간개방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박물관의 개관일수는 무휴관등의 정책으로 인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국립시설 등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야간 및 무휴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술관은 개관일수, 주당 개방시간 등에서 가장 짧은 수요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었다.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국립시설을 중심으로 야간개방, 무휴관을 시행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은 중소도시에서 공급시간 총량이 많고, 미술관은 공급시간 총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나. 문화기반시설 수요 특성

공급 특성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수요의 특성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도서관은 향유의 일상성이 높은 시설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향유의 일상성이 낮은 시설로 분석되었다.

〈표 6-2〉 시설별 수요 특성

	방문경험	방문빈도	주요 이동수단	이동시간	주 방문요일
도서관	48.6%	월 1회 이상 방문(69.7%)	도보(37.7%)	20.1분	평일/주말
박물관	33.6%	분기 1회 미만 방문(84.7%)	자가용(54.5%)	61.1분	주말(토)
미술관	27.4%	분기 1회 미만 방문(83.4%)	대중교통(53.4%)	58.5분	주말(토)

도서관은 응답자의 반 정도가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도보로 20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평일과 주말 모두 방문빈도가 높은 수요 특성이 있었다. 그리고 개방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현재

이용층의 확대 이용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3개월에 1회 ~ 1년에 1회 정도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였고, 자가용으로 한시간정도 걸려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토요일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미술관의 경우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박물관의 비해 방문경험이 다소 낮았으며, 주요 이동수단이 대중교통인 것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개방시간이 연장되면 신규 이용층 유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 문화기반시설 수요 기회(수요-공급 매칭)

문화서비스 수요기회는 도서관의 경우,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개방시간 조정이 상대적으로 읍면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수요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저녁시간의 수요 요구가 있는 반면, 개방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하여 전반적인 개방시간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된다.

〈표 6-3〉 시설별-도시규모별 저녁시간 수요기회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평일 저녁	주말 저녁	평일 저녁	주말 저녁
대도시	중간수준 높음	비교적 낮음	희박, 전무	희박, 전무
중소도시	비교적 낮음	비교적 낮음	희박, 전무	희박, 전무
읍면지역	비교적 높음	비교적 높음	희박, 전무	희박, 전무

라. 문화기반시설 개방조정 수요

세 시설에 대한 개방시간 조정 수요를 종합해 보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모두 대도시에 개방시간 조정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일차적으로 개방시간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읍면지역은 조정의 필요성을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개방시간 조정 선호구간은 도서관은 대도시는 상시 개방시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평일 저녁 도서관 개방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도시는 상시 연장을 기준으로 도서관 개방 연장의 검토 필요성이 있었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평일저녁 연장을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수요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토요일 저녁에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바,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토요일 저녁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6-4〉 시설별-도시규모별 개방시간 조정 수요

	조정 필요성			선호구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관	58.6	53.7	54.6	상시	평일 저녁	평일저녁
박물관	55.9	55.4	50.4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미술관	54.1	55.2	51.2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마. 정책 여건 진단

정책적으로 보면 주요 문화서비스 시설 개방시간 조정과 관련된 영역은 문화정책의 모든 요소와 결합되어 있어 세밀함이 요구되는 정책 영역이다. 특히, 주요 문화서비스 시설의 개방시장 조정은 시민 문화권, 근로자 노동권, 정부 효율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문화기반시설이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시설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문화권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과 정부의 효율성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일괄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시범 단계를 거쳐 추이를 살피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방시간을 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민의 문화권을 위해서 일정 부분 개방시간을 연장하되, 이는 일괄적인 방식이 아닌 주어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간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문화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 종사자의 노동권을 위해서는 근로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수요에 대응하되 노동여건의 악화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관행적인 공급방식을 과감히 혁신하여 새로운 방식의 공급도 고려해야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표 6-5〉 개방시간 관련 정책여건

정책여건	내용	고려사항
문화권 확대	개방시간 확대를 통한 시민의 문화권 확대	지역, 시설 여건 활성화 방안
노동권 보호	체계적인 지원으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현장 파악
효율성 확대	수요와 공급의 최적화를 위한 공급체계 혁신	현행 공급 방식

2. 기본 방향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 조정방안의 기본 방향은 각 문화시설의 수요특성, 수요의 기회, 개방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 정책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각 문화시설의 수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수요의 빈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도서관은 수요의 빈도가 높은 시설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수요의 빈도가 낮은 시설로 구분된다. 개방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수요 특성은 박물관 미술관에 비해 도서관의 개방시간 연장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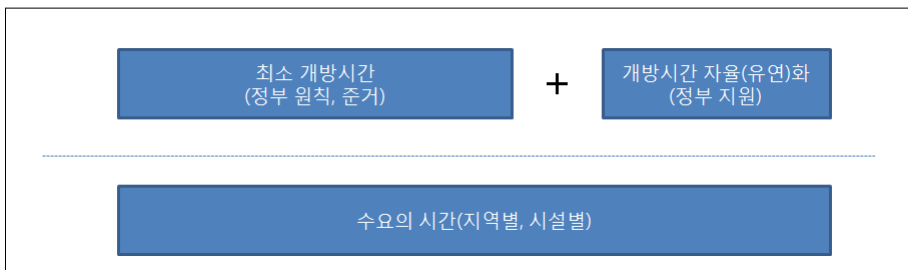
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수요의 기회와 개방시간 연장 요구 측면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저녁시간 수요기회가 낮고, 개방시간 연장요구가 높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지역의 수요여건에 따라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시설별로는 도서관은 평일저녁 연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토요일 저녁 연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6〉 종합진단 및 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책 방향
공급특성	- (도서관) 연장사업 실시, 중소도시의 개방총량 높음, 중앙정부 지원정책 실시 - (박물관) 중소도시의 개방총량 높고, 지원정책 미미 - (미술관) 읍면지역의 개방총량 높고, 지원정책 미미	- (도서관) 기존정책 활용을 통한 개방시간 연장 - (박물관·미술관) 기존정책 활용과 신규 개방연장 지원정책 병행
수요 특성	- 도서관의 일상적 수요가 높음 - 박물관·미술관은 간헐적 수요가 높음	- (도서관) 전면적 지원확대 고려 - (박물관·미술관)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조정 고려
수요 기회 (수요-공급)	- 대도시, 중소도시의 야간 수요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	- (대도시, 중소도시) 우선적 조정 고려지역 - (읍면지역) 단계적 조정, 기존 자원을 효율화를 통해 수요기회 증대 방안 마련
연장 수요	- 대도시, 중소도시의 야간 연장 요구가 높음 - 도서관은 평일과 박물관과 미술관은 토요일 연장 수요가 높음	- (도서관) 평일 저녁 중심 개방시간 조정 - (박물관·미술관) 토요일 저녁 중심 개방시간 조정
정책 여건	- (지역여건) 지역의 수요 차이 발생 - (인력여건)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인력의 처우문제 해결 불가능	- (효율성)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지원, 기존 자원의 혁신적 활용 방안 검토 - (근로환경) 근로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공급특성, 수요특성, 수요기회, 연장 수요, 정책 여건에 나타난 시설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연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한 연장은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개방시간과 관련된 기본원칙(최소 개방시간 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의 수요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지원에 맞춰 개방시간을 연장하거나 휴관일, 개관시간과 폐관시간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시간맞춤 정책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1] 개방시간 조정 기본방향

개방시간 조정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도서관은 평일 중심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토요일 중심으로 개방시간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모든 개방시간 조정 방안에는 추가 노동력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제2절

정책 과제

1. 문화권 확대를 위한 개방시간 유연화

현재 수요, 수요기회에 기반해서 보면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별, 지역별, 이용 특성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시간 연장 모델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괄적인 방식으로 개방시간 연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방식으로 수요의 기회를 확대하는 개방시간 연장 모델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가. 도서관 조정 모델

1) 여건 및 실태

도서관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방문 빈도와 접근 거리가 짧은 생활 밀착형 시설이며, 현재에도 공공 도서관의 반 정도는 22시까지 야간 개방을 하고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현재보다 야간 개방을 확대할 것인지, 기존의 방식을 조정하여 시민의 접근 기회를 확대할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2) 야간개방 확대 모델

국민의 향유권 확대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면, 도서관 야간 개방의 확대는 국민의 도서관 시간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가장 간명한 방식이기는 하나

예산의 문제, 노동권 보호 등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① 인력에 대한 고려사항

가장 간명한 개방시간 조정 모델은 확대 모델로 현행 야간개방 모델을 유지 하되, 운영시간 연장 시설을 확대하고 서비스 인력의 추가 확대에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하는 구조의 모델이다. 여기서 핵심은 추가인력을 어떻게 추가하고 관 리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첫 번째는 기존의 방식인 서비스 연장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야간 개방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정규직 정규 직 전환 정책 등을 고려하면 추가 배치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인건비의 편성 문제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소관 의 공공서비스로서 직영할 경우 해당 인력이 정규직화되면 기존의 중앙정부 개방시간 연장 보조금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비정규 직이 정규직화되면 기존의 사업비를 쓸 수 없고, 지방정부의 인건비 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지역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대안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책정과 관련된 예산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조직의 유연성이 높아지지만, 관리 가 잘 안 될 경우 공공성이 약해지거나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없을 수 있다 는 단점을 가진다.

〈표 6-7〉 서비스 인력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인력 추가배치	- 단기적으로 확대 용이 - 상대적으로 지속성 담보	- 인건비 책정에 대한 혼란 - 구조적으로 수요 대응에 제약
외부기관 위탁	- 수요 대응에 민감 - 유연한 조직 운영	- 외부 기관 관리의 어려움 - 사업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워 고용 관계 등 불안정성 높음

② 개방 확대 구간에 대한 고려 사항

야간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어떤 시간대에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현재는 평일 기준 ~22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가장 수요에 가장 최적화된 구간 인지, 아니면 다른 구간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수요조사에 기반하면 도서관의 개방 연장 요구가 구간은 평일과 주말 저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일 저녁은 이미 개방 연장을 하고 있으므로 개방 연장 구간을 설정 여부보다는 개방을 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③ 도시규모에 따른 고려 사항

도시규모에 따라 수요의 기회, 개방에 대한 연장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면 대도시 도서관부터 개방연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 도시 규모별 도서관 수요기회 및 개방 연장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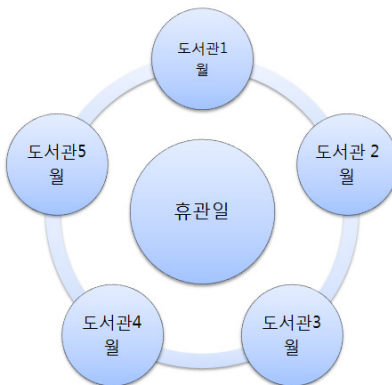
	수요의 기회	개방시간 연장 요구
대도시	중간 수준	58.6%
중소도시	가장 높음	53.7%
읍면지역	가장 낮음	54.6%

3) 개방 시간 총량 관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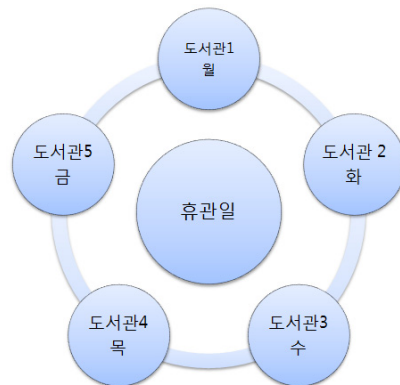
수요 측면에서 지역 혹은 도시의 형태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면 일괄적 개방시간 확대 방식이 아니면서도 시간 접근성을 늘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개방 시간 총량 관리 모델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별로 교차하여 휴관을 하던가, 야간 개방 연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접근기회를 동일하게 혹은 확대하면서 서비스 인력의 충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모델이다.

① 시설 교차 휴관 모델(예시)

개방 시간 총량 관리의 대표적인 모델은 시설 교차 개방 모델이다. 시설 개방 교차 모델은 접근 기회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운영을 효율화하거나, 교차 개방을 통해 접근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휴관일 보통 월요일인 경우가 많은데, 지역의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이를 휴관일을 다른 요일로 분산하면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라는 공간적 가정하에 시간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개방시간 같은 경우도 지역에 사정에 모든 시설이 동일한 수요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야간개방을 할 도서관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교차 휴관으로 인해 휴관일이 변경되는 도서관이 생기고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휴관일 변경으로 인한 접근의 혼란이 다소 생길수도 있지만, 접근 기회의 측면에서는 변화된 것은 없으므로 접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림 6-2] 획일적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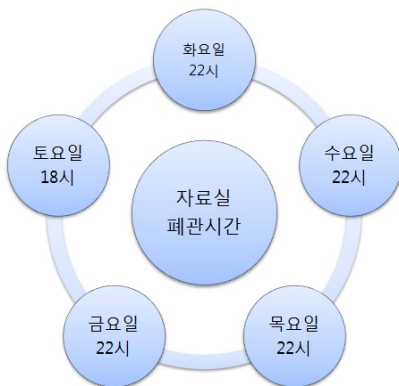


[그림 6-3] 교차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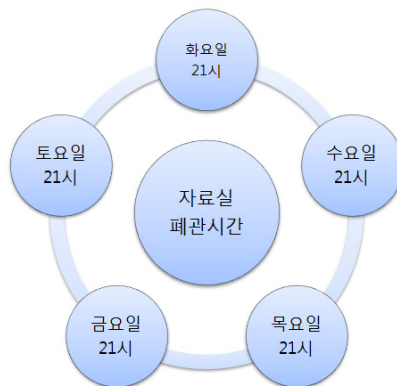
② 개방시간 총량의 합리적 배분 모델

개방 연장 구간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시설에 따라 평일 늦은 시간 수요가 없을 경우 평일 개방 연장을 단축하고 주말 저녁시간대를 개방 연장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노동 구조 속에서도 평일 1시간씩 시간을 단축하면 휴관일 제외하고 평일 4시간의 여유시간이 생기고, 이를 주말로 옮겨 주말 4시간 연장 개방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을 경우 21시 이후 자료실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말 야간개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러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4] 현행 개방시간 연장



[그림 6-5] 대안적 개방시간 연장

총량을 기준으로 대안적 개방시간 연장 모델을 적용할 경우, 현행 문체부의 자료실 평일 22시까지 획일화된 지원기준을 개방시간 연장 총량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원해야 한다.

③ 개방시간 총량 관리 고려사항

개방시간의 총량(예를 들면, 한 지역의 주당 평균 개방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방시간 총량을 정하는 기준, 개방시간 총량에 포함되는 지역구분 등과 더불어 개방시간 총량을 효율적으로 시설별로 배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공간적 범위 설정은 현행 기초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장 간명하고, 보다 통합적인 관리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방시간 총량은 시설 수요의 세밀한 예측과 정책적 판단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데,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세밀한 수요조사나 수요데이터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지역단위로 시설 이용객 조사나 수요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가 없으므로 향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판단은 포용성과 같은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간대별 1관당 수요기회(기회의 공정성)와 같은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혹은 지역 대표 도서관 등에 전담인력을 두고, 시설 간 협의체 등을 두어야 한다. 현장과 괴리된 총량 관리, 추진주체가 없는 총량 관리는 제대로 현실에 녹아들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예산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고려사항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단위의 인력배치는 어려워질 수 있다. 시설당 총 서비스 시간 연장 시간이 1인을 고용할 정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연장에 따른 인력 운영은 기관의 인력이 연장 근무를 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배치한다면 시설을 순회하는 단시간 일자리 형태로 고용되거나, 지자체 소관 시설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혹은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차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단기간 일자리의 처우나 지속가능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9〉 사회서비스원 개요

구분	내용
설립 배경	- 민간 위탁은 계획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고용관계 불안 - 공공 직영은 고용불안은 해소되나 효율성 저하
설립 취지	- 공공의 투명성, 민간의 전문성 결합 -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서비스유형	- 보육, 요양 필수제공 -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인력 관리	- 재가서비스,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인력을 직접고용

자료: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 발췌

나. 박물관·미술관 조정 모델

1) 여건 및 실태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시민 업무보다는 소장품 관리가 일차적 업무라는 점에서 도서관 차이가 있고, 수요에 있어서도 일상적 수요가 아니고 간헐적 수요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말 저녁을 중심으로 개방 연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공공 박물관/미술관과 관련 개방시간 연장 정책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수요적 특성, 지역적 특성,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거점시설 개방시간 연장 모델

박물관과 미술관의 평일 저녁과 특히 주말 저녁에 개방 연장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박물관과 미술관 이용객의 80% 이상이 분기 1회 ~ 연 1회 정도를 방문하는 것,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의 연장요구가 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개방은 현실적인 수요와 맞지 않는다. 또한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는 아직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접근의 기회를 확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점 시설/특정 요일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추후 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① 거점 박물관/미술관 선정 및 지원

현재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특정 요일(보통 수요일, 토요일) 야간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행 구조를 유지하되, 장르별(박물 및 미술), 지역별로 안배하여 거점 박물관/미술관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선정된 시설이 국립 시설이 아니고 공립 시설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 연장 시간에 대한 일부 유료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방시간 연장 구간은 우선 주말을 중심으

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평일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표 6-10〉 야간개방 운영 국립박물관·미술관의 분포

박물관명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경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전주박물관		√	
국립부여박물관			√
국립공주박물관		√	
국립진주박물관		√	
국립청주박물관		√	
국립대구박물관	√		
국립김해박물관		√	
국립제주박물관		√	
국립춘천박물관		√	
국립나주박물관			√
국립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
국립민속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국립한글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	√		

② 거점 박물관/미술관 선정 고려사항

거점 박물관/미술관 선정 시에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선정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 해당 지역 사람들의 접근 가능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중교통과 자가 이용 편의성 등이 높은 시설을 선정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③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저점 박물관·미술관 모델은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개방모델이 아니므로 현재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에 1회 있는 행사이므로 한 달에 4회, 토요일 개방 연장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공간별 개방시간 다양화 모델

박물관과 미술관처럼 콘텐츠 소비가 일상적이지 않은 시설에서는 공간의 매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별 개방시간 다양화 모델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일부 무휴관 국립 박물관/미술과 시설 현장에서 운영과 관련하여 전시품 보존 및 관리 시간 제약, 근로자 피로도 증가 우려 등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전체 공간의 무휴관이 아닌 휴관이 있는 공간과 무휴관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향유권 확대와 적절한 운영관리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① 공간별 개방시간 다양화 고려사항

공간별로 개방시간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의 공간구조를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수요 특성과 공간관리 인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는 전시공간, 수장공간, 부대 편의 공간으로 이루어지는데 방문객이 공간을 이용하는 특성을 기준으로 공간의 개방시간을 다르게 부여해야 한다. 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의 개방시간 차이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방시간 연장 공간이 나뉘게 되면 필요한 인력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도서관 같은 경우, 자료실 이용에는 서비스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지만,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시설 서비스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

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② 무휴관 시설 고려사항

무휴관 시설의 공간별 개방시간을 다양화하면서 전시공간을 일부 닫을 경우 VR 등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체 체험이 가능한 방식을 고려하여 시민의 방문과 체험의 질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③ 관련 사례

〈표 6-11〉 가나자와 미술관 공간별 이용시간

공간 구분	이용시간	휴관일
전람회 존	10시 ~ 18시 ※ 금·토 20시까지 ※ 입장권 판매는 폐장 30분 전 종료	매주 월요일 연말연시
교류 존	9시 ~ 22시	연말연시
장기 인터렉션 룸 디자인 갤러리 아트 라이브러리 수요실, 탁아실(유료/예약제)	10시 ~ 18시 ※ 금·토 20시까지	매주 월요일 연말연시
뮤지엄 숍	10시 ~ 18시 30분 ※ 금·토 20시 30분까지	
카페 레스토랑	10시 ~ 20시	
다실	9시 ~ 17시	
시민 갤러리 씨어터 21	9시 ~ 22시 ※ 금·토 20시 30분까지	연말연시

자료: 가나자와 미술관 누리집

가나자와 미술관은 누구나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만남과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열린 공원 같은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간의 디자인에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부대시설 등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야간 개관 등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시간 측면에서 보면 공간을 구분하여 수요자의 시간에 맞춰 공간별 개방시간을 다양화하고 있다. 작품 전시가 되는 전람회 존은 일반적으로 18시 까지 개방하고, 전시품 교체가 작업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폐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작품 감상 외의 이용이 가능한 공간인 교류존, 시민 갤러리 등은 평일 22시까지 개방하며, 토요일도 저녁에 이용할 수 있는 개방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복합문화시설인 퐁피두 센터는 전반적으로 개방시간이 긴 가운데, 공간의 기능별로 구역을 나누고 개방시간을 달리하여 충분한 시간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개관시간을 오전 일찍 하지 않고, 오전 11시나 12시에 개관하고 오후 21시나 22시로 폐관시간을 늦춘 것은 기존의 관행적인 공급시간이 수요와 맞지 않아 수요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2〉 퐁피두 센터 공간별 개방시간

	공간의 기능	개방시간
6층	기획전시장	- 평상시 오전 11시-오후 9시 - 목요일 저녁 11까지 개방
5층	현대미술관(영구 소장품)	- 평일 오전 11시-오후 9시
4층	공공도서관	- 평일 12시에서 22시 개방. -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은 11시에서 22시 개방
3층	공공도서관	- 평일 12시에서 22시 개방 -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은 11시에서 22시 개방
2층	사무실	- 오전 11시-오후 9시
1층	아동 도서실, 아동 미술관, 산업미술 전시장, 외국인 전시장, 뮤지엄 샵	- 오전 11시-오후 9시
지하층	작가별 자료 보관	

자료: 퐁피두 센터 누리집

다. 문화기반시설 복합 활용 모델

1) 여건 및 실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서비스의 특성과 목적의 다름으로 인해 시설 간의

공급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대시민 일상적,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 더 많이 보급되어 있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대적으로 대시민 일상적 전달 목적이 낮아 공급 수준이 도서관에 비해 낮은 상태다. 개방시간의 문제도 같은 구조다. 도서관은 이미 50% 수준에서 야간 개방을 하고 있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국립을 제외하고 전무한 상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만큼 늘리는 것은 시설 특성에도 맞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 수요의 기준인 인구수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인 예산투입의 효율성의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여건과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방식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개방 시간 연장 조정의 경우에서 도서관이 이미 개방 연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간 복합화를 통해 서비스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2)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복합서비스 모델

지역의 축소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시간 연장 도서관’의 공간 복합화를 통한 박물관/미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리적 접근성, 시간 접근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여 기초 수준의 박물관과 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① 공간 복합화를 위한 고려사항

기본적으로 공간의 복합화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계획에서도 시설의 복합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기존의 도서관 공간 중 열람실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고려할 수 있고, 신규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지역 축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도서관 고유의 공간을 제외하고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도서관 건립을 우선 지원하고, 생활 SOC 확충 계획의 국비 보조율 상향

유인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표 6-13〉 생활SOC 추진방식

생활SOC 추진 방식	내용
시설복합화	시설복합화를 통해 부지확보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절감
지자체유인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율 상향(현행 + 10%)
지속가능운영	자체운영비 확보방안 검토, 운영비 부담완화방안 검토

자료: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서 발췌

② 새로운 공간의 운영 인력 고려사항

새롭게 구성된 공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면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인력 채용의 여건이 여의치 않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 인력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안한 서비스 총량모델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도입한다면 서비스 인력의 직접 고용도 가능하고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수 있다.

3) 박물관·미술관 복합 모델

기능적인 측면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성이 강조될 경우 도서관을 복합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미술전시 가능한 공간을 복합화하고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거점 박물관·미술관 개방시간 연장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다.

① 박물관·미술관 야간 개방 운영 모델 고려사항

박물관과 미술관은 방문 빈도, 물리적 거리 등의 특성으로 인해 야간 개방을 한다 해도 평균 수요는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야간 개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도서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

식, 기술을 활용하여 무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일부 유료화를 통해 운영비 확보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결합하는 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개방시간 연장 서비스의 다각화

개방시간 연장을 통해 공급의 시간과 수요의 시간의 일치시키는 노력은 수요 기회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기회의 배제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암묵적으로 연장된 시간에 최소한 기존의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기회의 공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그간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기회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적인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회는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장된 개방시간에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향유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급특성과 수요특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가. 도서관 서비스 다각화

1) 도서관 서비스 특성

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생활권 시설이라 언제든지 방문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들은 일종의 정보/지식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들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이 주는 이미지는 수요자의 지적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 교육 및 문화서비스 강화 지원

도서관이 지적욕구에 기반을 둔 수요가 많고, 저녁시간에 방문하기 용이하

다면 도서관의 야간 서비스는 기존의 자료서비스 외에도 교육 및 문화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① 지원 방식에 대한 고려

개방시간 연장과 더불어 연장된 시간에 서비스를 유지 혹은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개방시간 연장+프로그램 지원 패키지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개방시간 연장 지원 사업 구조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서는 개방시간 연장을 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후에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② 운영 인력 고려사항

프로그램 운영 인력은 기존의 개방시간 연장 인력 운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인력 운영을 고려해야만 한다. 가능한 방식은 기존의 정규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외부 자원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의 도입도 가능하다.

나.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다각화

1)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특성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 특성은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는 수요자의 측면을 고려한 연구이므로 동일한 서비스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박물관·미술 자료에 대한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도 해서 방문의 주기 등과 관련된 전시의 다양성, 교육 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수요에서도 일상적으로 향유보다는 이벤트성 향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다각화

수요의 특성 등을 고려한 박물관·미술관 서비스를 다각화 하는 방법의 하나는 기획전시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박물관/미술관의 야간개방을 상시적으로 할 수 없고 간헐적 방식을 택한다면, 그 연장된 시간에 기획전시 등을 배치하면 박물관 미술관 야간 개방의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지원방식에 대한 고려사항

거점 박물관/미술관 야간개방사업과 연계하여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개방시간 연장만 지원하고 내용을 못 채우면 그전에 투입된 재정의 효과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운영 인력에 대한 고려사항

사실상 시간을 불문하고 기획전시가 많아지는 것은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따라서 개방시간 연장 사업과의 패키지 정책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모니터링, 연구 등을 통해 성과를 확인한 후 일반 박물관·미술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③ 기획 전시 등에 대한 고려사항

개방 연장시간을 채울 기획전시가 기존의 기획 전시 형태로 제공될 경우, 예산의 문제와 전시기회 특정 예술가 집중 현상의 문제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예술 기획전시, 아마추어 예술 기획전시, 기획전시를 위한 창작지원 등을 같이 고려하여 기획될 필요가 있다.

3. 문화기반시설 접근성 향상 기반 구축

그간 정부의 시설 확충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었다. 절대적인 시설 부족 상황에서 시설의 확충은 문화서비스의 접근성을 비약

적으로 개선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절대적 결핍에서 상대적인 결핍으로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접근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접근성 패러다임에 적응 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 문화기반시설 수요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문화서비스 접근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뒷전이었던 수요의 문제를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행정적으로 문화서비스의 상위 개념인 사회서비스에서는 그간 수요자에 대한 연구, 데이터 등을 축적해 오고 있다. 수요자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수요자가 특정되지 않는 문화서비스 영역에서 수요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함에도 수집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요와 관련된 정보 축적을 해오지 않고 있다. 그간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기술이 기반이 갖춰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1) 수요 데이터의 축적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위치정보, 이동정보 등이 시간의 축 위에 그릴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문화기반시설 총람 등 시설 이용객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수집되고 있지만, 이 정보들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계열적으로 입체적인 정보를 주지 못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공공 문화서비스 영역의 수요자 중심의 정책 판단을 위해서라도 문화 수요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해 문화서비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내용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는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망라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서비스 영역을 분리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협력 체계가 여의치 않을 경우 문화서비스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공간 행렬을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관한 일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또한 잠재적 수요 파악 등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주변의 유동인구 데이터, 미시적으로는 시설 이용경험 데이터 등의 수집이 정책 방향 수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카카오맵 같은 민간 서비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용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므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거나,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카카오맵

[그림 6-6] 강서 도서관 방문자 데이터 예시

3)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쟁점

문화서비스는 모든 대상에게 열려 있어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서비스 개방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대상의 구체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서비스처럼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대상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방법으로 민간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논란이 많은 영역이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보안의 문제가 데이터 수집의 핵심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나. 문화기반시설 공급 실태 수집 강화

문화서비스 수요 데이터뿐 아니라, 공급 데이터도 정확하게 수집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서비스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이 수요데이터와 연결될 때, 수요에 맞는 전달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전달과정, 서비스의 양과 직결되는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인력계획도 적절히 수립될 수 있다.

1)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급시간 분석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시설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설의 시간 정보는 시설의 공간적 정보인 주소지 등과 같이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였다. 각 시설의 실태조사 등에 일부 전반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누리집 등을 확인한 결과 맞는 않는 부분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었다. 추측건대, 개방시간과 관련된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수요자와 가장 밀접한 정보는 시설이 어디에 있고, 언제까지 열려있고, 무엇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이다. 따라서 공급의 공간, 시간, 내용 정보는 공급자 정보이면서 동시에 수요자와의 매칭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수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최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 방식이 지속적으로 무인화를 향해 가고 있지만, 문화서비스는 대표적인 인적자원에 기댄 서비스이므로 공급, 운영에 변화를 주게 되면 인력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17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서비스 인적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수요의 데이터 등과 결합될 때 보다 합리적인 인력 수급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은 명확한데, 문화서비스 영역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도 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 문화기반시설 시간접근성 기반 구축

1) 개방시간 총량 기준 설정

재정을 투입하여 일괄적으로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문화권 확대를 위해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문화시설별, 지역여건별 수요의 여건, 재정의 여건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에서 개방시간에 관여하는 방법이 중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서관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인구기준, 서비스 기준 등을 활용하여 주별로 최소한의 개방시간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인구 기준을 활용하는 방식은 인구의 수가 생활양식의 다양성과 관련 있다는 의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0개 주가 다양한 인구구간으로 세분하여 최소 개방시간을 제시하고 있다(윤희윤, 2013).

〈표 6-14〉 미국의 서비스 수준별 최소 개방시간 기준(3개주)

주	서비스 수준	개방시간	비고
플로리다주	기본	40	
	강화	68	20시간은 야간과 주말 배정
	최고	76	주 7일 및 야간 4일
조지아주	기본	40	시스템 내 1개관은 주당 하루를 저녁 8시까지 개관
	완전	55	
	최적	72	
버지니아주	A등급	40	최소 연속 3일 야간 및 적절한 주말 시간을 포함
	AA등급	68	20시간은 야간과 주말 배정
	AAA등급	76	주 7일 및 야간 4일

출처: 윤희윤(2013), 국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연구

인구기준이 아닌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최소 개방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플로리다, 조지아, 버지니아주 등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2) 문화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문화정책이 그간 절대적 결핍 패러다임 속에서 양에 치우쳐 절대적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으며 성과가 있었다. 다만 사회가 다원화되고, 취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그간의 패러다임으로 문화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문화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차원의 문화정책 전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분권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이 가속화 되면, 그간 중앙정부의 시설 공급과 관련된 역할이 줄고 지방 자율이 높아지므로 중앙정부의 조직은 향후 예측 가능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 6-15〉 프랑스 문화부의 수요관리 부서의 역할

구분	업무 내용
문화매개 담당	- 예술교육 관리 - 지역협력 관리 - 문화 프로그램 관리
수요개발 담당	- 개인 수요 개발 담당 - 그룹 수요 개발 담당 - 수요개발 발전 전략 담당

자료: 프랑스 문화부 누리집

과거 양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문화서비스는 실체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문체부의 문화기반과, 지역문화정책과, 도서관정보정책단 등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요자들의 취향이 다양화될수록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공급만으로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문화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조직(인력)은 문화서비스의 전달체계,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전담하는 구조를 통해 향유자 중심으로 역량(연구와 정책)을 집중시키는 것이 문화향유 확대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예컨대,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서비스 정책 영역을 총괄하는 조직을 문체부에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문화서비스의 정확한 브랜딩, 지역의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문화수요와 관련된 세밀한 조사, 문화수요 빅데이터 구축, 문화서비스 수요와 공급 계획을 지속적 관리하게 함으로써 문화정책의 대국민 체감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달체계다. 다른 여타 문화서비스 전달 구조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위상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수요자 중심을 강조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사람중심의 문화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점 혹은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었다는 데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강조점을 실행하는 방식이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이지 않다는 문제는 지속되어왔다. 누구도 이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에 답은 항상 기본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누가 어떤 문화서비스를 얼마나,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화서비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문화서비스가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과는 다르게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대상 특정 대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서비스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문화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을 진행하겠다는 큰 방향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더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하는 영역이 문화서비스 영역이다. 최근 다양한 방법론과 기술의 발전은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수요자의 상황 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문화서비스 시설이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밑바탕이 되고 수요자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간 문화서비스 영역에서 간과해왔던 수요의 시간과 공급의 시간의 비대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하고 간격을 줄일 방법이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기반시설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서 그간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늘어났다. 문화기반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일종의 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화시설 결핍 패러다임에서 시설의 수를 확충함으로써 수요자가 늘어났던 효과는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이 일부 해체되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화되면서 정체상태에 와있다. 또한 애초부터 문화서비스 공급시간을 수요자의 삶의 패턴에 맞춰 결정하고 있지 않아, 일정한 시간구조에 갇힌 많은 사람이 수요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수요자의 일상의 패턴에서 시간으로 인한 배제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문화시설의 시간접근성은 공급시설 측면에서 운영시간을 과 수요측면에서 이용가능시간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시간은 전통적이고 관행적으로 9 To 5의 운영시간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고, 일부 정책지원을 통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구조였다. 반면에 수요 가능 시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일상구조가 고정시간과 유연시간이 구분되기 때문이었는데, 수요자의 고정시간이 공급자의 운영시간과 동일한 경우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가 박탈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고정시간과 관련해서는 직업, 연령, 지역 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각 입장에서 의무활동이 각자의 일과 속에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합해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평일 저녁과 주말 저녁이

문화수요의 최적의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은 시설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시설 유형에 따라 도서관은 일상적 향유 요구가 높았고, 공급도 그에 맞추어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박물관·미술관의 일상적 향유 요구는 다소 낮았고, 공급도 일상적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도시 규모 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서 전반적으로 저녁시간의 수요 요구가 나타나고 있었고,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 요구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수요의 특성과 정책 여건들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개방시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수요특성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경우 도보접근성이 좋고, 방문빈도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박물관·미술관은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과 방문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수요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에 있어 다르게 접근해야 함이 나타나고 있었다.

관련 정책여건들도 일괄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곳도 있고, 문화서비스 수요 욕구가 낮은 지역도 있었다. 또한 인구밀도는 낮고 지역의 면적이 넓은 곳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문화시설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여건과 수요여건 고려하여 개방시간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시로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최소 개방시간 기준을 시설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소 개방시간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유연화하는 방안이 현재의 여건에는 최적화된 방향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방시간 조정 틀을 중심으로 시설과 지역에 따라 수요가 많은 영역은 유연하게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세밀한 방법은 지역 시설의 협력적 운영, 공간별 운영의 유연화, 서비스의 복합화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시간적 기회를 확장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와 공급 정보 수집체계의 구축을 통해 서비스 매칭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담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2. 정책적 제언

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강화

앞서 언급했듯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서비스를 전달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달체계다. 사람들도 문체부의 다양한 사업 중에 가장 체감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여타의 문화관련 보조사업보다는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의 가장 기본임에는 분명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 곳곳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우선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통해 모든 대상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런데, 현실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화서비스 영역은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일원화된 정책도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문화서비스의 개념을 보다 공고히 하여, 수요자에게 일종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체감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문화서비스가 조직화되고 강화 될 때,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수준의 문화적인 삶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양적 결핍의 패러다임 극복과 질적인 차원의 수요자에 대한 이해가 문화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 요소가 된다.

나. 결핍 패러다임의 극복

본 연구는 시간이라는 변수 하나로 다양한 방식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 기간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분석을 실행 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관련된 변수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계획이 수립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방식이다. 그런데 기존의 문화 결핍 패러다임 하에서는 공급의 목표는 결핍을 극복하는 것이었으므로 수요자를 세분화하는 것이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 수요자는 이미 많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문화의 절대적 결핍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워 졌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은 문화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증가시켰다. 따라서 결핍 패러다임에서의 양적 확충보다는 수요의 세분화, 수요의 기대수준에 맞추는 문화서비스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요를 세분화함에 있어 문화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수요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구조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의 취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포용적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사회서비스 대상의 수요/욕구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구조적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화서비스에 비해 보다 수요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보다 미시적으로 서비스디자인 기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도 그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제는 문화결핍의 패러다임에서 문화실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보다 수요자가 진정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지속적인 수요자 정보 수집 및 축적

기존 학계에서 물리적 접근성에서 시공간 접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다. 기존에 접근성의 문제에 접근할 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사람이 있는 장소와 목적지 장소 정보가 전부였기 때문에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 이동시간 등이 접근성을 연구하는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장소 간의 교통체증, 개인의 시간구조, 개인의 시간별 동선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수요자의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수요자들에 보다 적합한 방식의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이러한 수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한다.

문화서비스 수요자의 기대수준이 이미 민간수준이 제공하는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요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문화기반시설 자체의 무용론이 등장할 수 있다. 기술 발전에 의해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화 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수요자를 제대로 모르고 관행적으로 옛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서비스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보다 민감해야 하고, 수요자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활용해야 한다. 각 시설에서는 시간별, 일간, 월간, 계절별 이용자, 이용자 유형 등에 대한 연구들을 강화해야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 접근성과 관련된 원칙이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요의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2017).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관련 추가 지침.
- 고용노동부(2018).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국무조정실(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
- 김현미(2008).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도시기회 접근성의 시·공간적 구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3), 358-374.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문화향수실태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관련 현황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원자료.
-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2015).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503), 1-8.
- 박신의(2004).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고용창출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법제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법제처. 도서관법
- 법제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 신나리, 안재진(2012).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1(5), 863-874.
- 윤희운(2013). 국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49-71.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일자리위원회(2017).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임규진, 김보영, 송나은, 조성민(2019). 한국영화 소비자 동향 변화 및 영화 선택 과정 분석. 영화진흥위원회.
- 장훈, 김홍규, 정보람(2018).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 연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정현태, 김영석, 문정희, 이용훈(200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도서관연구소.
- 지역문화진흥원(2018).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여가생활 변화 실태조사.
- 최윤경, 이진화, 박진아, 조형숙, 권혜진, 조혜주(2015).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시간 조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카카오모빌리티(2018).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18.
- 통계청(2017).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5~2045.
- Bhat, C., Handy, S., Kockelman, K., Mahmassani, H., Chen, Q., & Weston, L. (2000). *Accessibility measures: formulation considerations and current applications* (No. Report No. TX-01/7-4938-2).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enter for Transportation Research.
- Cascetta, E., Carten, A., & Montanino, M. (2013). A new measure of accessibility based on perceived opportuniti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87, 117-132.
- Kwan, M. P. (1998). Space-time and integral measures of individual accessibility: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a point-based framework. *Geographical analysis*, 30(3), 191-216.
- Kwan, M. P., & Weber, J. (2003). Individual accessibility revisited: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analysis in the twenty-first century. *Geographical analysis*, 35(4), 341-353.
- Neutens, T., Delafontaine, M., Scott, D. M., & De Maeyer, P. (2012a). An analysis of day-to-day variations in individual space-time accessibility

- lit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23, 81–91.
- Neutens, T., Delafontaine, M., Schwanen, T., & Van de Weghe, N. (2012b). The relationship between opening hours and accessibility of public service deliver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25, 128–140.
-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 Penchansky, R., & Thomas, J. W. (1981). The concept of access: definition and relationship to consumer satisfaction. *Medical care*, 127–140.
- Ren, F., Tong, D., & Kwan, M. P. (2014). Space-time measures of demand for service: bridging location modelling and accessibility studies through a time-geographic framework.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6(4), 329–344.
- Weber, J., & Kwan, M. P. (2002). Bringing time back i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ravel time variations and facility opening hours on individual accessibilit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54(2), 226–240.

[누리집]

가나자와미술관 누리집.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각 공공도서관 누리집.
풍피두 센터 누리집.

ABSTRACT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Opening hours of Cultural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atching level of cultural facilities(library, Museum, art Museum) open hours and cultural service consumer available schedule for cultural facilities, and to derive policies to narrow the gap between demand–supply time. For this, the cultural service open hours analysis, cultural service demand survey, and policy cond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opening hours of major cultural facilities, the public library reference room opened 48.2%, and the public library reading room 90.8% opened by 22:00 on weekdays. After 18:00. And the nightly usage rate was 18% of the total users. The museums and art galleries were not open at night, but some national facilities were open at night until 21:00 on Wednesdays and Saturdays, and eight national museums and galleries were open all week without holidays. Night time open visitors to the national facilities were 1.6% of the total users for museums and 2.6% of the total users for art galleries, and without holiday visitors were 8.8% of the total us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available time for cultural facilities, the optimal demand time range was 19:00 to 22:00 on weekdays and 14:00 to 17:00 on weekend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opinions in favor of the open time extension policy, and it was also highly answered to adjus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The preference for open extension was weekdays evenings for libraries and Saturday evenings for museums

and galler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xtension of the opening hours, it is predicted that if the opening hours is extended, the use of the library will increase by 70.2%, the museum by 54.5%, and the art museum by 52.5%.

As a result of the diagnosis of policy conditions, even if the demand for opening hours extension of cultural facilities, the efficiency of cultural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of cultural facilities workers and the difference in local demand condition.

In consideration of supply, demand and policy conditions, we proposed night open model by region, night open model by facilities, night open operation program model, and user data collection and promotion system to sustain consumer-oriented policies.

부록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



--	--	--	--	--

공공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공공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의 개방시간 조정방안 연구를 위해 시행되는 조사입니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익명으로 전산처리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설문지 내용은 “어떤 의견이 몇 프로(%)” 라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의견은 실효성 있는 공공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개방시간 조정방안 모델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ROG : 안내문 별도 페이지로 제시]

SQ1. 귀하의 성별은? [1개 선택] 1) 남자 2) 여자

[PROG : Quota Check]

SQ2. 귀하의 연령은? [출생년도 입력]

- | | | |
|---------------------|-------------|-------------|
| 1) 만 14세 이하 **조사 중단 | 2) 만 15~19세 | 3) 만 20~29세 |
| 4) 만 30~39세 | 5) 만 40~49세 | 6) 만 50~59세 |
| 7) 만 60세 이상 | | |

[PROG : 만 15세 이상만 진행, Quota Check]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 | | | | |
|----------|----------|------------|----------|----------|
| 1) 서울특별시 |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4) 인천광역시 | 5) 광주광역시 |
| 6) 대전광역시 |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 9) 경기도 | 10) 강원도 |
| 11) 충청북도 | 12) 충청남도 | 13) 전라북도 | 14) 전라남도 | 15) 경상북도 |
| 16) 경상남도 | 17) 제주도 | | | |

[PROG : 2단계 지도방식으로 질문, Quota Check]

SQ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세부 주소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개 선택]

- | | | |
|-----------|-----------|-----------|
| 1) 동단위 지역 | 2) 읍단위 지역 | 3) 면단위 지역 |
|-----------|-----------|-----------|

[PROG : Quota Check]

Part 1. 개인 시간 관련 일반 사항

문1. 시간부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는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1개 선택]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가끔 부족하다고 느낀다	약간 여유가 있다고 느낀다	항상 여유가 있다고 느낀다
1	2	3	4

문1-2. [문 1~1의 1), 2) 응답자만] 다음 중 귀하께서 평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필수유지시간 (수면, 식사, 개인위생관리 등)
- 2) 의무시간 (일, 가사, 양육 등)
- 3) 여가시간 (문화, 체육, 관광, 오락/취미 등)

문2. 귀하께서는 평소 하루 일과(보통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의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1개 선택]

전혀 피곤하지 않다	거의 피곤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피곤하다	매우 피곤하다
1	2	3	4	5

문3. 귀하께서는 평소 하루 일과(보통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가 끝난 후에 여가활동(문화, 체육, 관광, 취미 등)에 시간을 내는 편입니까? [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4. 귀하께서는 평소 하루 일과(보통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가 끝난 후에 여가활동(문화, 체육, 관광, 취미 등)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5. 귀하께서는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여가시간을 다음 중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주시요. [필수 2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특별히 하고 있는 여가활동이 없다(휴식 등)
- 2) 다른 의무, 필수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 3) 문화예술관련(음악, 미술 등)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 4) 체육(운동, 산책 등) 관련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 5) 미디어(인터넷, 게임, 책, TV 등)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 6) 자기계발(외국어 학습 등) 활동을 하고 있다
- 7) 사회모임활동(친교 활동 등) 을 하고 있다
- 8)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다음은 귀하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2)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나는 나의 삶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나는 나의 삶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Part 2. 일상의 구조(잠재적 이용 가능 시간)

* 지금부터는 귀하의 평일 및 주말의 시간별 활동 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의 평일 또는 주말의 각 시간별로 가장 일반적인(평균적인) 활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2. 의무활동, 필수/유지활동, 여가활동 중 각 시간별로 가장 오래한 행동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3. 각 활동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무활동 : 직입활동(일, 출퇴근), 학교활동, 돌봄 활동, 구직 활동, 가사 활동, 가정용품 구매 등
 - 2) 필수/유지 활동 : 수면, 식사, 위생, 의료 서비스 받기 등
 - 3) 여가 활동 : 문화활동, 체육활동, 취미/오락활동, 관광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종교활동, 휴식활동 등

[PROG : 위의 설명 별도 페이지로 제시 및 문1과 문2 문항 위에 고정으로 제시]

문1. 다음 각 시간별로 귀하의 가장 일반적인 평일을 기준으로 주로 하는 활동을 하나씩만 선택해 주십시오. [행별 1개 선택]

		1. 의무활동 직입활동(일, 출퇴근), 학교활동, 돌봄 활동, 구직 활동, 가사활동, 가정용품 구매 등	2. 필수/유지 활동 수면, 식사, 위생, 의료 서비스 받기 등	3. 여가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취미/오락활 동, 관광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종교활동, 휴식활동 등
오전	7시 ~ 8시	1	2	3
	8시 ~ 9시	1	2	3
	9시 ~ 10시	1	2	3
	10시 ~ 11시	1	2	3
	11시 ~ 12시	1	2	3
오후	12시 ~ 13시	1	2	3
	13시 ~ 14시	1	2	3
	14시 ~ 15시	1	2	3
	15시 ~ 16시	1	2	3
	16시 ~ 17시	1	2	3
	17시 ~ 18시	1	2	3
저녁/ 야간	18시 ~ 19시	1	2	3
	19시 ~ 20시	1	2	3
	20시 ~ 21시	1	2	3
	21시 ~ 22시	1	2	3
	22시 ~ 23시	1	2	3
	23시 ~ 24시	1	2	3

[PROG : Step by Step]

문2. 다음 각 시간별로 귀하의 가장 일반적인 주말을 기준으로 주로 하는 활동을 하나씩만 선택해 주십시오. [행별 1개 선택]

		1. 의무활동	2. 필수/유지 활동	3. 여가활동
		직업활동(일, 출퇴근), 학교활동, 돌봄 활동, 구직 활동, 가사활동, 가정용품 구매 등	수면, 식사, 위생, 의료 서비스 받기 등	문화활동, 체육활동, 취미/오락활 동, 관광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종교활동, 휴식활동 등
오전	7시 ~ 8시	1	2	3
	8시 ~ 9시	1	2	3
	9시 ~ 10시	1	2	3
	10시 ~ 11시	1	2	3
	11시 ~ 12시	1	2	3
오후	12시 ~ 13시	1	2	3
	13시 ~ 14시	1	2	3
	14시 ~ 15시	1	2	3
	15시 ~ 16시	1	2	3
	16시 ~ 17시	1	2	3
	17시 ~ 18시	1	2	3
저녁/ 야간	18시 ~ 19시	1	2	3
	19시 ~ 20시	1	2	3
	20시 ~ 21시	1	2	3
	21시 ~ 22시	1	2	3
	22시 ~ 23시	1	2	3
	23시 ~ 24시	1	2	3

Part 3. 문화기반시설 이용 관련(이용 현황)

문화기반시설이란?

-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인문·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본 설문에서 문화기반시설은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교육청 포함)가 관할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의미합니다.

[PROG : 위의 설명 별도 페이지로 제시]

* 지금부터는 귀하의 최근 1년 동안 문화기반시설 이용 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1. 다음에 제시된 문화기반시설별로 최근 1년 동안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행별 1개 선택]

	방문 경험 있음	방문 경험 없음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2) 박물관	1	2
3) 미술관	1	2

[PROG : Step by Step]

문2-1. [도서관 이용자만] 귀하께서 [도서관]에 방문할 때 주로 이용했던 이동수단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도보 2) 자가용 3)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4) 기관 차량(서울버스 등)
5) 자전거/오토바이 6) 기타(적을 것 :)

문2-2. [도서관 이용자만] 귀하께서는 [문2-1 응답 제시을/를 이용하여 [도서관]에 방문할 때, 보통 이동시간(편도 기준)이 몇 분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혹은 1시간 이상 소요됐다면 분 단위로 환산하여 적어주십시오. [직접 입력]

평균 _____ 분 [PROG : Range 1~180분]

문2-3. [도서관 이용자만]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도서관]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1개 선택]

- 1) 일주일에 6~7회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1~5회
3) 한 달에 2~3회 4) 월 1회 정도
5) 분기(3개월)별 1회 6) 반기(6개월)별 1회
7) 1년에 1회

문2-4. [도서관 이용자만]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도서관]에 주로 어느 요일/시간대에 방문하십니까? [모두 선택]

- 1) 평일/오전 2) 평일/오후 3) 평일/저녁 및 야간
4) 토요일/오전 5) 토요일/오후 6) 토요일/저녁 및 야간
7) 일요일/오전 8) 일요일/오후 9) 일요일/저녁 및 야간

문2-5. [도서관 이용자만]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도서관]을 오후 6시 이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1) 있다 2) 없다

문2-6. [도서관 이용자만] 귀하께서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통 몇 시간/ 몇 분 정도 머무르십니까? 총 체류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직접 입력]

평균 체류시간 _____ 시간 [PROG : Range 0~20시간] _____ 분 [PROG : Range 0~59분, 0시간 0분 입력 불가]

문2-7. [도서관 이용자만] 귀하께서는 향후 [도서관]을 방문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1개 선택]

향후에 방문할 의향이 전혀 없다	향후에 방문할 의향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향후에 방문할 의향이 약간 있다	향후에 방문할 의향이 매우 있다
1	2	3	4	5

문3-1. [박물관 이용자만] 귀하께서 [박물관]에 방문할 때 주로 이용했던 이동수단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도보 2) 자가용 3)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4) 기관 차량(서클버스 등)
5) 자전거/오토바이 6) 기타(적을 것 :)

문3-2. [박물관 이용자만] 귀하께서 [문3-1 응답 제시]을/를 이용하여 [박물관]에 방문할 때, 보통 이동시간(편도 기준)이 몇 분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혹시 1시간 이상 소요됐다면 분 단위로 환산하여 적어주십시오. [직접 입력]

평균 _____ 분 [PROG : Range 1~180분]

문3-3. [박물관 이용자만]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박물관]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1개 선택]

- 1) 일주일에 6~7회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1~5회
3) 한 달에 2~3회 4) 월 1회 정도
5) 분기(3개월)별 1회 6) 반기(6개월)별 1회
7) 1년에 1회

문3-4. [박물관 이용자만]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박물관]에 주로 어느 요일/시간대에 방문하십니까? [모두 선택]

- 1) 평일/오전 2) 평일/오후 3) 평일/저녁 및 야간
4) 토요일/오전 5) 토요일/오후 6) 토요일/저녁 및 야간
7) 일요일/오전 8) 일요일/오후 9) 일요일/저녁 및 야간

문3-5. [박물관 이용자만]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박물관]을 오후 6시 이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1) 있다 2) 없다

문3-6. [박물관 이용자만] 귀하께서 [박물관]을 이용할 때, 보통 몇 시간/ 몇 분 정도 머무르셨습니까? 총 체류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직접 입력]

평균 체류시간 _____ 시간 [PROG : Range 0~20시간] _____ 분 [PROG : Range 0~59분, 0시간 0분 입력 불가]

문3-7. [박물관 이용자만] 귀하께서는 향후 [박물관]을 방문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1개 선택]

향후에 방문할 의향이 전혀 없다	향후에 방문할 의향이 별로 없다	보통이다	향후에 방문할 의향이 약간 있다	향후에 방문할 의향이 매우 있다
1	2	3	4	5

* 지금부터는 문화기반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의 위치, 개인적 여건에 비추어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5. 다음에 제시된 문화기반시설별로 귀하의 주변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행별 1개 선택]

가용성	주변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떠오른다	주변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떠오르지 않는다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2) 박물관	1	2
3) 미술관	1	2

[PROG : Step by Step]

문6. 다음에 제시된 문화기반시설별로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해당시설은 귀하의 주변에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지리접근성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3	4	5
2) 박물관	1	2	3	4	5
3) 미술관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문7. 다음에 제시된 문화기반시설별로 귀하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시설의 개방시간을 고려할 때 방문 시간을 맞추기가 쉬운 편입니까?
[행별 1개 선택]

시간접근성	매우 이용하기 쉽지 않다	조금 이용하기 쉽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이용하기 쉽다	매우 이용하기 쉽다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3	4	5
2) 박물관	1	2	3	4	5
3) 미술관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문8. 다음에 제시된 문화기반시설별로 귀하께서 원하는 서비스(프로그램)를 해당 시설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서비스접근성	매우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보통이다	약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3	4	5
2) 박물관	1	2	3	4	5
3) 미술관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문9. 다음에 제시된 문화기반시설별로 개방시간, 위치, 서비스 품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해당시설은 이용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접근성 만족	매우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보통이다	약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3	4	5
2) 박물관	1	2	3	4	5
3) 미술관	1	2	3	4	5

[PROG : Step by Step]

Part 4.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 관련

* 지금부터는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연장 정책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연장 정책〉

현재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일부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저녁 야간까지 개방시간 연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립 미술관, 박물관에서는 1월 1일 추석·설 명절 등을 제외하고 정기 휴관일 없이 주 7일(월~일)을 개방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발전시키기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정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PROG : 위의 설명 별도 페이지로 제시]

문1. 귀하께서는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귀하께서 갈 수 있는 시간에 시설의 문이 닫혀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2. 귀하의 하루 스케줄 상 이용 가능한 시간과 시설 운영시간의 일치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 향후 귀하의 여건(하루 스케줄)과 이용의향을 고려할 때, 각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 조정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문3. 다음에 제시된 문화기반시설별로 개방시간 조정(연장, 축소 모두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개방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개방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2) 박물관	1	2
3) 미술관	1	2

[PROG : Step by Step]

문3-1. [문3의 1) 응답 시설만 제시] 다음에 제시된 문화기반시설별로 개방시간이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현재보다 개방시간 연장	현재보다 개방시간 축소	각 시설 여건에 따라 조정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3
2) 박물관	1	2	3
3) 미술관	1	2	3

[PROG : Step by Step]

문3-2. [문3-1의 1) 응답 사실만 제시] 귀하께서 개방시간이 현재보다 연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문화기반시설별로 개방시간이 연장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누가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정부가 전담	이용자가 전담	정부/이용자가 분담	모르겠음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3	4
2) 박물관	1	2	3	4
3) 미술관	1	2	3	4

[PROG : Step by Step]

문3-4. [문3-1의 1) 응답 사실만 제시] 하께서 개방시간이 현재보다 연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문화기반시설별로 개방시간 연장에 따라 1회 이용 시 귀하께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얼마까지입니까? [행별 1개 선택]

	없음	1000원 미만	2000원 미만	3000원 미만	4000원 미만	4000원 이상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3	4	5	6
2) 박물관	1	2	3	4	5	6
3) 미술관	1	2	3	4	5	6

[PROG : Step by Step]

문3-5. [문3-1의 1) 응답 사실만 제시] 하께서 개방시간이 현재보다 연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문화기반시설별로 가장 마음에 드는 연장 방식은 무엇입니까? [행별 1개 선택]

	평일 저녁 연장	토요일 저녁 연장	일요일 저녁 연장	평일 중 정해진 날만 저녁 연장	주말 중 정해진 날만 저녁 연장	상시 (월~일) 저녁 연장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3	4	5	6
2) 박물관	1	2	3	4	5	6
3) 미술관	1	2	3	4	5	6

[PROG : Step by Step]

문4-1. [문 3-1-1)의 2, 3)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도서관]의 개방시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현재 개방시간만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 2) 개방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개방시간 연장으로 연장된 시간만큼 운영하는데 비용(세금)이 더 들 것이다
- 4) 개방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이용객이 늘지 않을 것이다
- 5) 기타(적을 것 :)

문4-2. [문 3-1-2)의 2, 3)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박물관]의 개방시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현재 개방시간만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 2) 개방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개방시간 연장으로 연장된 시간만큼 운영하는데 비용(세금)이 더 들 것이다
- 4) 개방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이용객이 늘지 않을 것이다
- 5) 기타(적을 것 :)

문4-3. [문 3-1-3)의 2, 3)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미술관]의 개방시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현재 개방시간만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 2) 개방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개방시간 연장으로 연장된 시간만큼 운영하는데 비용(세금)이 더 들 것이다
- 4) 개방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이용객이 늘지 않을 것이다
- 5) 기타(적을 것 :)

문5. 귀하의 주변에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이 저녁, 야간, 주 7일 등으로 연장 조정된다면, 향후에 문화기반시설별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개방시간 연장 시 향후 이용 의향	있다	없다	모르겠다
1)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외)	1	2	3
2) 박물관	1	2	3
3) 미술관	1	2	3

[PROG : Step by Step]

문5-1. [문 5-1)의 2)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도서관]의 개방시간 연장 시 향후 이용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해당시설이 주변(집 근처 등)에 없다
- 2) 해당시설 이용에 관심이 없다
- 3) 해당시설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 4) 기타(적을 것 :)

문5-2. [문 5-2)의 2)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박물관]의 개방시간 연장 시 향후 이용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해당시설이 주변(집 근처 등)에 없다
- 2) 해당시설 이용에 관심이 없다
- 3) 해당시설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 4) 기타(적을 것 :)

문5-3. [문 5-3)의 2)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미술관]의 개방시간 연장 시 향후 이용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해당시설이 주변(집 근처 등)에 없다
- 2) 해당시설 이용에 관심이 없다
- 3) 해당시설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 4) 기타(적을 것 :)

문6-1. 다음 중 귀하께서 평일(월~금)에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2개 이상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시설이 열려 있고, 닫혀 있고와 상관없이 귀하가 이용 가능한 시간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2개 선택, 모두 선택]

		평일(월~금)
오전	7시 ~ 8시	1
	8시 ~ 9시	2
	9시 ~ 10시	3
	10시 ~ 11시	4
	11시 ~ 12시	5
오후	12시 ~ 13시	6
	13시 ~ 14시	7
	14시 ~ 15시	8
	15시 ~ 16시	9
	16시 ~ 17시	10
저녁/ 야간	17시 ~ 18시	11
	18시 ~ 19시	12
	19시 ~ 20시	13
	20시 ~ 21시	14
	21시 ~ 22시	15
	22시 ~ 23시	16
	23시 ~ 24시	17

문6-2. 다음 중 귀하께서 토요일에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2개 이상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시설이 열려있고, 닫혀 있고와 상관없이 귀하가 이용 가능한 시간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2개 선택, 모두 선택]

		토요일
오전	7시 ~ 8시	1
	8시 ~ 9시	2
	9시 ~ 10시	3
	10시 ~ 11시	4
	11시 ~ 12시	5
오후	12시 ~ 13시	6
	13시 ~ 14시	7
	14시 ~ 15시	8
	15시 ~ 16시	9
	16시 ~ 17시	10
저녁/ 야간	17시 ~ 18시	11
	18시 ~ 19시	12
	19시 ~ 20시	13
	20시 ~ 21시	14
	21시 ~ 22시	15
	22시 ~ 23시	16
	23시 ~ 24시	17

문6-3. 다음 중 귀하께서 일요일에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2개 이상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시설이 열려있고, 닫혀 있고와 상관없이 귀하가 이용 가능한 시간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2개 선택, 모두 선택]

		일요일
오전	7시 ~ 8시	1
	8시 ~ 9시	2
	9시 ~ 10시	3
	10시 ~ 11시	4
	11시 ~ 12시	5
오후	12시 ~ 13시	6
	13시 ~ 14시	7
	14시 ~ 15시	8
	15시 ~ 16시	9
	16시 ~ 17시	10
저녁/ 야간	17시 ~ 18시	11
	18시 ~ 19시	12
	19시 ~ 20시	13
	20시 ~ 21시	14
	21시 ~ 22시	15
	22시 ~ 23시	16
	23시 ~ 24시	17

문7.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시간이 연장된다면, 해당시설의 이용객을 위해서 함께 가장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개방시간 연장만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 2) 연장된 시간에 다각적인 서비스(프로그램)가 기획되어야 한다
- 3)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 4) 해당시설의 실내 공간 인테리어를 깨끗하고, 친숙하게 해야 한다
- 5) 해당시설 공간이용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 6) 모르겠음

Part 5. 문화기반시설 일반

문1. 귀하께서는 현재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문2.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운영시간 다양화
- 2) 편의공간의 확대
- 3) 운영인력의 전문성/친절성 강화
- 4) 프로그램 확대 및 품질 강화
- 5) 기타 (적용 것 :)

문3.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필수 3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1) 해당시설의 숫자 확대 | 2) 해당시설로의 교통 편의성 확대 |
| 3) 해당시설의 개방시간 확대 | 4) 해당시설의 서비스 품질 프로그램, 인력 등) 개선 |
| 5) 해당시설의 공간 쾌적성 디자인 개선 | 6) 해당시설에 대한 정보확득 편의성 확대 |
| 7)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필요 | 8)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친근감 및 관심 증대 필요 |
| 9)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적 여유 필요 | |

문4. 현재 일부 국립 박물관·미술관에서는 1월 1일 추석·설 명절 등을 제외하고 정기 휴관일 없이 주 7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주 7일 개방(무휴관)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주 7일 개방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 주 7일 개방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

문4-1. [문 4의 1) 응답자만]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주 7일 개방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12개 선택]

- 1) 이용자가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방문하고 싶은 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 2) 국민들의 박물관 미술관 이용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
- 3)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필요하다
- 4) 기타 (적은 것 :)

문4-2. [문 4의 2] 응답자만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주 7일 개방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정기후원금(예시: 월요일이 있어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 2) 주 7일 개방으로 비용(세금)이 더 들어가게 된다
- 3) 주 7일 개방으로 전신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4) 주 7일 근무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 5) 기타 (적을 것 :)

문6-1. 귀하의 최근 1년 동안(2018년 7월 ~ 2019년 6월) 세금 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1개 선택]

- | | | |
|--------------------|---------------------|-------------------|
| 1) 소득 없음 | 2) 월 100만원 미만 | 3) 월 100~200만원 미만 |
| 4) 월 200~300만원 미만 | 5) 월 300~400만원 미만 | 6) 월 400~500만원 미만 |
| 7) 월 500~600만원 미만 | 8) 월 600~700만원 미만 | 9) 월 700~800만원 미만 |
| 10) 월 800~900만원 미만 | 11) 월 900~1000만원 미만 | 12) 월 1000만원 이상 |

문6-2. [문 4의 1) 응답자 제외] 귀댁의 최근 1년 동안(2018년 7월 ~ 2019년 6월) 세금 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1개 선택]

- | | | |
|--------------------|---------------------|-------------------|
| 1) 소득 없음 | 2) 월 100만원 미만 | 3) 월 100~200만원 미만 |
| 4) 월 200~300만원 미만 | 5) 월 300~400만원 미만 | 6) 월 400~500만원 미만 |
| 7) 월 500~600만원 미만 | 8) 월 600~700만원 미만 | 9) 월 700~800만원 미만 |
| 10) 월 800~900만원 미만 | 11) 월 900~1000만원 미만 | 12) 월 1000만원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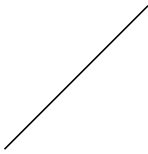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1절~제2절 일부, 제5장, 제6장, 연구총괄

공동연구자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제4장 제1절 일부, 제3절
손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 제4장 제1절 일부, 제6장 주요 정책 사례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방안 연구

발 행 인 김 대 관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9년 11월 12일
발 행 일 2019년 11월 12일
인 쇄 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

ISBN : 978-89-6035-782-2 93300



www.kcti.re.kr